



有備無患의

世界가 1일 生活卷에 들어선 高度의 産業社會의 구조속에서 急成長하는 모든 것들과 같이 우리 태권도도 급성장을 하였습니다.

1975년에 國際競技聯盟 加入,

1983年 I.O.C 승인 종목으로 採擇,

1983年엔 팬암(Pam America)게임 정식 종목 채택, 되었으며, 86아시안 게임에 정식경기종목으로 채택이 확실시 되는 등, 장족의 발전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 6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에서 우리는 중주국의 위용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6연패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우리는 '86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대비하여 그 예행연습겸, 제 7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를 서울로 유치(85년 9월 진행)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제 태권도는 우리들만이 것이 아니라, 전세계인의 것임을 인지하고, 세계인들과 같이 호흡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전을 거듭하는 태권도의 밝은 내일을 위하여서 우리 태권도의 要職者와 一線에서 實務를 담당하는 태권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는,

첫째, 淸廉하고,

둘째, 有能하여야 하며,

셋째, 公平無私하고,

넷째, 德望을 갖추어야 하며,

다섯째, 맡은 職務에 粉骨碎身하는 자세가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의 다섯가지의 性品을 갖추어야 함은 지도자의 필수적인 요건이며 쏠 태권도인이

跆拳道人이 되자

세계태권도연맹총재 김운용
대한태권도협회장

바라는 요망일 것입니다.

형여, 要職에 임명되었음을 일신의 영달과 출세로 만족해 하거나, 立身揚名의 자랑
거리로 생각하였던 過去의 일들은 제 5 공화국 출범이후 아득한 수평선위로 사라 졌을
니다.

“우리 모두 준비를 하십시오.”

태권도의 역사와 철학도 더 더욱 정립시켜야 하겠고,

좀더 과학화, 좀더 인기화 등.....

준비하여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태권도의 一線 실무자들은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수 있는 외
국어의 해득능력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모두 공부하는 태권도인이 됩시다.!

우리모두 준비하는 태권도인이 됩시다.!

시간은 공부하며 준비하며 생활하는 사람에겐 황금의 시간들이요. 안일무사하게 보
내는 사람에겐 허상의 시간 입니다.

큼직, 큼직한 행사들을 기다리지말고,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有備無患의 자세로 찾아
나서는 태권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有備無患의 태권도인.!

다사다난 하였던 한해를 보내며 大望의 84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有備無患”의 네
글자를 生活의 座右銘으로 정진하시길 당부하오며 태권도 가족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理想的 韓國人像 定立(Ⅳ)

安 秉 煜 교수

樂은 肯定의 정신이요,
包容의 태도요,
攝取의 자세다.

第六章 樂

理想的 韓國人像의 마지막 속성으로서 나는 樂의 德을 강조하려고 한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살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樂天의 國民이 되어야 한다. 낙은 肯定의 정신이요, 包容의 태도요, 攝取의 자세다. 바다와 같은 포용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섭취하고 소화하여 自我完成, 자아實現을 이루어야 한다. 그것은 生의 肯定의 정신이다. 낙관은 큰 힘의 원천이요, 悲觀은 無力의 원천이다. 세계는 창조의 무대요, 天地는 활동의 領域이요, 萬物은 自我實現의 素材다. 산다는 것은 創造의 自己表現을 하는 것이다. 개인의 자아를 完成해야 한다. 人間은 三大衝動을 갖는다.

첫째는 享樂충동이요

둘째는 所有충동이요

세째는 創造충동이다.

인생을 향락의 놀이터로 생각하고 향락충동의 충족에서 生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享樂의 人生觀은 결국 破滅밖에 없다. 또 인생을 소유의 싸움터로 생각하고 금전과 物慾의 노예가 되어 소유충동만 만족시키려는 소유 中心의 人生觀은 결국 共闘 共滅로 끝난다. 그러나 인생을 창조의 일터로 생각하고 자기의 天分과 재능과 개성을 最高度로 발휘하고 표현하여 自我의 창조충동을 충족시키고 社會的 價值創造를 하려는 창조적 인생관이야말로 가장 높고 깊은 차원의 生이다. 산다는 것은 활동하는 것이요,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創造世界의 창조적 要素가 되고 成就社會



□ 目 次 □

第一章 序 論	第五章 勇
第二章 誠	第六章 樂
第三章 和	第七章 結 論
第四章 明	

의 성취인이 되어야 한다. 인간의 가치의 尺度는 成就에 있다. 너는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물음이다. 우리 민족은 무엇을 성취하였는가. 이것처럼 중요한 역사의 물음이 없다. 많이 성취한 인간이 위대하고 많이 성취한 민족이 卓越하다. 성취야말로 우리의 인생관과 價值觀의 核心原理다. 성취에는 보람이 있고 充實히 있고 희열이 있고 행복이 있다. 과거의 韓國人의 思考와 행동, 가치관과 性格形成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儒敎요, 유교의 바이블은 論語다. 논어 十卷 二十篇 五百個 문장의 벽두는 樂의 원리를 강조하는 글에서부터 시작한다.

學而時習之，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不亦君子乎，

이글을 三乎라고 한다. 乎가 세번나오기 때문이다. 첫째는 공부하는 기쁨을 말했고, 둘째는 우정의 기쁨을 말했고 세째는 君子의 기쁨을 말한 명문이다. 不亦樂乎라고 했다. 또한 즐겁지 아니하랴. 孟子의 三樂論은 너무나 유명하다. 利用의 필요가 없다. 和睦한 가정 생활의 낙을 첫째로 강조했고, 天地神明에 부끄러움이 없는 良心生活의 낙을 둘째로 얘기했고, 天下의 英才를 모아 가르치는 교육의 낙을 마지막으로 논했다. 일찌기 공자는 知와 樂의 三단계를 구별하고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고 했다.

子曰，知之者，不如好之者，好之者，不如樂之者。

(論語 也篇)

우리는 知와 好의 단계를 넘어 樂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즐겁다는 것처럼 어렵고 중요한 일이 없다. 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공부를 하되 공부를 즐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일을 하되 일을 즐기는 사람은 드물다. 생을 살되 생을 즐기는 사람은 적다. 우리는 낙의 哲學을 배워야 한다. 새로운 한국인은 모든 일을 肯定的 정신으로 즐긴 줄을 알아야 한다. 생을 즐기고, 對人關係를 즐기고, 天地를 즐기고 인간의 모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 우리는 否定主義의 자세를 肯定主義의 자세로 바꾸어야 한다. 否定的

自我觀, 부정적 인생관, 부정적 가치관, 부정적 歷史觀, 부정적 국가관, 부정적 傳統觀, 부정적 사고방식이 우리의 의식과 行動과 생활과 性格이 깊숙히 침투되어 있다.

그러한 思考의 習慣이 자라서 하나의 痼疾로 변했다. 否定的 思考方式은 自己卑下요, 자기경멸이요, 자기侮辰이요, 자기 否定이다. 이것은 日帝 三十六年간의 亡國시대에 日人들이 韓國인의 意識構造 속에 심어준 가장 큰 精神惡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려는 나쁜 습관이 몸과 마음에 깊이 배어 버렸다. 자연은 절대로 否定을 하지 않는다. 꽃과 나무는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다. 새나 동물은 자기를 모멸하지 않는다. 天地萬物은 自己肯定으로 살아간다. 산다는 것은 自己肯定이요, 자기表現이요, 자기主張이다. 이것이 存在의 原理요 法則이다. 자기가 자기를 卑下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부정하는 것은 존재의 원리와 法則에 위배되는 하나의 惡이다. 자기肯定에서 自信感이 생기고, 자신감에서 힘이 생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부정의 정신을 과감하게 버리고 자기긍정의 자세를 용감하게 배워야 한다. 존재는 自己肯定이다. 個人的 자신감과 民族的 自信感의 회복이 없이는 우리는 힘과 번영과 富強의 自主民族이 될 수 없다. 樂에는 愛가 필요하다. 즐기려면 사랑해야 한다. 애가 없으면 낙이 불가능하다. 공부를 사랑하는 사람이 공부를 즐길 수 있고, 공부를 즐기려면 공부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五愛思想을 강조하려고 한다. 우리는 다음 다섯 가지를 사랑해야 한다.

첫째는 自然愛다. 우리는 천지만물을 사랑해야 한다. 자연은 생명의 原泉이요, 인간의 보금자리다. 나는 나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태양과 공기와 물과 나무와 五穀百果의 힘으로 살아 간다. 자연과 인간은 하나님님의 두 創造領域이다. 자연은 神의 藝術이라고 시인 단테는 갈파했다. 자연은 우리의 생활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美의 原泉이요, 정신의 安息處요, 靈感의 근원이요, 지혜의 貯水地다. 그래서 天人合一이라고 했다. 또 자연은 大宇宙라고 했다. 자연과 인간은 서로 아름다운 調和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는 國家愛, 民族愛다. 국가는 민족의 집이다. 대한민국은 우리 四千萬이 사는 큰 집



이다. 국가가 붕괴하면 우리의 存在의 기초가 붕괴한다. 우리는 부강하고 번영하는 나라를 건설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遺産으로 물려줄 책임과 使命이 있다. 勇氣로써 나라를 지키고, 勤勞로써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構誠으로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 護國과 富國과 愛國은 국민의 道理요 직분이다. 인류의 尊敬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세계의 最高民族과 模範國民이 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念願이요 높은 이상이다. 국민 각자의 國家愛와 民族愛가 없으면 이 염원과 이상은 결코 실현될 수가 없다.

세제는 職業愛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직업을 사랑해야 한다. 사회가 存立 발전하려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 직업에 대해서 使命感과 天職意識을 가지고 자기 직업에 愛情과 긍지와 忠誠心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일해야 한다. 국민들의 그러한 정신과 노력이 결집하여 富強한 사회를 만든다. 직장에서 자기의 責任完遂하는 것이 곧 愛國이다. 인생에서 이처럼 중요한 것

이 없다. 우리는 저마다 직업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에 寄與하고 貢獻해야 한다.

네제는 眞理愛요, 文化愛다. 우리는 진리와 문화를 사랑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진리는 인류가 수천년에 걸쳐 연구하고 축적한 정신의 共同財産이요, 萬代의 普遍的 價値다.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진리는 인간의 빛이요, 힘이요, 열이요, 재산이다. 동서 고금의 많은 學問과 기술, 聖賢들이 추구한 智慧의 보배, 위대한 文學과 예술과 宗教, 이것은 인류의 영원한 精神的 記念塔이다. 우리는 진리와 문화를 사랑하는 정신을 배워야 한다.

끝으로 生命愛다. 이 세상에 무엇이 소중하다고 하여도 인간의 생명처럼 소중하고 존귀한 것이 없다. 우리는 나와 남의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 自他の 生命尊重은 인간의 道德의 근본이다. 자기자신의 생명을 또한 사랑할 수 있다. 善이란 무엇이나,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첫째, 4천만의 民生과 번영을 위한

自主 國防國家의 건설

둘째, 모든 國民이 自由와 平等을 享有하기 위한

高度 產社會의 건설

세째, 不正 부패가 없는 깨끗한 나라를 위한

自由 民主社會의 건설

네째, 天下萬民이 끌고루 生存權과 幸福權을 누

리기 위한 正義社會의 건설

다섯째, 민족 本然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福祉國家의 건설

여섯째, 국민의 文化水準을 높이고,

위대한 國民性格 건설을 위한

統一國家의 건설

일곱째, 高等教育 國家의 건설로

새 歷史의 새 主人이 되어서

誠과 和와 明과 勇과 樂의 五德을 겸비

하는 새 韓國인이 되어

위대한 韓國을 건설하고 위대한 歷史를

創造해야 한다.

促進向上시키는 것이다. 惡이란 무엇이나. 생명을 미워하고 생명을 阻害 파괴하는 것이다. 敬天 愛人은 모든 道德과 宗教의 根幹이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높은 도덕과 종교가 또 있을까. 人種과 國境과 종교와 性別과 계급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은 四海同胞, 형제자매로서, 人類共同體의 같은 식구로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인류의 究極의 목표요, 최고의 理想이다.

나는 自然愛, 國家愛, 職業愛, 眞理愛, 生命愛의 五愛思想을 강조했다. 一切를 긍정하고 모든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면 이러한 사랑이 필요하다. 존재를 즐기려면 존재를 사랑해야 한다. 愛가 없으면 樂이 불가능하다. 樂의 德은 理想的 韓國人像의 마지막 속성이다.

第七章 結 論

우리는 지금 역사의 엄숙한 課題 앞에 서 있다.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民族의 使命인 동시에 運命이다. 우리는 人類의 尊敬과 信賴를 받을 수 있는 세계의 模範民族이 되고 一等國民이 되어야 한다. 위대한 나라는 위대한 國民性格을 가진 나라다. 性格이 運命을 지배한다. 우리가 위대한 국민성격을 건설하면 반드시 우리 앞에 위대한 未來가 전개될 굳건히 守護하기 위하여

(1) 高等의 自主國防 國家를 건설해야 하고, 三千八百萬의 民生과 번영을 위하여

(2) 高度 產業社會를 건설해야 하고, 모든 국민이 自由와 平等을 享有하기 위하여

(3) 自由 民主社會를 건설해야 하고, 不正 부패가 없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4) 正義社會를 건설해야 하고, 天下萬民이 끌고루 生存權과 幸福權을 누리기 위하여

(5) 福祉國家를 건설해야 하고, 민족 本然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6) 우리 歷史의 悲願인 統一國家를 건설해야 하고, 국민의 文化水準을 높이고, 위대한 國民性格을 건설하기 위하여

(7) 高等教育 國家를 건설해야 한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투철한 歷史意識과 主人意識과 創造意識을 가지고 민족의 智慧와 정열과 意志를 結集한다면 우리의 위대한 목표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太平洋時代가 개막하고 아세아의 世紀가 도래하려는 역사의 커다란 轉換期를 맞이했다. 새 시대는 새 人間型을 요구한다.

우리는 새 歷史의 새 主人이 되어야 한다. 誠과 和와 明과 勇과 樂의 五德을 兼備하는 새 韓國인이 되어 위대한 역사를 創造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榮光된 使命이다. (끝)

壬辰亂의 歷史的 意義



李 相 鉉

1. 서울대학교 사법대학 역사과 졸업
2.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
3.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4. 전 공군사관학교 조교수
5. 현 세종대학 역사과 조교수

저서 1. 自由鬭爭의 歷史
2. 西洋 歷史思想史

主 要 內 容

1) 지금까지 우리는 戰爭이라 하면 무조건 혐오감을 가지고 대하였다. 이는 人間의 本性이 平和를 지향하는 本質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歷史적으로 보면 戰爭은 歷史의 進展을 위한 動因이 되었으며 새로운 時代 새로운 文化를 開創하는 원인이 되었다.

2) 우리 民族은 지나칠 정도로 戰爭에 대한 민감한 감각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韓民族이라는 것이 마치 戰亂에 시달리며 피난만 다니는 民族의 대명사인 것처럼 착각할 정도다. 그러나 냉엄하게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민족은 2000 년간의 역사속에 큰 전쟁은 불과 10여번이 채 되지 않았고 이는 겨우로 200여년간의 平和期를 10여번이나 마치 했었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3) 역사상의 사건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데는 微視적인 방법과 巨視의 方法이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壬辰亂을 微視의으로만 보아 왔는데, 이를 巨視의으로 본다면 그것은 朝鮮王朝의 文化가 最高絶頂을 이루었을 때 나타나는 歷史의 一般的 現象이었던 결론이 나온다.

4) 이때에 朝鮮은 朱子學의 最高度の 發展을 이었고 純白磁로 대동되는 兩球文化의 絶頂을, 그리고 大同法과 같은 새로운 制度로써 새로이 답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經濟的 內實이 충만해져 있었다. 이런 입장에서 볼때 지금까지 매도의 대상이 되었던 黨爭도 政治的인 최고 발전단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이 戰爭은 단순히 朝鮮과 日本의 戰爭이 아니고 東亞細亞에 있어서 커다란 事件이었으며 東亞細亞의 歷史의 方向을 轉換시킨 위대한 결과를 일태한 사건이었다.

1. 緒 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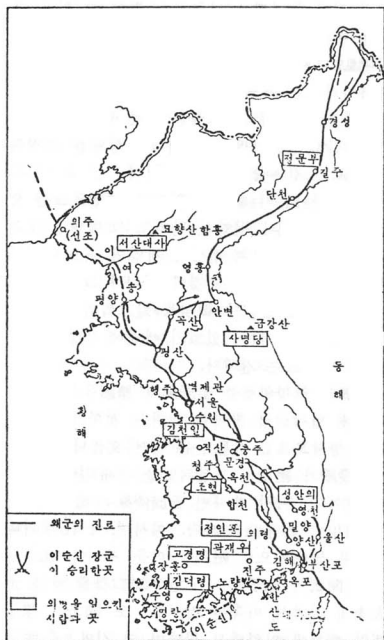
사람들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혼란보다 안정

을, 전쟁보다 평화를 더 좋아하고 안정과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러나 눈을 보다

역사적으로 보면 혼란이나 전쟁은 사람들이 원하던 원치 않는 관계없이 발생하여 왔다.

그러면 전 : 인류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가? 역사는 물론 인류의 역사이고 인간에 의하여 진전되어 가는 과정이지만 인간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은 행로이다. 어느 하나의 單位文化 또는 國家가 그 發展途上에 있어서 最高的 頂點에 이르게 되면 그 文化를 이루고 있는 民族이나 국가의 백성들이 원치 않더라도, 또는 그것을 저지하려는 忠臣·列士들이 수없이 등장하더라도 결국 文化는 衰退되는 길을 걸어야 되고 國家는 沒落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처럼 人類의 歷史에 있어서 피할수 없이 다가오는 歷史의 한 리듬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그 戰爭들은 역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인간적인 입장에서와는 달리 오히려 創造의인 결과를 낳았으며 새로운 文化의 發展, 새로운 歷史의 時代의 展開의 시발점이 되어 역사발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조건이 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이스의 역사철학자인 「헤라클리투스」는 戰爭이야 말로 萬物의 아버지고 萬物의 왕이라고까지 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전란속에서 살아 온 民族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知識人들, 심지어는 한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우리 韓民族은 세계사상 유래없이 많은 전쟁을 겪은 민족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역사가 작게 보아서 (또는 기억이 선명할 역사만을 보아서) 2천 년 이상할 때, 이 긴 역사속에서 우리 민족이 치른 戰爭다운 戰爭이 몇 번 있었는가? 고구려 시대에 있었던 隋의 침략, 唐의 침략, 고려시대에 있었던 遼의 침략과 金の 침략, 그리고 蒙古의 侵入, 그다음 朝鮮조에 와서 壬辰亂과 丙子亂을 外民族의 침입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고 그밖에 內亂이 약간 있었다고 하더라도 2000 년 역사에 기껏 10여회의 戰亂이 있었을 뿐이니 이대 평균하면 200 년에 한번씩의 꼴이 된다. 이를 다시 말하면 韓國史에는 2000 년간의 平和期가 10년만 있었다는 말이 되고 보면, 이처럼 많은 平和時代를 향유한 民族은 세계역사상 그리 흔하지 아니할 것이다.



임진왜란 육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속에 그처럼 戰亂에 대한 과잉 반응내지는 「노이로제」적인 기억을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언제나 글을 쓰는 이들, 歷史를 서술하는 이들의 敗北意識이나 지나치게 감성적인 平和主義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 긴 세월의 평화가 人間의 의식을 만일무사주의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意識때문에 과거의 史家들은 戰爭의 本質과 歷史的 價値를 외면하였고 그것에 대한 혐오에 근거한 편견으로 이를 그릇되게 해석해 온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우리는 歷史의 戰爭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과 그 결과를 냉엄하게 관찰·이해·보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任辰亂의 背景 및 原因

가. 朝鮮側의 원인

임진왜란은 왜 일어났는가? 이 문제를 논의

함에 있어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미시적(微視的)인 것으로 이는 종래의 방식대로 당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이유, 더 나아가서는 어느 개인(왕이나 위정자)의 실책이나 실무에서 그 이유를 찾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대개 전쟁이 일어난 시대적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다른 하나는 巨視的인 것으로, 歷史 또는 文化의 發展過程의 필연적 결과로 그 戰爭을 보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전쟁의 책임이 어느 개인의失政이나 失手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社會·經濟的 構造가 戰爭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된 것으로 보는 견해다.

筆者의 입장에서는 壬辰亂의 原因을 후자의 견해에 입각해서 찾아야겠다는 것이다. 즉 筆者의 생각으로는 大戰爭은 어떤 文化나 國家의 發展段階가 絶頂에 도달되었을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壬辰倭亂은 朝鮮王朝史가 絶頂에 도달한 결과다. 이시대, 즉 16세기의 조선은 思想으로 絶頂을 이룬 세기다. 조선왕조의 開創이 朱子學을 도입하고 그것을 익힌 士大夫에 의해서 이룩된 것이요, 또 國是가 朱子學의 實現에 있었다고 한다던 이 시대, 즉 明宗宣祖의 시대는 李, 李 등으로 대표되는 朱子學哲學의 東洋의 最高 絶頂을 이루었던 시기다. 文化·藝術의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다. 질박한 분청사기에서 출발한 李朝白磁가 純白磁로 발전하여 陶藝로써 朱子學의 理想이요 朝鮮선비의 꿈인 白鶴을 상징케 한 朝鮮人의 藝術魂이 이 시기에 발휘되었다. 뿐만 아니라 朝鮮의 黨爭도 이 시기에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黨爭을 朝鮮史의 汚點으로 간주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주지하는 바와같이 日帝에 의한 도전적인 편견에 의한 해석일 뿐이다. 그리고 설사 조선조에 남겨진 제기록들이 그것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의 대부분의 기록들이 당쟁에서 물러나 현실 정치계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恨과 불만을 담은 마음으로 세상사를 보는 눈들에 의하여 쓰여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당시 黨派의 성립을 정치의 발전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파간의 論爭의 深大化는 정치의 活性化 즉 종래에 王室안의 정

치투쟁의 형태에서 벗어나, 당시 政治理念이며 生活哲學이었던 朱子學에 대한 解釋上的의 差異에서 야기되는 諸理論을 근거로 하여 黨派를 구성하고 政論을 펼쳐나간 당시의 政治人들의 政治活動은 그야말로 政治의 活性化를 뜻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주지되어야 할 것은 이 黨爭의 형태야말로 一人내지는 극소수자에 의해서 권력이 행사되는 專制政治와 構力的의 分散으로 社會的 混亂을 초래하는 無政府狀態의 중간적 정치형태, 이를테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형태로 본 中庸의 형태라는 점이다.

경제적으로도 이 시대는 종래의 경제제도로서는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된 상태에 있었다. 다시말하면 高麗朝로부터 전승된 租稅制度인 租庸調의 現物收納體制로서는 당시의 경제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내실이 발전된 상태였으므로 粟谷은 代貢收米法을 제창하게 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平和的 무드의 절정이었다는 점이다. 文化의 최고적 발전과 정치·경제의 안정적 발전은 平和的 분위기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朝鮮은 蒙古의 支配의 와중에서 建國의 기틀을 잡았고 新生 明나라와의 정치적 알력을 청산한 뒤 太平歲月을 구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戰爭은 바로 이러한 時期, 이를테면 어떤單位 文化나 國家의 發展이 最高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페르샤의 文化와 國力이 最高潮에 달하여 老衰했다고 생각될 때, 페르샤 전쟁이 있었고 그리스文化가 極盛하였을 때 마케도니아戰爭이 일어났고 로마文化가 극도에 도달했을 때 게르만의 移動이 따랐다는 등 세계사상 大戰亂이 모두 같은 상황에서 일어났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나. 日本側의 背景과 原因

전쟁에 있어 침략을 당하는 측이 文化的으로 最高位에 있었다고 한다면 侵略者의 경우는 그 반대다. 아직 文化나 政治 經濟의 安定이나 繁盛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번성하고 있고 또는 最高絶頂에 있는 文化나 國家의 형태를 모방, 또는 답습하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자신의 野蠻의이고 無秩序한 狀態를 벗어나서 發



1529년 동래부성(東萊府城)이 왜군에게 함락된 당시의 전후상황도

表狀態로 지향하고자 하는 意志를 지닐 때 침략 행위는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이스가 오리엔트로 진군해 간 사실이나 마케토니아가 그리스를 쳐버려간 일이나 로마가 카르타고를 향해 도전장을 보낸 일등은 그 실례다.

日本이 壬辰亂을 일으킨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였다. 朝鮮文化的 發展을 거듭하고 있을 당시 日本의 政勢는 1467년에 일어난 應仁의 亂으로, 1336년 鎌倉(가마쿠라) 幕府의 뒤를 이어 약 240여년간 日本을 지배해 오던 室町(무로마치) 幕府가 붕괴되어가기 시작한 뒤 이로부터 100여년간의 戰國時代를 지내고 있었다. 이때는 수십여개의 大名領이 亂立되어 각자 權力爭鬭의 殺膠戰을 전개하고 있었던 문자 그대로의 無政府狀態의 混亂期였다.

이러한 混亂期에 大名들은 生存의 手段을 강구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는데 그것은 武力 그것뿐이었다. 이때에 世界의 情勢는 西歐에 한 이른바 地理上的 發見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廣海時代가 시작되어 그 여파로 日本에는 포르투갈인들의 손을 통한 鐵砲(鳥銃)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日本 大名들의 勢力을 統合시켜 나갈 수 있는 統制의 역할을 하였다. 즉 鐵砲를 보다 많이 소유한 大名이 곧 보다 많은 領地와 權力을 점유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轉換의 時期에 日本統一의 기회를 얻은 것이 織田信長이었으며 그의 部將으로 있던 豐臣秀吉이었다. 織田信長の 죽음으로 그의 大權을 이어 받은 豐臣秀吉은 나머지 그의 政敵을 소탕한 뒤 드디어 日本의 統一을 完成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個人的으로 볼때, 그는 그것으로 만족할 爲人은 아니었다. 그는 환상적인 野心家였다. 그러므로 그의 野心은 日本統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世界의 統一, 즉 中國을 비롯한 朝鮮과 西로는 臺灣, 南으로는 필리핀을 포괄하는 世界의 통일이었다.

또 당시 日本政局의 要求도 豐臣秀吉의 이같은 野心을 뒷받침해 두었다. 統一後 日本이 당면한 문제는 戰國時代의 종결로 나타난 몰락大名, 土豪, 일반무사 등의 불평불만과 그로 인한 戰亂의 再演에 대한 不安感이 있었다. 이러한 政局의 不安要素를 없애는 길은 日本本土에서 勢力을 상실한 자들에게 海外의 領土를 分割해 주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豐臣秀吉의 個人的 權座를 확고히 하는데도 海外遠征은 필요하였다.

3. 戰爭의 結果

이상과 같은 요구에서 日本은 對外戰爭을 일으키지 아니할 수 없게 되어, 日本은 朝鮮에 대하여 征明假道(明을 征服할 것이니 길을 빌리라)를 요구하였다. 이때의 朝鮮은 위에서 언급한 바 文化的 極盛과 기나긴 평화에 침묵되어 隣國의 實情에 無知한채, 李栗谷의 10萬義兵說을 묵살하고 軍備가 全無한 상태에서 鐵砲로 무장한 총 16만 병력의 侵略軍을 맞이해야 하였다. 그로 戰況은 보나마나하게 一方의인 것일 수밖에 없었다. 東萊에 상륙한 日本軍은 破竹之勢로 北上하여 서울을 함락시켜 결국 朝鮮王 宣祖는 義州로 피난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그러나 準備가 전혀 없었던 官軍은 이처럼 형편없이 참패를 거듭했으나 外敵이 侵略이 있을때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各地에서 義兵들이 일어나 日軍의 後方を 교란시켰으며 名將 李舜臣에 의한 海上 봉쇄는 日本의 軍糧과 武器 및 후속 부대의 수송을 불가능케 만들어 전쟁은 교착상태에 머무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日本에서도 勝算없는 전쟁에 대한 壓戰風潮가 일어나고 指揮層내의 내부반목이 격화되는 한편 침략의 주

모자인 豐臣秀吉의 죽음으로 결국 日本軍은 철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日本의 朝鮮侵略은 아무 得이 없는 전쟁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 戰亂의 결과는 朝鮮과 日本은 물론 東洋史에 있어 중대한 결과와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우선 朝鮮史는 이 戰亂으로 인하여, 종래의 發展의인 上昇경향이 下降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어 그 후에 일어난 丙子胡亂과 함께 朝鮮史의 前期와 後期를 가르는 分水嶺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때에 입은 人命과 財貨의 손실때문에 朝鮮의 朱子學의 兩班社會는 점차 붕괴되어가게 되었다. 이를, 경제·사회적 구체적으로 말하면 戰亂으로 인한 經濟體制의 붕괴 이л래면 土地荒廢化나 土地豪曠의 散失 등으로 王室은 財政의 궁핍을 겪게되고 兩班階層은 가난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에 王室이나 兩班階層은 이를 克服하기 위한 非正常的인 방법으로 賈官賈職을 하게되고 이의 病疾化는 盜竊을 量産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賈官을 통한 經濟의 利害까지 결부된 黨爭은 그 體質이 타락하여 이른바 勢道政治의 형태로 변질되고 이것의 騷擾와 賈官을 통해 任官한 地方官吏들의 경제적 수탈행위인 三政의 紊亂은 民心을 國家로부터 이탈케 하여 마침내는 亡國의 경지로까지 政局을 몰고 갔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時代의 問題點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새로운 思想 및 文化體制로 향한 운동, 이를테면 實學運動이 左野로부터 시작되어 近代의 西歐文化體系의 수용을 위한 先導의 役割을 담당케 되었다.

4. 戰爭의 結果와 意圖

이에 대하여 日本은 비록 侵略의 目的은 無爲로 끝나고 말았지만 부수적인 결과가 더 컸다. 즉 日本은 朝鮮侵略을 통하여 당시 朝鮮에서 最高段階에 이르러 있던 諸般文化를 받아들였다. 이를테면 印刷術을 배워서 그 이후 日本文化 발전의 礎石으로 삼았고 書冊과 學者들은 약탈하여 감으로써 朝鮮의 朱子學이 日本에 뿌리를 굳거로 하는 日本의 近代哲學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며 또 文化的으로는 朝鮮의 陶工들을 납치하여 그 技術을 강탈함으로써 現代 日本 陶藝

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政治적으로 日本은 이 戰爭의 결과로 弱화된 豐臣秀吉의 세력을 딛고 일어난 德川家康의 德川幕府가 형성되어 日本 近代史를 성공적으로 엮어가게 되었으며 여기서 얻은 安定과 國運의 上昇氣流을 탄 日本의 歷史는 西歐文化를 성공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계기를 얻어 오늘의 日本을 이루는 基盤을 만들었다.

한마디로 壬辰亂의 결과는 亂前에 朝鮮에서 漸開되어 있던 文化와 歷史의 主流가 韓半島에서 넘쳐 흘러 日本으로 가게되는 계기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한편, 大陸의 情勢에 있어서 이 亂은 中國史의 明清交替라는 중대한 轉換點이 되었다. 당시 建國한지 200여년이 된 明나라는 그 나름대로의 文化의 꽃을 피운바 있었으나 200년이라는 老衰의 年輪(韓國史에서 한 王朝의 老衰年輪이 400여년인데 비하여 中國史에서는 200년임)이 차서 衰退의 기운을 나타내고 있던 때에 이 亂에 派兵하였으므로, 이를 계기로 後金(淸)의 누루하치가 得勢하여 결국 明은 淸에 의하여 代替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壬辰亂은 비록 豐臣秀吉이라는 野心 많은 한 개인에 의하여 決心되고 推進된 일이었지만, 그것은 결코 개인의 意志만의 表現이 아니라 당시 朝鮮·日本 그리고 中國을 포함하는 東洋 3國의 歷史의 進運과 나아가서는 포루투갈을 대표로 하는 世界的 情勢에 따른 세계사의 한 리듬에 의하여 야기된 사건이며 또 결과에 있어서도 그와 동일한 意義를 지니는 사건이었다.

5. 結 論

지금까지 우리는 韓國史는 韓國史만으로 보아 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個人이 個人만으로 存在할 수 없고 個人的 個性이 個人만으로 형성될 수 없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社會的 諸關係에 의하여 存在하고 形成되는 것처럼한 民族의 歷史도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周邊國家 또는 民族들과의 相互關係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戰爭과 같은 國際的 事件에 있어서는 이 點이 더욱 강조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같은 이러한 입장을 壬辰亂이라는 특수 사건을 통해서 피력해 보고자 試圖된 것임을 첨언해 둔다. ※

서울개포국민학교

지도지법 정 찬 진

(한국국민교 태권도연맹 경기위원장)



교장 송찬규

「슬기롭고 튼튼하게 자라 자랑스러운 개포어린이」를 교훈으로 어릴 새싹들이 씩씩하고 슬기롭게 전인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개포국민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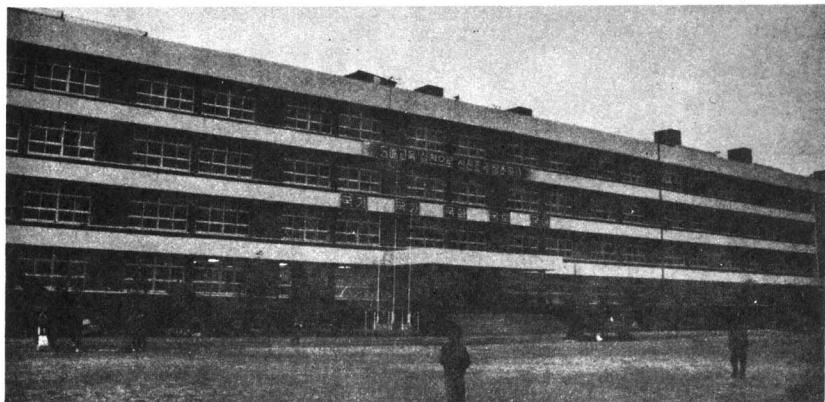
이 학교에 태권도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은 1983년 7월.

태권도부를 300여명 모집하여 방과후 시작한 지 4개월이 흐르는 동안 인내심이 부족한 어린이는 중도 탈락하고 이제 180여명의 어린이가 교정을 흔드는 기합소리와 같이 활기차게 태권도 수련을 하고 있다.

송찬규(宋贊圭) 교장은 교육위원회 체육장학사로 4년간 재직한 체육인사로 한때는 빙상협회 전무이사까지 경유한 스케이트 선수

송교장은 교육위원회 체육장학사 재직시 서울시 태권도협회와 인연이 닿아 태권도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엄운규 서울시협회장의 권유와 협조로 개포국민학교에 태권도부를 창설하게 되었다.

태권도 교육을 실시해 보니 매우 좋았다는 생각으로 매주 1회씩 교장선생님이 직접 태권도부



어린이들에게 정신훈화를 할 정도로 관심이 대단해졌다. 불과 4개월여 밖에 되지 않았으나 태권도 어린이는 정신수장이 되어서 매사에 침착하고 의연하며 예의바르고 모범생이라고 칭찬이 대단하시다. 또한 태권도부는 가입하기 전보다 학업성적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태권도부에서 탈락되므로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어린이가 되어서 부형들에게도 인기가 대단하다.

본교에서는 태권도부 정예화를 위하여 아무나 부원이 될 수 없다. 학급 담임선생이 추천을 하여서 태권도부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마침 본 기자가 학교에 도착한 날이 승급심사를 보는 날이었다. 아직 체육관을 마련하지 못해 10℃를 오르내리는 쌀쌀한 날씨에 찬 세멘트바닥에 맨발로 질서정연하게 앉아있고 심사에 응하

는 어린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동자는 생기가 넘치고 절도있는 행동은 학부형들의 눈시울을 적시고도 남음이 있었다. 개포 태권도부 어린이는 태권도복을 입고 학교 생활을 한다. 그 이유는 늘 태권도 어린이라는 사명의식을 갖게하기 위해서라도...

송교장선생님은 신설 개포국민학교에 부임하여 운동장 공사시 본인의 판공비 1년분을 운동장에 모래 자갈 등을 깔아서 비운뒤 2시간이면 운동장에서 어린이들이 무슨 운동이든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어린이들을 씩씩하게 키우는 교육열 높은 분이라고 김용련 체육주임은 말한다.

이 학교에는 정찬진 사범이 지도하고 있다. 정 사범은 대한태권도협회 경기분과위원이며, 한국국민학교연맹 기획이사로 활발히 활동하는 바랍직한 태권도 사범으로 교장선생님의 뜻처럼 86



년도에는 아세안게임에 국민학교 태권도 마스케임이 있다면 단연 개포어린이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리고 85년도에는 전국

어린이대회에서 개포/하고 놀라게 만들겠다고.... 작오가 대단하다. 개포국민학교 운동장에 태권도복의 어린이로 꽉 차는 날을 본다.

은로국민학교

지도사범 이 규 정

(국기원 심사분과 위원장)



김동휘 교장

개교 75년이 되는 장구한 역사를 지닌 은로국민학교. 이 학교의 역사와 버금가는 61세의 김동휘(金東輝) 교장은 교직생활 42년의 교육 외판인생 이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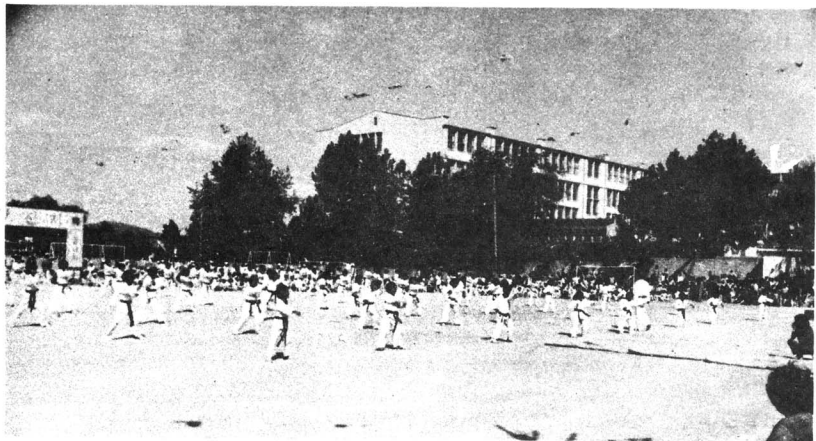
김교장은 「국력신장은 어린이로부터」라고 말씀하시며 가정교육은 어머니가 지키며 어머니의 역량이 국가 흥망성쇠의 열쇠가 있다며 가정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시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국민학교 교육으로 애국적인 확고한 습성을 국민학교 교육에서 심을 수 있으나 중·고등학교가 입시위주 교육으로 국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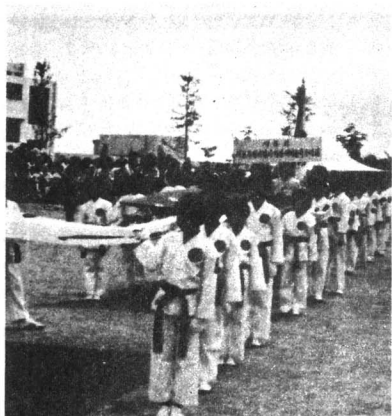
교의 전인교육이 연장되지 않음을 안타까워 하신다.

교훈을 “스스로 공부하고, 바르게, 튼튼하게”로 태권도는 우리학교의 교훈에 잘 맞는 운동이라고 말씀하신다. 태권도는 우리의 것으로 국위선양을 많이 하고 있으며 체력도 좋아짐은 물론 정신적인 면에는 더욱 집중되는 운동이 더라고 말씀하신다.

본교의 축구부와 비교해 보니까 태권도는 정신무장이 수련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며 지도사범의 열의와 정성에 비례하지 않느냐?고 반문하신다.

김교장은 81년 은로학교에 부임, 노후된 교사와 교정을 말끔히 신축하고 단장하는데 심혈을 쏟고 있다. 남은 교직생활의 마지막 정열을 은로





서울특별시 새마을 조기축구 연합회 체육대회
입장식 및 태권도 시범

국민학교에 바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학교 구석 구석, 나무 한그루, 돌 한개 모두 김교장의 손길이 안 닿은 것이 없답니다. 휴일에 낚시하여 잡은 잉어, 붕어를 정성스럽게 삶아서 연못과 어항에 넣는 등 내집, 내것으로 학교를 마음속에 두고 모든 생활을 학교와 연관지어 정열을 바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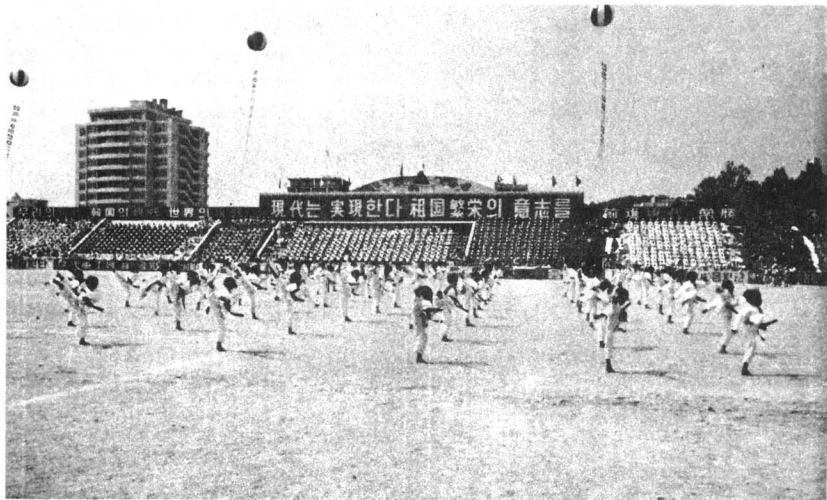
이 학교의 지도사범
이규정 사범은 태권도에 입문한지 32년, 이
사범은 국기원 교육분
과위원장으로 7년간
사범교육을 주도하였고
현재 국기원 심사분과
위원장으로 태권도 발
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규정 사범

이사범은 71년 비둘기사범단을 조직, 군부대 양노원, 벽지학교, 각종 체육대회 등 200여회의 시범으로 태권도 저변확대에 노력하였고, 동작구 흑석3동에 비둘기 체육관과 동작구 본동 비둘기 체육관에서 300여명의 수련생이 운동을 하고 있다. 또한 이사범은 은로국민학교에 100여명, 본동국민학교 100여명, 동양중학교 60명, 본동 새마을 유아원 30명 등 600여명이 이사범 지도하에 태권도 수련을 하고 있다.

민정당 제 11지구당 체육위원장, 청소년 선도위원, 체육진흥위원, 개발촉진위원, 방위협의회위원 등 지역사회운동의 직책도 다양한 이사범은 오늘날 태권도 보급발전을 위해 심혈을 쏟고 있다.



현대그림 체육대회 태권도시범

포레! 포레!

가는 곳마다 한국 열풍(II)

국가대표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멕시코·미국 연무시범 수행 취재기

박 성 열

(동아일보 기자)

동아일보 박 성 열 기자는 지난 8월 4일부터 25일까지 21일 동안 멕시코와 미국에 원정, 연무시범을 보였던 국가대표 어린이 태권도시범단을 수행, 고사리 손과 발로 활약을 펼친 어린이들의 활약을 낱말이 취재, 본지에 기고했다. 그의 글을 실는다

[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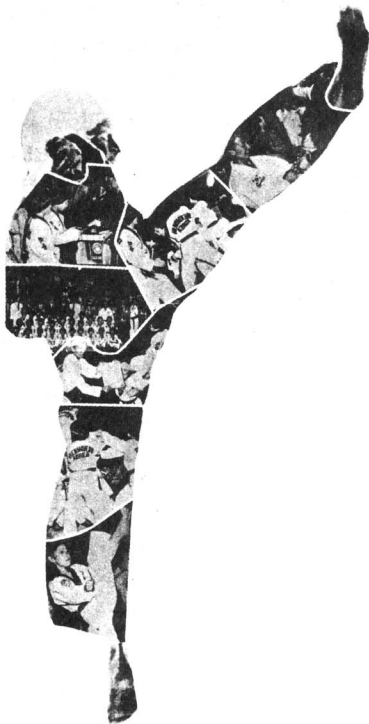
올림픽 경기장에서의 3차 시범

1천 700만의 인구가 북적대고 250만대의 차동차가 도로를 뒤덮고 있는 세계적인 파밀 도시 멕시코 시티의 시범은 14일 밤 지난 68년 멕시코 올림픽 당시 농구장으로 쓰였던 유명한 '팔라시오 드 로스 드 보르테스(Palacio de Los de Portes)' 체육관에서 열렸다.

2만명을 수용하는 이 체육관은 이날 밤 태권도 종주국 어린이들의 실력을 보기 위해 물려든 그곳 사람들로 채워졌다.

이날 체육관엔 한국 대사관 윤 태현(尹泰鉉) 공사를 비롯한 100여명의 교포들도 참석했다.

체육관 규모가 엄청나 시범단 어린이들은 처음에 어리둥절하는 눈치였다.





멕시코카나기로 과달라타라에 도착, 처음 멕시코 땅을 밟고 있는 시범단.

그러나 시범단 어린이들은 평소 때 같고 닭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우리 어린이들의 묘기가 나올 때마다 관중들은 감탄의 환호를 질렀다.

특히 멕시코 관중들은 어린이들의 겨루기와 격과 동작에 반했다. 겨루기는 이 영준과 송 봉준(6학년)군이 주로 선보였는데 실제 국내대회 때처럼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가 하면 절묘한 동작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관중들은 태권도의 위력을 새삼 느끼는듯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겨루기 때는 배심원과 심판을 시범단 어린이들끼리 맡아 진행, 더욱 눈길을 끌었고 경기 보급에 절대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날 시범은 멕시코 전역은 물론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등 중남미 일대와 미국 등에 2억의 시청자를 가지고 있는 멕시코 국영 방송(채널 2)의 녹화 방영을 통해 7개 나라에 널리 소개되었다.

윤 태현 공사는 이날 시범 성과에 대해 '경이적'이란 말을 연발한 뒤 '오랜기간 동안 겨역의 돈을 들여야 할 수 있는 외교 활동을 어린이들은 단 1시간만에 해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시범단은 시범이 끝나자마자 국영방송 스튜디오로 직행, 1천여명의 방청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범 중 격과 동작 3~4가지를 다시 현장 중계로 선보여 더욱 태권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멕시코 한국 대사관 불고기 파아티

해외 여행을 할 땐 그 나라 음식을 먹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인이 되어야 한다"는 금언처럼—.

그러나 멕시코의 고유 음식은 한국 사람들에게 잘 맞지 않았다. 옥수수 가루를 반죽하여 붙인 '토르티자'라는 떡은 한국의 빈대떡처럼 생겨 그런대로 먹을 수 있었지만 특수 나무열매 가루에 갖가지 양념을 집어넣어붙인 '닥호'는 처음 맛보는 사람에게 역겹게 느끼게 했다.

시범단이 12일 멕시코 시티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저녁초대를 받았을 때는 멕시코에 온 지 8일째 되던 날로 그동안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였다.

신 동원(申東元) 멕시코 주재 대사를 대리하여 윤 태현 공사가 어린이시범단의 멕시코 방문을 환영하는 환영사가 있는 다음 불고기 파아티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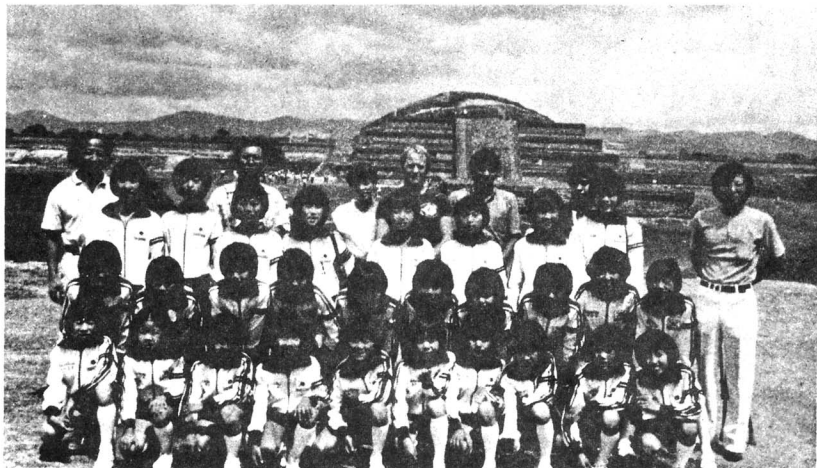
즉석 불고기이다 김치, 콩나물 무침, 된장국, 고추장, 미국 캘리포니아 쌀로 지은 밥 등등 보기만해도 침이 절로 넘어갔다. 이날 음식은 대사관 직원의 부인들이 마련한 것이었다. 시범단 어린이들은 게 눈 감추듯 음식을 거의 다 먹어 치웠다. 이날 밤 어린이들은 오랜만에 얼굴에 가득찬 미소를 지었고 호텔까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주고 받으며 돌아왔다.

미국서 가져온 쌀이나 양념을 써가며 어린이들을 위해 음식을 마련한 대사관의 부인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사를 드리는 바이다.

마야시대의 피라미드를 구경하다

멕시코는 기원전 8천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들의 문화를 자랑하고 있었다. 특히 마야문명은 중부 아메리카에서 일어났던 많은 고대 문화중의 하나였다.

시범단은 멕시코시티 협회 멜렌메스 회장의 배려로 멕시코 시티에서 동북쪽으로 52km나 떨어져 있는 역사가 숨쉬는 테오 티 후아칸에 갈수 있었다. 세계 10대 문화 유적지의 하나로 손꼽히는 이곳에는 3개의 피라미드가 우뚝 서 있었



멕시코의 피라미드 앞에서의 시범단.

다.

이집트에만 피라미드가 있는 줄 알았던 우리 시범단 어린이들은 놀란 표정들이었다. 그러나 이곳의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것과 생김새만 같을뿐 건설 시기와 기능은 전혀 달랐다.

이집트 피라미드가 기원전 3천년에서 2천 9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인바 반해 멕시코 피라미드는 기원후 200년에서 400년 사이에 마야 멕시코 인디언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집트 피라미드는 국왕과 왕족의 무덤이었지만 멕시코 피라미드는 사원을 세우기 위해 밑에 받치는 거대한 돌로 쌓아 올린 것이었다.

3개의 피라미드는 “비 피라미드” “해 피라미드” “달 피라미드”로 이 중 규모가 가장 작은 비 피라미드는 내부만 발굴,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었고, 이보다 훨씬 큰 두 피라미드는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 가장 큰 규모의 피라미드는 높이 65m에 한변의 길이가 225m인 해 피라미드였다.

피라미드 주위의 유적들도 시범단 어린이들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씨족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었

고, 당시 주거지는 모두 돌로 되어 있었다. 또 달 피라미드 주변의 주거지에는 3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방 여러개가 있어 이어진 방 사이에는 식당, 목욕탕, 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우리 시범단 어린이들은 피라미드 물레의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마야인들의 생활 문화가 상상 이상으로 과학적이었던 점에 크게 놀랐다.

멕시코 인디언들이 창조해낸 인류 최초의 걸작이라는 피라미드를 구경한 이날은 어린이들에게 산교육의 날로 뜻깊었다.

카라테를 무너뜨린 4차 시범

제 4차 시범이 열린 곳은 푸에블라(Puebla)—멕시코 시티에서 버스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이 도시는 인구 150만으로 멕시코에서 네번째로 큰 도시였다. 400여년 전에 해발 2천m에 세워진 이 도시는 공업 도시로 공장이 많았다.

멕시코 시티에서 푸에블라로 가는 고속도로는 절경으로 이름난 아나우악(Anahuac) 교원을 짝아 만든 도로로 시범단은 출발때부터 도착까지 차창 밖의 아름다운 자연 광경에 눈을 떼지 않

았다. 뵘에블라시에 접어들면서 우리 시범단 일행은 운 좋게도 해발 5천 452m의 「보코카테페틀」 산을 볼 수 있었다. 쌍둥이 봉우리가 나란히 서 있는데다 워낙 높아 1년 내내 정상은 눈으로 덮여 있는 보코산은 우리 나라의 백두산(2천 744m)한라산(1천 950m)이나 일본의 후지산(3천 776m)보다 훨씬 높은 산이었다.

이곳에서의 시범은 17일 오후 '뵘에블라 74' 체육관에서 성대히 열렸다. 이날 시범은 우리시범단에게 멕시코에서의 마지막 시범이었다.

시범에 앞서 간단한 입장식이 열렸다. 이어 두나라 국가가 연주된 뒤 뵘에블라 태권도 협회 곤잘로 가메스 리몬(Gonzalo Gamez Limon) 회장이 시범단 이 만표 단장을 비롯 황 춘성 대한태권도 협회 전무이사 등 참석한 주요 인사들을 소개했다.

이어 뵘에블라 여학생 태권도 수련생 20여명이 경쾌한 음악에 맞춰 '발레 태권도'를 선보였고 뵘에블라 지역 대표급 선수들의 겨루기 시범이 3차례 펼쳐졌다.

다음에 하얀 도복을 입은 우리 시범단이 체육관에 들어섰다. 시범단 어린이들은 오와 열을 잘 맞추기로 유명한 이날따라 재빨리 앞과 옆을 1자로 맞추었고 동작 하나 하나를 취할 때는 절도있게 펼쳐냈다. 관중들은 웅성대기 시작했고 자기들 눈을 의심하듯 어린이들의 동작에 반해가고 있었다.

이날 체육관엔 유달리 일본의 무술인 카라테를 배우는 수련생이 많이 입장해 있었는데 이들에게 태권도와 카라테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시범단 어린이들은 기대로 잘 해냈다. 시범단이 기본 동작과 고려 품세, 1보 대련, 그리고 여러가지의 격파 시범 등 실재없이 펼쳐내자 관중들은 휘파람을 불어대며 “요레! 요레! 넘버원이라며 어린이들의 실력을 격찬했다. 박수와 환호는 시범단 어린이들이 체육관을 나와 버스를 탈 때까지 계속되었고, 사인 공세는 버스 출발을 늦게 할 정도로 심했다.

마침내 우리 시범단 어린이들은 음식과 기호가 다른 어려운 여건을 헤쳐 나가 유종의 미를 거두었던 것이다.

이날 밤 저녁 식사를 하면서 곤잘로 회장은

기자에게 “시범 성과가 대성공적”이라며 “한국 어린이들의 시범을 구경한 카라테 수련생들이 체육관에서 바로 태권도로 전향하겠다는 체육관 입관서를 내놓으라는 주문이 세도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디스코 춤으로 여독을 푼다

17일밤은 멕시코에서의 마지막밤이었다. 뵘에블라 곤잘로 회장은 이날밤 시내 라스트 호텔식당에서 시범단 환송회를 열어 주었다. 약 100여명의 초청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밤 환송회는 우리 시범단 어린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파아티였다.

푸짐하면서 고급스럽던 음식이 나오기 전에 5인조 밴드에 맞춰 멕시코 고유의 상을 입은 가수가 노래를 부르며 분위기를 한층 흥겹게 북돋았다. 음식이 나오자 시범단 어린이들은 시범행사를 끝낸 뒤 흥가분한 마음에서인지 나오기가 무섭게 그릇을 비워 나갔다. 모처럼 어린이들도



멕시코 초청의 산파역을 맡았던 이석원사범(오른쪽)과 필자.

긴장에서 해방된 날이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자 디스코춤을 추는 시간이 시작되었다. 처음엔 몇몇 어른들이 무대에 나가 춤을 추었지만 나중엔 현지 어른들이 우리 시범단 어린이들을 한사람 한사람씩 무대로 데리고 나갔으며 결국엔 무대가 아이들 판이 되고 말았다. 어린이들은 시간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춤을 추었다. 주장 오 민석을 비롯 이 영준, 강 민석, 김 민상의 디스코 실력이 돋보였다.

한창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어린이들은 이 규형 사범을 강제로 무대까지 올라가게 한 뒤, 파아티에 참석했던 예쁜 아가씨와 같이 춤을 추게 하는 애교스러운 행동도 볼 수 있었다. 이날 디스코 파아티는 상당히 늦게 막을 내렸다. 끝난 시간을 여기에 밝힐 수 없는 것은 너무 늦게 끝났기 때문이다. 모처럼 어린이들이 웃고 떠들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한 마음이 들었다.

올림픽 축제 분위기 속에 열린 L.A시범

미국 로스앤젤레스시는 지금 바빠다. 물론 내년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곳에서 두번째로 열리는 하계 올림픽때문이다. 1932년 10회대회가 이곳에서 열린 이래로 52년만에 다시 L.A에서 열리게 되는 올림픽에는 125개 나라에서 1만 1천여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어서 역사상 최



시범단 미국 초청의 산파역을 해낸 도산체육관 김용길관장(가운데)

대의 인류 제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범단이 L.A공항에 내릴 때부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L.A 올림픽개최를 축하하는 현수막이었다. 그리고 L.A방문을 축하한다'는 플래카야드였다.

시범단이 L.A에 도착한 것은 18일밤이었다. 시범단 일행은 곧장 김 용길 관장(로스앤젤레스 군교)택으로 향했고 일행중 임원 3명과 어린이 14명등 17명은 김 관장택에서 나머지 어린이 14명은 미국인 가정에서 각각 여장을 풀었다. 미



로스앤젤레스 페어팩스 고교에서의 시범. 휘날레를 장식한 미규형 사범의 시범(좌)과 환호하는 관중들(우)

어린이의 천국 디즈니랜드에 가다

국인 가정은 김 관장택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었다. 미국인 가정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에 나선 사람은 태권도수련생인 노쳐녀 마리아씨였다.

어린이들은 짐을 풀면서 마치 집으로 돌아간 듯 착각했다. 우선 말이 통하고 매일 한국식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시범단의 미국초청의 장본인이었던 김 관장은 미국땅에서도 1급 지도자로 이름나 있다. 그의 체육관 이름이 '도산' 안 창호 선생의 호를 따서 붙일 정도로 그는 항일 독립 투쟁한 안 선생을 존경하는 홍사단 사람이다. 현재 재미 체육회 부회장이기도 한 그는 지난해 고국을 방문중 미동국교에 들려 어린이들에게 미국 초청을 약속한 뒤 옛날 안 창호 선생이 체포의 위협속에서도 어린이들과의 약속을 지킨 것처럼 초청장을 보내주었던 것이다.

L.A에서의 시범은 20일(토) 오후 7시 30분 페어팩스 고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시범은 재미 체육회 김 재호 회장을 비롯 L.A주변에 있는 50여 태권도 사범 그리고 관중 2천 5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관중의 대부분은 미국인 태권도 수련생이었고 L.A지역에 살고 있는 7~80여 명의 우리 교포들도 눈에 띄었다.

시범단은 많은 교포들의 성원에 보답하기라도 하듯 완벽한 시범을 펼쳐냈다. 미국 관중들의 반응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그곳에 나온 우리 교포들은 덩달아 신이 났었다. 시범이 끝나자 교포들은 스탠드에서 내려와 우리 시범단을 얼싸안고 '정말 잘 해주었다'며 머리를 쓰다듬거나 부둥켜 안았다.

L.A에 이민와 교육계에서 일하고 있는 강 석재 씨는 이날 어린이들의 시범현장을 보고 "정말 마음 뿌듯하다"며 "이역 만리에서 고국을 그리며 살고 있는 교포들에게 시범단 어린이들이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고 어린이들을 칭찬했다.

또 버스로 5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에 있는 샌디에이고에서 우리 어린이들의 시범을 보기 위해 50여명의 미국 어린이 수련생들이 왔고 이들은 시범이 끝나고 시범단에게 준비했던 선물을 주기도 했다.

시범단은 L.A에 6일동안 있으면서 세계의 명소로 알려진 디즈니랜드와 돌고래쇼로 유명한 샌디에이고의 시이 워월드(Sea World)그리고 L.A중심가에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관광지를 구경했다.

관장안내는 도산 체육관의 김 용길 관장과 그의 제자 마리아씨가 도맡았다. 시범단은 봉고같은 차 2대에 나눠타고 L.A에 가면 꼭 구경해야 할 명소 세곳을 모두 구경했던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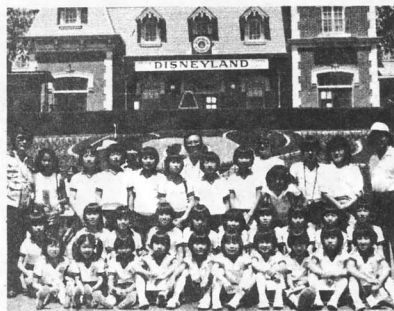
시범단 어린이들은 디즈니랜드에서 꿈의 나래를 마음껏 펼쳤다. 어린이들은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꼬박 12시간동안 디즈니랜드에서 하루를 즐겼다.

'동화의 나라, 모험의 나라, 동물의 나라, 환상의 나라, 개척의 나라' 이것들이 어린이들을 사로잡는 코오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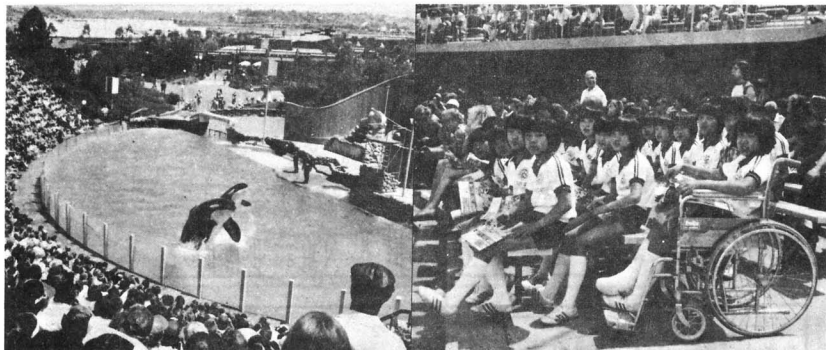
그밖에도 어린이들은 넓은 미국을 앉아서 입체감을 느끼며 관광할 수 있는 원형 극장과 민주주의의 상징 에이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연설하던 모습이 당시의 모습 그대로 재현되기도 하는 곳도 구경했다.

또 밤하늘을 수놓았던 폭죽 놀이와 수만개의 전등으로 꾸민 가장 행렬 그리고 어린이들의 정다운 친구인 미키마우스 행렬 등 모두가 어린이들에게 동심의 꿈을 활짝 피게하기에 충분했다.

어린이들의 시이 워월드 관광 때는 샌디에이



어린이들의 천국 디즈니랜드를 찾은 시범단.



샌디에이고 시이 워열의 돌고래 쇼우 (좌) 와 관중석에 앉아 있는 시범단 (우)

교에서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제임스 윌슨 씨 (James A. Wilson 공인 5단 · 변호사)가 따라다니며 수교해 주었다.

로스앤젤레스에 머무는 동안 남가주 한국 학원원 병욱 재단 이사장과 롱 비치에 살고 있는 교포 이 형진씨(5부자 중국식당 경영 · 동서 최권성 사범) 등이 시범단을 위해 저녁을 사면서 격려해주시기도 했다.

멕시코, 미국 주요 신문들 보도 내용

우리 시범단 어린이들의 활동은 그때 그때 현지 신문과 방송 등 매스컴을 통해 널리 알려졌었다. 다음은 시범단 어린이들의 시범 행사를 보도한 멕시코 주요 일간지들의 기사 제목을 발췌하여 실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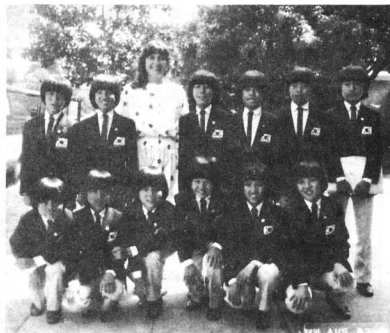
◀디아리오 드 궤테파로=‘꼬레의 신동들이 궤테파로 시민들을 놀라게 하다’ ‘어린이들의 용감한 시범에 박수가 모자랐다’

◀누에바 에라 드 뵤에블라=‘무서운 꼬레의 아이들이 일본의 카라테를 무너뜨리다’

◀엘솔드 뵤에블라=‘태권도 중추국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다’

◀엘 헤랄도 파나후아토=‘신기를 지닌 꼬레 꼬마들이 파나후아토 방문하다’

◀오조 팔로마스(하리스코 파달라하라)=‘꼬레 어린이들의 위력에 멕시코가 놀랐다’고 평했다.



로스앤젤레스 민박 가정의 마리아씨와 그녀 집에 묵었던 시범단 어린이들.

◇국가 대표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명단

◀단장=이 만표(전 미동국교 교장) ▶지도사범=이 규형(국가 대표 시범단 지도 사범) ▶단원=오 민석(주장), 최 승민, 오 영화, 이 영준, 송 봉준, 조 남욱, 박 정문, 임 범철, 양 학수, 채 민석, 박 상욱, 박 상현, 성 정열, 김 영돈(이상 6학년) 전 성수, 윤 달영, 임 영순, 김성일, 정 학현, 유 재학(이상 5학년), 김 민상, 유 명수, 전 성호, 조 진희(이상 4학년), 조 남호(3학년)

恩光女子 中·高等學校



鄭海柱감독



설립교장 이강묵



교장 이강희



교감 박희원



교치 차용훈

둥-따다 둥-딱딱.....

북과 장구 가락에 맞추어 태권도복을 입고 얼굴의 민속고유의 탈을 쓴 여고생들이 넓은 운동장에서 춤을 춘다.

부드러우면서도 해학이 넘치는 탈춤인가하고 바라보다보면 어느덧 동작들이 가락에 맞추어 기민하고 날카로운 태권도 동작으로 변한다. 태권 탈춤은 우리의 전통적인 탈춤과 호국의 열이 담긴 태권도를 결합시켜, 강하고 민첩한 태권도를 여성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태권도의 힘찬 동작을 경쾌한 리듬에 조화시켜 여성 체육적 가치와 무용으로서의 모든 가치를 갖고 있는 순수한 우리의 것인 호국무용(護國舞)을 창시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작분야의 관심은 대단하여 MBC-TV, KBS-TV, 초, 중, 고, 대학에 호국무용 소개를 하였으며 각종 사회단체 행사의 시범등, 한가한 날이 없다고 한다.

82년 9월 16일 서울시민 체육대회에서는 1천 3백명이 마스-게임(Mass-game)을 발표하여 호국무용은 일제시대에 사용하였던 이름이 있어서 “88 무용”으로 정식명명하였다.

Mass-game이 끝난후의 반응은 올림픽 식전 행사로서의 훌륭한 작품이라는評을 받았으며 작 매스컴의 반응은 대단하였다.

은광여고는 1946년 10월 15일 여학생 1명으로 출발해서 현재 6,500명의 학생을 교육시키고 있는 여성교육기관으로, 국가관 확립과 전인적인 인간육성을 교육이념으로 삼고 학력면으로도 내일의 훌륭한 사회이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의 경주로 83년 서울대 35명, 고려대 12명, 연세대 27명, 이화여대 90명등으로 대학의 진학율도 높아 신홍명문여고로 발돋움을 하고 있다. 본교에 태권도가 뿌리를 내린것은 1976년 설립교장 李康穆선생 재직시 교감 朴熙源 (태권도 7단) 선생의 건의로 태권도부를 출범시켰다. “88 무용” 외에도 프레 월드 게임 세계 챔피언, 연대총장기 우승, 서울시 교육감기 우승, 대만태권도 선수과전 친선대회등 각종대회에 출전하여 획득한 메달수만도 300여개 나된다. 처음엔 일부 학부모와 교사들이 여학교에서 태권도가 뛰냐는 등 반대에 있었으나 이제는 전교사는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전교생이 태

권도를 하고 있다. 태권도부 우수자에게는 전원 장학금을 지급하고 우수하지 않더라도 고3이 되면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월요 애국조희시에는 전교 직원과 학생들이 88 무용잔치를 벌리고 있으며 체육시간과 특활시간을 활용하여 경쾌한 리듬에 건강한 몸과 유연한 몸매를 가꾸며 또한 하이틴들의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정신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박희원교감은 말씀하신다.

본교에서는 88 무용을 계속 창작하기 위하여 88 무용연구회를 발족시켰으며, 현재까지 “88 무용” 창작수는 1번 ~ 10번으로 되어 있으며 1번 ~ 8번까지는 현대 무용으로서 에어로빅, 디스코, 중에서 우리체질에 맞도록 창작한 것이고 9번, 10번은 민속무용으로서 흥겨운 우리가락에 맞춘, 탈춤과 고전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8 무용” Mass-game 은 1번 ~ 3번까지 창작되어 있다. 몇가지를 요약해서 소개를 하면, 1번 獸形(태극기형태): 태극기의 품안에서 화랑정신을 이어 받은 젊은이들의 힘찬 전진의 정신을 나타낸 形態,

2번 十字形(十자형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상의 정립을 나타낸 形態,

3번 대형(손날속소형태): 불굴의 의지를 지닌 젊은이의 상징을 나타내는 形態,

4번 대형(바둑판 형태): 우리 민족의 고유인 민족정신인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 받은 협동과 단결로 민족중흥의 새역사창조 정신을 나타낸 形態,

5번 대형(思覺想 형태): 생각하고 깨닫고, 꿈을 간직한 젊은이가 되자는 정신을 나타낸 形態

6번 대형(88 오륜 형태): 올림픽을 향한 힘찬 전진의 정신을 나타내는 形態, 등으로 문화창조의 신념으로 창작에 여념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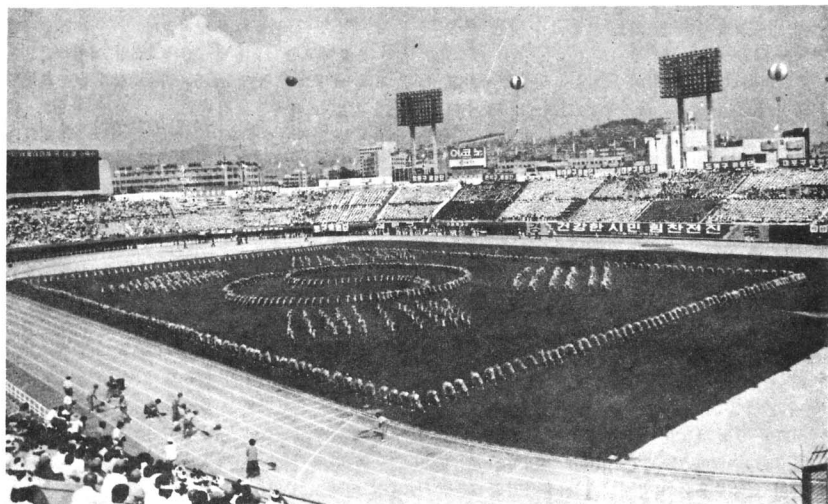
“88태권도무용”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지는 가치들은,

첫째, 항상 밝고 맑은 마음을 간직할 수 있어 진취적인 기상과 창의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

둘째, 知, 德, 體를 겸비하여 人間完成의 길을 성실히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점.

세째, 생활신조가 뚜렷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통해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

네째, 타고난 소질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싱싱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점.



1,200 여명이 실시하는 태극대형의 대권 무용



1,200 여명이 참가한 서울시민체전 태권무용 88 오륜 마스게임

다섯째, 나를 아끼고 父母 兄弟, 더 나아가서는 스승께 감사하는 마음과 정을 지니며, 애국, 애족하는 사람이 된다는 점.

여섯째, 신체적인 모든 기능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감독 鄭海柱선생과 코치 車龍勲사범의 지도하에 열심히 수련하는 태권도주장 김명숙 (3학년 4반)양은 수업 을 마친후 운동을 함으로 학업에 지장이 없고 태권도를 수련한후 내성적인 성격이 활달하고 명랑해 졌다고 말하며, 고등학교2학년 주장 이충희 (2학년 13반)양은 학업은 학생의 본업이고, 그외의 복잡한 사회여건에 현혹되지 않고 태권도무도에 전념함에 보람이 있다고 말하며 대학에 가서도 꾸준히 태권도를 하겠다고 하나.

김미혜 (2학년 13반) 양은 오펜따라서 시작했으며, 운동시작후 생활이 규칙적으로 되었고, 정신이 맑아져 학업에도 도움이 된다며,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하나.

송선희 (2학년 13반) 양은 태권도 여성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서라도 좀 과격한 시합겨루기 보다는 여성의 체질에 맞게 품세와 태권동작을 음악에 맞추어 개발함이 우리 태권도 여성들이 앞으로 해야 될일이 아니겠냐고 포부를 밝힌다.

車龍勲코치는 학교에서 교직원과 같은 대우를 해 주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 주어 아무 불편함이 없다며 하나. 학교 교육이념에 맞추어 창조적 전인적인 인간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은 믿음직 스러웠다.

☆주요시범활동내용

은광여고 (시범단 활동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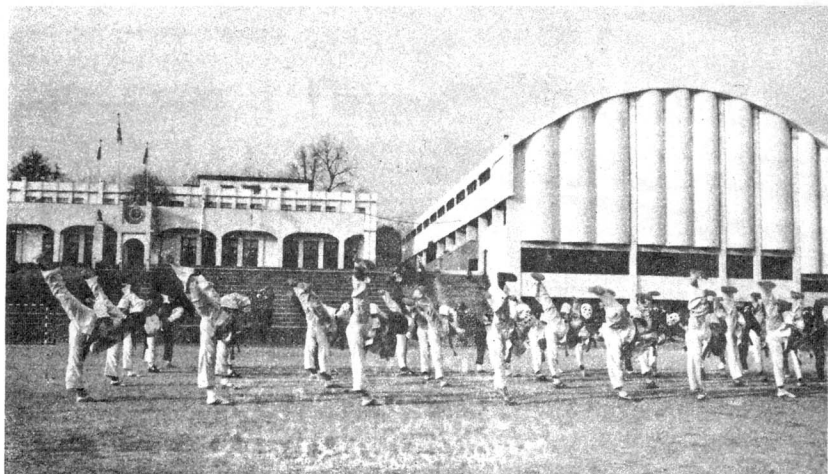
- o 1981.11. 7 = M. B. C-TV 창사 20주년 특집 연무시범.
- o 1982. 3.17 = K. B. S-TV 뉴스파노라마 태권무 공개발표 연무시범.
- o 1982. 6.25 =태권무 종합시범연구발표 <국기원>



김명숙 (3년주장)



이충희 (2년주장)



o 1982. 9.16 = 82 서울시민체전 태권무 마스
게임 발표(서울운동장 1,200
명)

o 1983. 3. 5 = 일본 N. H. K-TV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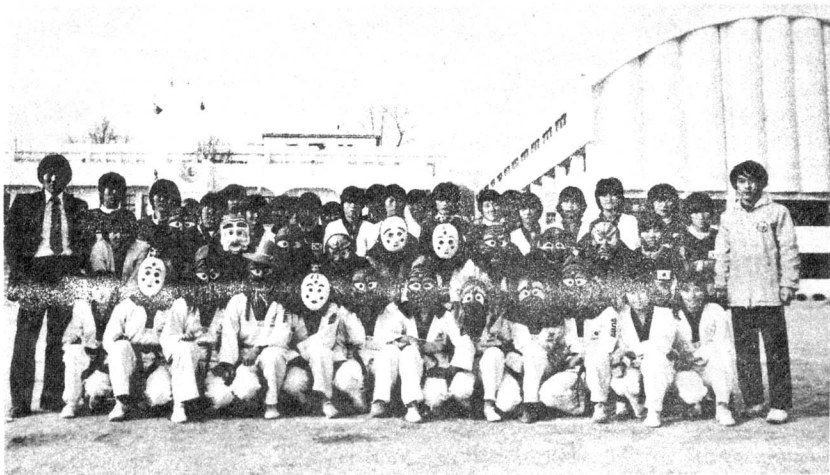
o 1983. 2. 7 = K. B. S-TV 스포츠 뉴스
태권탈춤 발표.

o 1983. 5.28 = 서울시 교육위원회 청소년극장
개관 축하 연무시범.

o 1983. 9.25 = 아시아 핸드볼 선수권대회 개
막 축하시범.

o 1983.11.12 = 서울시 교육위원회지정 83 태
권무 마스게임 공개연구발표시
범 <1,200 명>

이밖에 각종 시범 30 회 및 M. B. C-TV.
KBS-TV 20 여회 출연 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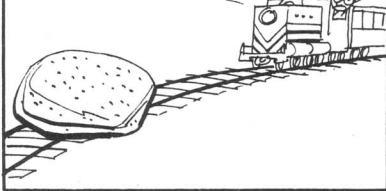
바위



태권도로서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녀석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바위란다.



우리는 옛날부터 있던
바위를 소중하게 지킬 줄
아는 동시에...



그것을 잘 잘고 다듬어서...



훌륭한 조각품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같은 바위요, 같은 돌이지만
사용하기에 따라 그 값어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런 뜻에서
산 꼭대기까지
달리기!

그런 뜻은
무슨 그런 뜻.

말이 많다!

하나 돌!

하나 돌!



제 6 회 世界大會 參加座談會



단장 : 김정주



감독 : 이규석



사무국장 : 김용휘



코치 : 이승국



트레이너 : 진중의



한규인 : (사회 : 홍보실장)

* 좌 답 회 *

일시 : 1983. 11. 7. 11:30

장소 : 대한태권도협회

참석자(사회 : 홍보실장)

단장 : 김정주

감독 : 이규석

코치 : 이승국

트레이너 : 진중의

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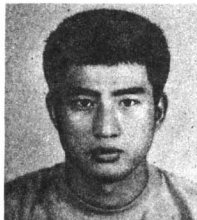
장승화 이동준 이재봉 정국현

한홍식 고정호 왕광연 한재구

최광근 문종국

참 여 : 김용휘 사무국장





장승화 (해비급)

키 : 192 cm

특기 : 앞돌려차기와 돌려찍기인데 앞으로는 회측(뒤후리기)등을 다양하게 구사하겠다고...



이동준 (미들급)

키 : 180 cm

특기 : 뒤후리기 (회측)인데 금번대회에서는 앞차기와 들어찍기로 득점을 하였다고... 상대방이 공격할때만 썼던 뒤후리기를 앞으로는 공격적인 무기로 개발하겠다는데...

사 회 : 세계대회에 출전하여 6연패로서 중
주국의 위업을 유감없이 발휘한 선수 및 임원
여러분께 전 태권도인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
을 드리며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좌담회
를 갖게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실전의 작전 참모인 코치, 이승국 교수는
국내에서 생각하고 있던 국제 선수들과 실전에
서의 느낀점을 비교하여 말씀해 주시지요.

코 치 (이승국) : 한국에서 10일간 합숙훈련을
하면서 에쿠아도에서 거행한 제 5회 세계대회의
경기 필름을 가지고 외국 선수들의 기량을 파
악하고 전략을 세웠는데, 직접 가서 외국 선수들
의 경기를 보니 우리 선수들이 제 5회 세계대회
때 선수들이 사용한 기술을 습득하여 그대로 기
술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가 앞
으로 많은 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하지 않
으면 안되겠다고 느꼈습니다.

태권도가 우리 체형에 맞게 개발되고 시작되
었다지만, 이제 태권도는 우리 것이 아니고 세
계인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 선수들의 기량
이 놀랄도록 발전되어 「앞으로는 지금처럼 가볍
게 상대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됐구
나」고 생각되어서 국내 대회에서의 코치 입장처
럼 긴장했습니다. 독일, 태리, 미국, 터키 등
의 몇몇 선수는 우리 선수의 기술 기량이 똑같
은 것을 보았을 때 항상 안심하게 자만심을 가
졌다가는 큰일나겠구나고 느꼈습니다.

본인은 일선 태권도 지도자로서 선수들 육성
하는데 보다 노력하고 연구개발해서 선수 개개
인들의 자기의 특기와 자신있는 기술을 계속 개
발하도록 지도하여야 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 회 : 단장님 교생이 많으셨읍니다.
아직 감기가 낫지를 않으셨군요.

6연패를 하신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단 장 (김점주) : 매우 기쁩니다. (만족한 미
소를 지으며,

사 회 : 태권도 사상 유래없이 녹화 방영, 작
신문에 기사가 많이 실리는 등, 홍보가 잘되었읍
다. 여러가지 면에서 금번 선수단은 영광스러
웠다고 생각합니다.

단 장 : 앞으로 더 활발히 홍보가 되어야 한
다고 봅니다. 금번을 시초로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태권도 인구와 태권도가 세계속에서 대한민국
국위선양을 하는 것에 몇분의 1이라도 사회
에서 인정도록 하는 것도 매스컴의 일이며 금번
기회를 통해 협회와 국기원 등에서도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힘을 기울이리라고 봅니다.

사 회 : 덴마크에 머무르는 동안의 특별한 애
로 사항이라면

단 장 : 애로 사항이라면, 선수들의 음식 관
계가 어려웠고, 시차 차이로 적응이 안되어 본
인은 물론 선수 전부가 교생이었읍니다.

사 회 : 단장님께서 선수와 외국 선수들을 보
고 객관적으로 느끼신 점은?

단 장 : 우리 선수들의 기술은 다소 낡다고 보
더라도 기본적인 기초 체력이 부족함을 느꼈고
앞으로 피나는 노력이 없이는 세계대회에서 금
번처럼 좋은 성적을 올리는 어렵겠다고 느꼈
읍니다.

사 회 : 감독께서는 감독이 되신 후 선수들에
게는 이윤배만 같은 애기가 됩니까만, 아시안
게임, 올림픽등에서 태권도는 한국을 위한 운동
이라고 반기를 드는 경우를 염려하면서, 메달을
고루 분배하는 생각을 협회 임원이나 감독에서



身長: 173 cm

특기 : 국내에서는 받아치기 들어찍기 등 점프를 아니하는 평범한 게임을 하는데 이번대회에서는 점프 돌려차기, 점프 들어차기 등 주로 떠서차는 발차기 잘먹혔다고...



身長: 163 cm

특기 : 받아치기 라면 자
신이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두서
없이 막연히 금메
달을 따야 한다는
욕심으로 했더니...

사 회 : 해비급 선수인 장선수가 처음에 부상을 당하여 고견을 하였는데, 장선수의 입장을 한번 들어 봅시다.

문답요 : 금메 달을 따야겠다는 일념으로 일해



정국현 (라이트미들)

키 : 172 cm

특기 : 빗차기 (앞돌려차기)인데 금번 대회는 턴 (turn) 앞돌려차와 들어찍기등이 득점과 연결이 되었다고...



한홍식 (벨터급)

키 : 168 cm

특기 : 이렇다할 특기는 없고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 되는 편인데, 금번 대회는 허리를 다쳐서 완전한 시합을 못했는데 상대 선수가 약했는지 우승을 하였다 고.....

입니다.

사 회 : 국내 시합을 득점 위주로 경기를 하는데 외국 선수들은 어땠는지 이재봉 선수의 느낌은?

이재봉 : 제가 처음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선배 대표 선수들에게 많이 물어봤더니 기술 공격을 많이 하라고 충고를 하여서 게임을 해보니 어려움이 없었고 시범 때 익힌 점프 발차기를 사용하니 상대가 당황하고 잘먹혀 연결이 잘되었으나 3회전쯤 체력의 열세로 피하며 시간을 끄는 등 체력의 열세를 가장 절실히 느꼈습니다.

사 회 : 이번 대회의 "스타"라면 메스컴에 대서 특별한 한홍식 선수가 될텐데... 금메달을 따는데 화이팅 넘치게 잘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지?

한홍식 : 허리도 통증이 있었는데 시합에서는 통증을 스스로 느끼지는 못했고, 완전하게 시합을 뛰지는 못했으나 그런대로 시합이 잘돌렸고... 또 우리 선수중에 처음 결승을 치루게 되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 회 : 첫 금메달이 우리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했을 테니까 수훈 "감"이라고 해도 되겠지요. (선수일동 : 웃음을 먹으며 긍정적인 모습들)

사 회 : 정국현 선수도 2번째 대회인데 느낌은?

정국현 : 제 5회 세계대회는 남미쪽에서의 시합을 하여 출전국도 적고 금번대회는 선수의 폭도 좁은 모양인지 모르나 금번대회는 기량면이나 선수들의 정신자세와 무장이 잘되어 있었읍니다.

저는 5회째 된 경험으로 자신감을 갖고 임했기 때문에 마음은 안정되었으나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의 시합을 보고 좁은 당황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막상 게임에 임해보니 그런대로 잘되었던 같습니다.

사 회 : 두번째 대표선수로 참가를 했었으니, 국제 대회에 나갈 대표 선수는 이러한 정도의 실력을 갖추어야 인기도 끌고 태권도의 위력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후배들을 위하여 생각나는 점들을 얘기해 보시지요.

정국현 : 태권도의 기본과 발차기가 잘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계태권도 추세가 한국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서구 선수들에게 이기려면 체력의 열세를 극기하는 기초체력 육성을 하여서 3라운드를 피로감없이 소화하는 체력을 길러야 되겠다고 봅니다.

사 회 : 고정호 선수는 우리 선수들중에 키가 제일 적은데 외국 선수들과 게임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고정호 : 금번 시합은 신장이 거의가 비슷했고 준결에서의 상대는 좀 컸읍니다.

사 회 : 동양인은 상체가 길고 하체가 짧아서 70-80%가 발을 사용하는 태권도 시합에서 불리함을 어떻게 극복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고정호 : 국내대회에서는 주먹의 득점을 잘주지를 않아서 주먹 사용이 적으나 세계대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주먹 공격으로 키적은 불리함을 극복했다고 할까요. 경기가 끝나고 독일코치 (한국인사범)가 한국 선수는 주먹을 잘쓰질 않아서 주먹공격으로 기선을 잡은 후 공격을 하려다가 역습을 당했다고 애길하시더군요. 국내에서는 상대 선수를 잘 아니까 3분 3회전을 뛰어도 피곤함을 모르겠는데 국



고정호 (골랑이급)

키 : 160 cm

특기 : 주먹으로 득점부
위 강타후 빗차기
가 금번대회에서
는 잘 연결된것이지
주요했다고...



한재규 (라이트급)

키 : 170 cm

특기 : 오른발, 원발 교
체 연결 앞차기인
데, 세계 대회에
서는 체력이 우세
해서... 우리가 이
상태로 머물러서
는 아니되겠다는생
각이 우선 들더
군요

세계대회는 3회전 들어서서는 힘들어서게임을 못
뛰겠었습니다. 체력운동 다음으로 순발력이나 스
피드 운동을 많이하여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 : 한재규 선수가 세계대회에 임하면서
느낀 점은?

한재규 : 다른 선수도 같습니다만 아시아 지역
은 아직 우리와 거리가 멀지만 세계대회는 우리
가 이대로 머물러서다 안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사 회 : 최광근 선수에게는 금메달을 따지 못
해 좀은 아쉽지만 동메달에 머문 이유라
면, 스스로 게임을 돌아보며 얘기를 해보시지요?

최광근 : 국제대회에 처음이고 국내 경기를 보
아도 대표 선수를 보다는 경기 경험이 적어서 부
담감을 갖고 당황했고 현재 체급에서 국내에서
는 신장이 적은 편인데 외국 선수들은 15-20
센치 정도로 커서 위축도 되었고 외국 선수들은
하지장이 길어서 들어찍기 같은 공격도 거리조
정, 방어 등이 게임에 임하기 어려웠고, 게임이
잘풀리지 않고 체력적인 면에서 부족함을 느꼈
습니다.

사 회 : 최광근 선수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키
큰 외국 선수들에게 이기려면 스스로 어떤 기술
을 개발하고 익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최광근 : 한국 선수와 실력이 대등하다고 보기
때문에 꼬집어 말하기는 어려우나 스스로 독특
한 기술을 연마하여 대처하여야 되겠다고 생각
합니다.

사 회 : 문종국 선수는 아시아인 게임에 금메달
리스트인데 세계대회에서는 유일하게 등위 선수
가 되었는데 분발하고 자성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해보시지요?

문종국 : 체중 조절에서 실패를 하여서 기본체
중에서 5키로 그람 미달되어 체력에 열세를 겪

복 못했고- 또 제 체급의 선수들이 보통 10-
20 정도 키가 컸으므로 최선을 다했으나결과가
좋지 않았습니.

사 회 : 가장 비중이 큰 질문일듯 싶은 얘기
입니다. 대회 참석후 금번대회는 어려웠지만앞
으로는 이렇게 하여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점을
트레이너가 말씀해 주시지요?

트레이너(진중의) : 첫째, 동양권의 선수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선수들에 비해 선천적으로 신
체조건이 약하게 되었으므로 후천적으로 체력을
기름이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중주
국의 면모를 충분히 발휘한다고 볼 수있으나이
영광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열세에 있는 체력의
극복과 기술개발로써 선수지도자, 후원자가
3위 1체가 되어서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고 봅니다.

둘째, 국내경기에서 준비한 사항으로는 국내
에서는 주먹의 득점을 잘 인정하지 않는데 외
국의 선수들은 주먹과 발의 "뽀뽀비이션" 이 잘 연
결되어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수들은 주먹과 발의 리듬이 이
루어지지 않아 더욱 체력의 소모가 큰 것으로보
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먹의 득점을 인정하여
강화시키기 바랍직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장승환선수 : 들어찍기와 앞돌려차기인데 앞으
로는 회측 등을 다양하게 구사하겠다고...

이동준선수 : 위후리기를 중량급답지 않게 잘한
다고 생각하는데 금번대회에서는 제 능력을 발
휘 못하였다고 들어찍기와 앞차기로 성과를 보
았다고 위후리기를 못할 이유는 상대가 공격을
하여야 상대를 이용공격을 하여야 하는데 선수
들이 선제공격을 하지 않아서 실력발휘를 못하
였다고...



최 광근(첼터급)

키 : 174 cm

특기 : 여러가지의 장점을 익히느라고 노력을 하였는데... 경험히 적고 국제 대회는 처음이라 당황해서 게임이 잘 풀리지않아서... 꼭 이것만은 하는 특기를 기르겠다 고.....



문종국 (라이트 헤비급)

키 : 187 cm

특기 : 패장이 휘 할애기가 있겠음니까만 체중 싸움에서부터 실패를 하였고, 상대선수 키도 10 ~ 20 cm 정도였으며... 최선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체력을 길러야.....

왕광연선수 : 특기라는 게 별다른게 없고 (웃으며 뒤통수를 긁으며) 이번 시험에는 두서없이 받을 사용한것 같았습니다. 처음시험이라 주특기인 받아차기를 쓰지 못하였다고.....

이재봉선수 : 점프 들어찍기 점프돌려차기 등으로 점프발차기를 연습을 많이 한것이 좋은 효과가 있었고 상대가 당황해 하더라고 시범발차기는 경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사 회 :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이야기인데 태권도 관람하는 관중들은 거의가 태권도인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경기중 선수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선수 자신이 알아서 멋지고 화이팅 넘치는 경기를 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점위주로 받아 먹기만 한다든가 차고 도망가는 양재같은 경기운영 등은 관객에게서 멀어지는 경기가 된다는 점을 우리 태권도지도자와 선수는 유념해야 할겁니다.

한홍식선수 : 돌려차기와 뒷차기였는데 一. 허리를 다쳐 걱정을 하였으나 경기에 임한 후 게임이 잘풀렸다고.....

김용휘국장 : 국내에서 녹화필름을 보며 해설을 하면서 느낀점은, 국내선수들끼리는 서로를 너무 잘알고 있어서 피차 헛점을 주지않고있다 가 상대의 헛점을 찾는데 그 역점을 두고있다 가 한방의 득점으로 승패가 가름되는데, 금번대회의 녹화필름을 보니까 짝발을 사용하여 (오른발만사용) 보기에 좀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가대표선수의 수준이라면 오른발처럼 왼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되겠고, 머리를 쓰는 선수 즉, 상황에 따라 즉시 적용하는 게임을 하도록 다양하게 기술발휘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정국현 : 빛차기였는데 금번대회에서는 턴 앞돌차기 내려찍기 등이 잘 먹혀들어 갔다.

사 회 : 교생들 많이 하셨고 또 6연패의 영광으로 중주국의 위용 위감없이 발휘하여주시어 감사합니다.

선수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체력의 열세를 드는데, 체력의 보강은 급히 이루어지는데 아니니 꾸준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선수들 : 감사합니다.





제64회 전국체육대회

1983. 10. 6~11/인천직할시

— 홍보실 —

곤선 체력,

알찬 단결,

빛나는 전진!의 표어를 표상으로 시작된 전국체전의 태권도 경기는 인천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거행하였다.

10월 6일 오후 3시 대표자 회의를 마치고 인천협회에서 베푸는 태권도 임원만찬을 국제선원 호텔에서 오후 7시에 가졌다. 이날 만찬사에서 전영화 고문은 협회장이 없는 상황에서 전국에 태권도인들을 맞이하게 되어 송구스러움을 면할 길 없다고 전제하고 인천협회 임원과 전국 태권도 임원과 선수들의 건투를 기원했고 답사에서 김운용 협회장을 대신하여 엄윤규 부회장은 인천협회 임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질서있고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경기가 되도록 전국의 임원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10월 7일, 7시 30분~8시 30분까지 제체를 마치고 9시 정각에 제주의 한용식(핀급)대:부산의 임석섭의 대전으로 경기를 시작하였다. 경기장 질서를 위하여 경기장에는 본부 임원과 인천치회 임원과 선수와 코치 이외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등, 경기장 질서를 안정시켰다.

이날 135번 게임의 일반부 웰터급 전남의 박천재 선수가 경북의 채홍국 선수를 3회 20초에 오른발 내려찍기로 KO승을 거두는 등 열기가 고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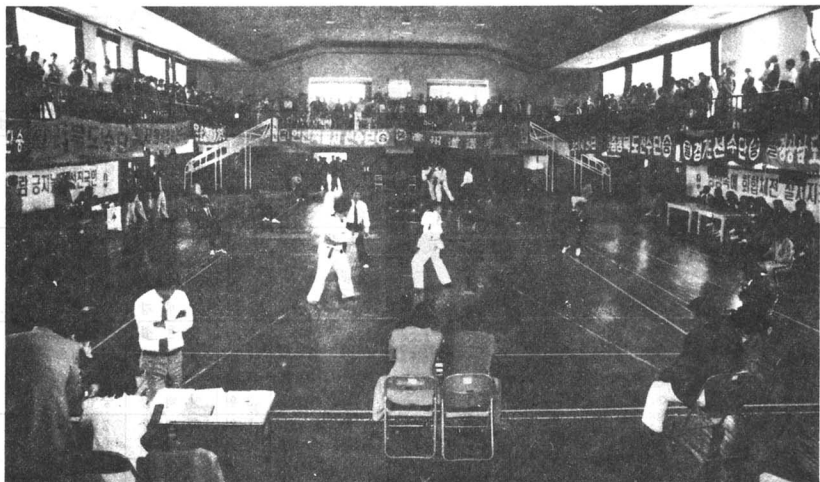
첫날인 7일 경기에는 예선타락 3명인 서울과 경기가 수위로 강세를 보였고 강원이 18명, 제주가 14명, 경북이 13명 부산, 대구가 12명으로 대거 예선타락으로 희비곡선이 엇갈렸다.

10월 8일,

회비가 엇갈린 경기장 분위기는 고조되었다. 경기장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승패에 따른 판정의 시비가 속출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가 있었음은 태권도인 모두가 반성해야 되겠다. 몇



〈엄윤규 부회장의 시상〉



가지 지적을 하면, 코치 외의 임원이 경기장에 들어가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본부석에서 임원이 큰소리로 심판에게 야유를 하는 경우, 심판의 채점표를 강제수거하려는 경우, 경기장에서 은근한 야유로 심판에게 압박감을 가하는 행위 등은 태권도 경기인 이전에 무도인의 차원에서 앞으로의 경기에서는 배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리고 한가지 아쉬운 점은 심판의 판정시비로 심판위원장이 지휘임원들에게 곤욕을 당하는 데도 본부석의 임원들이 남의집 불 보듯 하는 것은 아쉬운 느낌이 들었다.

오후 7시 30분 엄윤규 질서대행위원장 주재로 2일간의 경기장 분위기를 쇄신하여 맡은바 임무에 충실히 임할 것을 강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날 경기는 203번 게임의 김기호 대 양기모의 대전은 다양한 기술과 태권도 묘기의 속출로 관중들을 배로시키기도 남음이 있었다. 이 경기에서 근소한 차이로 김기호가 승리를 하였다.

216번 게임의 대학부 라이트급 "김성호(대구) 대 정재용(경남)의 대전에서 1회 25초에 김성호가 들어찍기로 통쾌한 KO승을 거두었고, 209번 게임에서는 "정명삼(경기) 선수와 박종인(인천) 선수와의 대전에서 1회전을 완전 제압하고 2회 초반에 원판에 부상을 당하여 박종인에게는 행운의 R.S.C 준우승을 안겨주었다.

첫날 강세를 보이던 경기가 12게임에서 패하여서 서울을 제외한 전남, 전북, 인천으로 2, 3, 4위전이 압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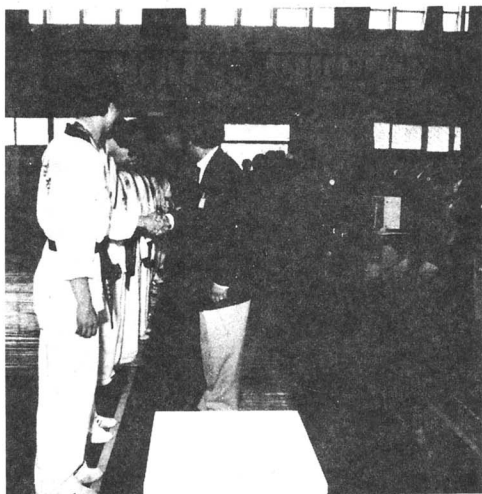
10월 9일

8일 다소 문란하였던 경기장 분위기가 집행부의 질서 쇄신의 의지와 임원들의 자숙으로 질서 정연하고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본회 기술심의회 의장단 위원장단이 순찰하여 본부석 아래 위치하여 경기장 질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바람직한 분위기였다.

229번 게임으로 시작된 경기는 준준결다음계 막상막하의 흐름이었다. 304번 게임의 서울 강종길(페더급) 대 대구 장태원의 게임에서 2회 1분에 강종길의 뒷축이 장태원의 얼굴에 강타 KO패 하였다. 상위 그룹에 속해 있던 인천이 대거 16게임에서 패하고, 전남이 11게임에서 패하고 전북이 5게임에서 패하여 전남과 전북이 2, 3위의 각축으로 좁혀졌다.

10월 10일

드디어 결전 마지막 날이 되었다. 9일 오후 버마의 폭발물 사고에 접한 후의 경기장 분위기는 숙연하였고 임원들은 가슴에 까만 리본을 달고 순직한 영열앞에 1분간 추도묵념을 한 후 경기에 임하였다. 우승을 눈앞에 둔 경기답게 침착하고 조심스럽게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태도는



입상자에 메달을 수여하는 인천협회 부회장

자못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질서 정연하게 결승전을 마쳤다.

천만의 마음을 자랑하듯 서울이 2404 점으로 우승, 전남이 1503 점으로 2위, 전북이 1422 점으로 3위에 입상을 하였다.

단체성적과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등 각부의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단 체 성 적

등위	지역명	점 수	등위	지역명	점 수
1위	서울특별시	2,404점	8위	충청북도	943점
2위	전라북도	1,503점	9위	경상남도	857점
3위	전라북도	1,422점	10위	경상북도	791점
4위	인천직할시	1,254점	11위	대구직할시	606점
5위	충청남도	1,054점	12위	강원도	587점
6위	경기도	1,051점	13위	제주도	473점
7위	부산직할시	957점		재미·재미동포(등외)	

고 등 부 입 상 자 명 단

계급	등위	성명	소속, 학교명
원급	1위	최용덕	서울체고
	2위	한동수	함도실고
	3위	함준	전북체고
	3위	김철기	풍성고
플라이급	1위	김준태	동성고
	2위	유태욱	함도실고
	3위	이창기	대전체고
	3위	서재장	학다리고
밴텀급	1위	홍용섭	동대문상고
	2위	임봉덕	인천체고
	3위	이정동	울산공고
	3위	임태동	송일고
페더급	1위	하계수	경북체고
	2위	임내락	전남체고
	3위	박재우	전북체고
	3위	김민환	부산체고
라이트급	1위	김종일	전남체고
	2위	박해영	인천체고
	3위	배창호	부산체고
	3위	양형수	풍성고
웰터급	1위	정용석	광성고
	2위	최상진	전주공설공고
	3위	김용수	동성고
	3위	오종은	부산체고
L.미들급	1위	허면	동성고
	2위	이강일	전북체고
	3위	김계남	목포대인고
	3위	김명보	오현고
미들급	1위	이주열	서울체고
	2위	신진성	부산체고
	3위	민경호	인천체고
	3위	공호권	청주기계공고
L.헤비급	1위	노신	동대문상고
	2위	최진성	전북체고
	3위	이성우	삼천포고
	3위	최기학	안중중합고
헤비급	1위	안병덕	성동상고
	2위	하영진	부산체고
	3위	조남당	부여고
	3위	정택주	동일실고

대 학 부 입 상 자 명 단

제 급	등 위	성 명	소 속, 학교명
원 급	1 위	이 정 희	조선대
	2 위	이 종 상	경희대
	3 위	박 창 용	동원공업전문대
	3 위	우 하 성	대구보건전문대
플 라 이 급	1 위	김 영 식	송아대
	2 위	김 기 호	한국제대
	3 위	유 영 준	인천체육전문대
	3 위	신 하 철	송원전문대
벤 탐 급	1 위	권 기 문	한국제대
	2 위	이 경 배	한국제대
	3 위	이 병 석	조선대
	3 위	이 재 규	동의대학교
페 터 급	1 위	강 종 길	유도대
	2 위	손 재 열	한국제대
	3 위	박 종 인	인천전문대
	3 위	장 태 원	계명대
라 이 트 급	1 위	김 윤 표	유도대
	2 위	이 차 열	조선대
	3 위	박 현 서	인천전문대
	3 위	김 성 호	계명대
웰 터 급	1 위	유 종 철	성균관대
	2 위	라 일 환	경희대
	3 위	이 준 명	한국체육대
	3 위	김 주 환	청주대
L . 미들 급	1 위	최 창 용	유도대
	2 위	최 철 영	제주대
	3 위	문 양 배	전주대
	3 위	유 수 종	경상대
미 들 급	1 위	황 선 투	유도대
	2 위	손 인 덕	공주사대
	3 위	김 광 열	경상대
	3 위	이 정 진	경희대
L . 해비 급	1 위	이 계 행	조선대
	2 위	고 영 철	유도대
	3 위	김 영 승	원광대
	3 위	김 재 열	신일전문대
해 비 급	1 위	임 재 익	청주대
	2 위	박 형 대	조선대
	3 위	권 용 주	한국체육대
	3 위	김 병 수	경희대

일 반 부 입 상 자 명 단

제 급	등 위	성 명	소 속, 학교명
원 급	1 위	김 한 식	전북도장
	2 위	송 명 협	설악케이볼카
	3 위	여 성 기	충북은행
	3 위	장 동 화	중앙체육관
플 라 이 급	1 위	박 성 현	청우회
	2 위	한 기 호	서부체
	3 위	오 창 근	해 룡
	3 위	이 상 훈	무연체육관
벤 탐 급	1 위	홍 중 안	해 룡
	2 위	이 승 배	합평체
	3 위	최 윤 기	웅 비
	3 위	김 점 호	해 룡
페 터 급	1 위	임 판 인	해 룡
	2 위	박 종 완	웅 비
	3 위	장 한 배	해 룡
	3 위	최 성 식	설악케이볼카
라 이 트 급	1 위	고 봉 수	웅 비
	2 위	김 한 우	한국스포츠
	3 위	김 태 우	해 룡
	3 위	조 원 권	성동체육관
웰 터 급	1 위	김 형 중	웅 비
	2 위	양 회 석	설악케이볼카
	3 위	유 준 희	2632 부대
	3 위	이 강 일	해 룡
L . 미들 급	1 위	차 상 혁	성균관대
	2 위	윤 오 남	전남체
	3 위	황 태 진	함양체육관
	3 위	김 금 신	부천시청
미 들 급	1 위	김 중 석	웅 비
	2 위	윤 주 열	참피온체
	3 위	김 만 근	해 룡
	3 위	김 명 수	웅 비
L . 해비 급	1 위	이 중 환	웅 비
	2 위	김 화 영	2695 부대
	3 위	이 제 현	해 룡
	3 위	박 태 현	영광체육관
해 비 급	1 위	라 용 성	한국스포츠
	2 위	김 진 갑	무동체
	3 위	송 중 화	2695 부대
	3 위	성 기 봉	동명도장

83
년도

전국 우수선수 선발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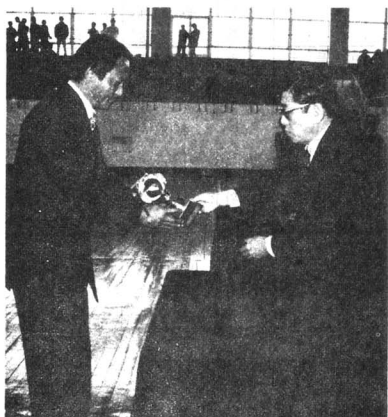
홍보실 제공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1983년 11월 10일~11일(2일간)까지 국기원에서 실시하였다. 우수선수는 83년도 본회 또는 각 연맹이 주관한 전국 규모대회에서 입상한 고등부 이상의 남자선수에게 한한다.

경기는 부(고등, 대학, 일반)에 구별없이 10체급으로 구분하여 토나먼트식 개인전으로 진행하였다. 총 167명이 참가한 본 대회는 우수선수들답게 열전이었다.

54번게임의 페터급대전에서 김찬구(유대)대 이용준은 1회 중반 이용준이 주먹으로 얼굴을 강타 김찬구는 입안이 헤져서 숨을 입에 물고 분전 3회 25초에 앞돌려차기로 이용준의 얼굴을 강타 뚫패한 K.O승을 거두었고, 라이트 미들급 결승전에서는 이강식(한체대)선수대 박병호(조선대)선수의 경기는 백중지세로 판정을 내릴때 주부심이 모여 확인하는 등 시간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이 게임에서는 박병호(조대)의 승으로 매듭이 지어졌다.

또한 본 대회는 협회행사로는 83년도 끝대회로 경기분과위원으로 노교가 많았던 조호철(경기분과 부위원장), 임종민, 김성찬, 명재승 경기위원들에게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본 대회의 1위 입상자들은 84년도 국가대표 최종전에 참가할 자격이 부여되며 83년도 최우수 선수에는 김기호(한체대)선수가, 지도상에는 조선대 김주훈 감독이 받았다.



지도상을 받는 조선대 감독 김주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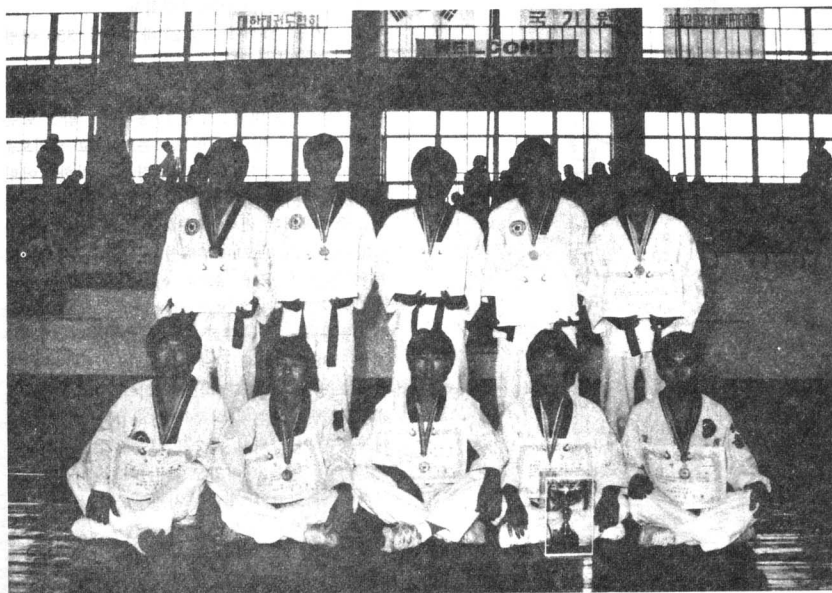
최우수상을받는 김기호선수



표창을 받은 경기분과 위원들

1 위 입 상 자 명 단

중량 (급)	성 명 (소 속 명)	중량 (급)	성 명 (소 속 명)
핀 급	김 지 태 (서울체고)	플 라 이 급	김 기 호 (한국체대)
벤 탐 급	권 기 문 (한국체대)	페 티 급	김 찬 구 (유도대)
라 이 트 급	라 일 환 (경희대)	웰 티 급	박 천 재 (한체대 대학원)
L . 미 들 급	곽 병 호 (조선대)	미 들 급	장 칠 환 (한국체대)
L . 헤 비 급	이 계 행 (조선대)	헤 비 급	임 재 역 (청주대)



우수선수 1 위 입상자들

제 9 회

한국국민학교 태권도연맹 회장기

전국 국민학교 단체대항점 개인 선수권대회



회장 이 상 빈

본 연맹에서는 1983년 10월 2일~3일(2일간) 까지 국기원에서 본연맹 회장기타기 단체대항점 개인 선수권대회를 대한태권도협회와 소년동아의 후원으로 개최하였다.

본 대회에는 부산천마국민학교를 비롯하여 10개교와 서울 17개교, 총 27개교에서 350여명이 참가하였다.

식전에서 대회장 이상빈회장은 대회사에서 여러 어린이들은 태권도수련을 통하여 밖으로는 건강한 신체를 만들고 안으로는 참되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서 가정에서는 명랑하고 착한 어린이, 사회에서는 씩씩하고 질서 잘 지키는 어린이, 국가에서는 애국 애족하는 장차 훌륭한 한국인이 되어달라고 당부하였다. 격려사에서 김운용협회장은 금번 대회는 이상빈회장의 취임을 대회와 같이 기념하여서 의의가 더욱 깊으며 '88 서울올림픽의 꿈나무로 올바르게 씩씩하게 성장하여 '88올림픽에 주역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명예대회장 윤국노 국회의원은 경기를 통해서 이기고 지는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상대와 겨루는 동안 상대의 기술을 터득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태권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나라와 학교와 가정을 사랑할 줄 아는 어린이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본 연맹에서는 지방출전선수 전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본 대회의 단체성적과 체급별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전 판 선 사범

(연맹 상법위원장)

(광희 국교태권도사범)

체 급 별 입 상 자 명 단

체 급	순 위	성 명	학 교 명
편 급	1위	김성남	서울 대림 국민학교
	2위	김인경	성남 제 2 "
	3위	김효중	서울 남산 "
	3위	김현용	서울 풍남 "
플라이급	1위	안성철	서울 남산 "
	2위	정동현	서울 광희 "
	3위	박병주	서울 광희 "
	3위	이화진	성남 제 2 "
밴 탐 급	1위	양통일	서울 남산 "
	2위	신성수	서울 대림 "
	3위	김영주	포항 청림 "
	3위	최성희	경기 용인 "
페 티 급	1위	김주호	서울 대림 "
	2위	김기복	대구 월배 "
	3위	송진호	서울 광희 "
	3위	윤대식	경기 용인 "
라이트급	1위	윤정호	서울 광희 "
	2위	김성진	서울 풍남 "
	3위	천일구	경남 충열 "
	3위	이경모	서울 신석 "
웰 티 급	1위	심기훈	서울 마천 "
	2위	김순택	성남 제 2 "
	3위	유재성	서울 면목 "
	3위	이봉준	서울 신석 "
미 들 급	1위	김광석	서울 광희 "
	2위	이현석	서울 남산 "
	3위	김정민	경기 용인 "
	3위	이동우	서울 한강 "
헤 비 급	1위	박정학	서울 광희 "
	2위	이호철	서울 남산 "
	3위	김태권	서울 한강 "
	3위	김영수	서울 선곡 "



격려사를 하는 윤국노 국회의원



시상을 하는 이상빈회장
단 체 성 적 표

순 위	학 교 명	비 고
1 위	서울 광희 국민학교	
2 위	서울 남산 국민학교	
3 위	서울 마천 국민학교	
	서울 선곡 국민학교	
장려	서울 풍남 국민학교	



성남 제 2 국민학교 학생들의 고적대 퍼레이드

제 4 회 문교부장관기 타기 전국 국민학교 종합 태권도 대회



한 규 인
(한국국민학교태권도연맹
기술심의회의장)

한국국민학교 태권도연맹에서는 1983년 11월 20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26개의 서울 시내 국민과 10개교의 지방학교 총 36개교에서 겨루기 214명 종합부문 (태권도이론, 품세, 발차기) 327명 총 531명이 참가한 가운데 거행하였다. 이날 품세심사에 앞서 본 연맹 기술심의회 임원들의 품세 시범이 있은 후 품세 실기심사에 들어갔다. 처음 실시 (1980년도) 할때 보다 어린이들의 품세수준은 많이 향상되었음에 주축측으로서는 흐뭇한 일이다. 또한 금번 실시한 발차기 심사는 두발당상, 옆차기, 뒤돌려차기 (회측)를 실시하여 품며 이상의 기본실력을 가늠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11시 30분 개회식전에서는 성인 태권도 연무시범이 있었다. 위력격파, 품세, 호신술 등 무도태권도의 일면을 어린이들에게 보여 주는 태권도는 어린이들의 전용물이 아님을 일깨워 주는 본보기가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시범에 참조하여 준 김영작 (국기원시범분과위원장) 사범, 구정희 (국기원시범분과위원) 사범, 김사드리며 정찬진 (본연맹경기분과위원장)이 규형 (본연맹시범분과위원장) 이종관 (본연맹경기분과위원) 등 시범에 참여한 사범께 아울러 고마움을 표한다.

대회사에서 이상빈회장은 본대회는 다른 태권도대회와 달리 태권도의 정신과 예의, 품세와 기본발차기 등, 태권도의 종합대회로 우리나라 백년대계의 꿈나무인 여러분들의 인격형성의 기본을 가꾸는 대회로 전통무도 정신을 계승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전제하고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정정당당하게 승패를 가려달라고 당부하였다. 질서정연하게 실시된 본

경기에 품세는 학년별로 금 1명, 은 3명, 동 5명을 시상하였고 겨루기는 타 경기와 동일하다. 본대회의 우수 선수상은 종합부문과 겨루기의 총점이 가장 높은 선수로

최우수상 : 김효중 (서울남산국교 6년) 군이 차지하였고

우수상 : 오민석 (서울미동국교 6년) 군이 받았다.

단체성적을 보면 3연패를 한 미동을 제치고 서울 남산국민학교가 우승을 차지하였고 서울미동국민학교가 준우승, 서울 선곡국민학교 3위 장려상은 서울의 명일국민학교와 대림국민학교가 차지하였다. 학년별 종합부문 (이론, 품세, 발차기) 우승자 명단과 겨루기부분 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종합부문 학년별 우승자

홍승범 (서울문창국교 1년)

김태균 (서울남산국교 2년)

황교찬 (서울신석국교 3년)

신규식 (서울신석국교 4년)

권영호 (서울남산국교 5년)

정현섭 (서울장평국교 6년)

*겨루기부분 우승자

김성남 (원곡, 대림국교)

서덕수 (플라이급, 면목국교)

신성수 (밴텀급, 대림국교)

오명화 (페더급, 미동국교)

김주호 (라이트급, 대림국교)

심기훈 (웰터급, 마천국교)

마 준 (미들급, 명일국교)

한계열 (헤비급, 강원도탐동국교)

※ 태권도 종합부문의 필기시험 문제를 기고하
 일선도장의 어린이 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1,2 학년용〉

※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이나 답의 번호를 ()
 안에 쓰시오.

1. 국기가 너무 낡아서 못쓰게 되었을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① 쓰레기통에 버린다. ② 태운다
 ③ 걸레로 쓴다 ④ 아무곳에나 넣어둔다
2. 우리나라 꽃은?
3. 국기에 대한 맹세이다 ()에 알맞은 말
 을 넣어라.
 “나는 자랑스런 ()앞에 조국과 민
 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
 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4. 태권도는 어느나라에서 시작된 운동인가?
 ① 일본 ② 대한민국
 ③ 미국 ④ 중국
5. 품증을 발급하는 곳은?
6. 태극 품세는 몇장까지 있나?
7. 경기할때 없어도 되는 도구는?
 ① 샅보대 ② 호구
 ③ 초시계 ④ 줄자
8. 태극 품세중 손날이 처음 나오는 품세는?
 ① 4장 ② 5장
 ③ 6장 ④ 7장
9. 태극 1장의 마지막 서기 자세는?
 ① 앞서기 ② 앞굽이
 ③ 나란히 서기 ④ 모아서기
10. 태극 1장은 몇개 동작인가?
 ① 18 ② 22
 ③ 22 ④ 24
11. 10월 9일의 버마 아웅산 묘소에서의 우리나
 라 외교사절단 참사사건은 어느나라에서 저
 지른 것인가?
 ① 버마 ② 중국
 ③ 소련 ④ 북괴
12. 도장에 들어갔을때 제일먼저 해야할일은?
 ① 사범께 인사

- ② 국기에 대한 경례
- ③ 도복 갈아입기
- ④ 기본동작 연습

13. 국민학교 선수의 체급은 몇체급으로 되어
 있나? ()체급
14. '88년도 올림픽대회는 어느나라에서 열리
 나?
 ① 미국 ② 영국
 ③ 대한민국 ④ 일본
15. 몸통의 굽소는?
 ① 낭심 ② 인중
 ③ 배 ④ 명치
16. 앞차기는 발의 어느부분으로 해야 하나?
 ① 발날 ② 발등
 ③ 발바닥 ④ 앞축
17. 다음중 심판원이 아닌 사람은?
 ① 코치 ② 주심
 ③ 부심 ④ 배심
18. 태극 1장에서 나오는 서기가 아닌것은?
 ① 앞서기 ② 앞굽이
 ③ 모아서기
19. 태극기가 보이지 않을때 애국가가 들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
 ① 하던일을 계속한다
 ② 차려자세로 서서 들리는 방향을 본다
 ③ 차려자세로 겨수경례를 한다
20. 국민학교 태권도 경기의 겨루기는 몇학년
 부터 참가할 수 있나?
 ① 3학년 이상
 ② 4학년 이상
 ③ 5학년 이상

〈3,4 학년용〉

※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이나 번호를 ()
 안에 쓰시오.

1. 태권도를 처음 시작한 나라는?
 ① 중국 ② 일본
 ③ 대한민국 ④ 인도
2. 승품심사를 주관하고 품증을 발급하는 곳
 은?
 ① 체육관 (도장) ② 국기원
 ③ 대한태권도협회 ④ 대한체육회

3. 체육관 (도장) 에 들어가서 제일먼저 하여야 하는 것은?

- ① 사범님께 인사
- ② 국기에 대한 경례
- ③ 선배들께 인사

4. 태권도를 시작할때 서는 자세는?

- ① 편히 서기 ② 준비 서기
- ③ 주춤 서기 ④ 앞 서기

5. 태극 1 장에서 나오는 서기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

- ① 4 가지 ② 2 가지
- ③ 1 가지 ④ 5 가지

6. 태극 4 장은 몇동작으로 되어있는가?

- ① 20 동작 ② 24 동작
- ③ 18 동작 ④ 19 동작

7. 태극 4 장의 6 번째 동작의 이름은?

- ① 앞차고 몸통지르기
- ② 옆차기
- ③ 앞차기
- ④ 제비품 목치기

8. 주춤서 몸통지르기의 몸통의 부위 이름은?

- ① 비뿔 ② 명치
- ③ 가슴 ④ 목

9. 태극 품세의 진행선 (연무선) 은 어느것인가?

- ① 士 ② 工 ③ 王 ④ 土

10.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83년도에 몇차례 거행하였나?

- ① 7 회 ② 5 회
- ③ 6 회 ④ 8 회

11. 겨루기를 할 때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입은 것은?

- ① 보호대 ② 호구
- ③ 도복 ④ 샷보대

12. 앞차기는 몸통 어느 부위를 공격하는 것인가?

- ① 무릎부분 ② 허벅지부분
- ③ 배부분 ④ 아무부위나

13. 앞차기를 할때 발의 공격부위는?

- ① 발등 ② 발가락
- ③ 발바닥 ④ 앞축

14. 옆차기를 할때 발의 공격부위는?

- ① 발바닥 ② 발바닥앞부분

- ③ 발날 ④ 발뒷꿈치

15. 태권도의 종주국은 () 이다.

- ① 중국 ② 일본
- ③ 우리나라 ④ 태국

16. 종주국은 태권도를 () 시킨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 ① 부흥 ② 발생
- ③ 훈련 ④ 발전

17. 태극 4 장에는 옆차기가 몇번 나오는가?

- ① 3 번 ② 한번
- ③ 2 번 ④ 한번도 없다

18. 국기에 대한 맹세이다.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시오.

나는 자랑스런 () 앞에 조국과 민족의 () 영광을 위하여 () 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5,6학년용>

※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이나 번호를 () 안에 쓰시오.

1. 국기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 ① 경기를 하는 경기장
- ② 심사를 보는 심사장
- ③ 품증을 발급하고 태권도인이 수련하는 중앙도장

2. 태권도는 어느나라에서 제일먼저 시작하였나?

- ① 중국 ② 일본
- ③ 대한민국

3. 태권도의 정신은 신라의 화랑도 정신과 같다.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1. 나라에 () 한다.
- 2. 부모에 () 한다.
- 3. () 에서는 물려서지 않는다.
- 4. () 지간에는 민움이 있다.
- 5. 함부로 () 을 하지 않는다.

4. 품세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것인가?

- ① 시선과 기합 ② 힘의 요령
- ③ 손의 동작 정확

5. 오늘 우리가 참가하고 있는 대회를 주관한 곳은 () 이다.

6. 태권도가 국민학교 교과서에 교과과정에 들어 있다. 몇학년 교과과정에 있는가?
 ① 3~4학년 ② 1~6학년
 ③ 5~6학년
7. 우리나라 종합대학교에 태권도 학과가 신설되었다. 어느학교인가? (대학교)
8. 국민학교의 태권도경기 체급은 몇체급인가?
 (체급)
9. 태권도 경기에 심판원이 5명이 보는 것을 5심제라고 한다. 3명의 심판원이 보는 것은?
 ()
10. 경기중 한쪽 (청) 선수가 경고를 3회 받았고 한쪽 (홍) 선수는 감점을 한번 받았다. 득점이 같을 경우 어느선수가 승리하였나?
11. 경기를 할때 주심에게 승패를 가려주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12. 경기를 할때 선수에게 공격기술을 지도하고 쉬는 시간에 선수편리를 해주는 사람은 무엇이라 부르는가?
13. 태권도에 앞축과 발날은 어느 발차기에 사용하는 부위인가? (와)
14. 태극 품세중에서 외산틀막기 동작은 몇장에 있는가? (장)
15. 태극 5장에 나오는 발차기 종류를 쓰시오.
 ()
16. 애국가 2절과 3절의 가사를 쓰시오.
 (후렴 생략)
 2절 :

 3절 :
17. 태권도 ()의 “태권”은 몸의 부위를 표시한 것이다. 다음중 어느것인가?
 ① 발과 무릎 ② 발과 머리
 ③ 발과 주먹



— 고려품세 중에서 옆차기 (국가대표 어린이 시범단)

서울특별시 교육감기쟁탈 태권도

초·중·고단체 및 개인선수권대회



김 정 기



1983년 11월 17~18 (2일간) 일 국기원에
서는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가 1983년도 태권
도대회를 마무리 짓는 서울특별시 교육감기 쟁탈
태권도 초·중·고 단체 및 개인선수권대회를 가
졌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관계인사 및 많은 학부
형과 관중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회장인 서울특
별시 태권도협회 업무규회장은 대회를 통해 날
이 갈수록 세계적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 태권도의 위대함은 선수 여러분과 여러분들
을 지도하는 사범 그리고 여러분의 뒷바라지에 최
선을 다해 주시는 학부형 여러분의 하나로 결집
된 의지의 결과라고 찬사를 보냈으며 오는 1985
년 제 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우리 한국에
서 개최하게 됨은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대회」 등 국제적 성전에 기회가 부툰 우
리 국민과 전 세계인의 열망에 대비한 전초전으
로서 바로 여러분이 제 7회 세계태권도선수권 대
회의 주역이 되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 선
수들과 관계인사들에게 발전하는 태권도 종주국
의 참다운 면모를 보여주어 성공적인 대 성전을
빛나게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바로 오늘 이
대회가 그 기본이 되는 것이니 선수 여러분은 태
권도 종주국의 선수다운 기풍으로 선전분투 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대회에 출전한 선수는 국민학생부 180명 중등
부 86명, 고등부 61명 등 모두 327명의 선수들
이 각기 자기 학교의 명예를 위해 열띤 접전을 벌
여 매 경기마다 패기넘치는 기량들이 속출하여
관중들로부터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고등
부 우승팀인 동성고등학교 선수들은 타 선수들의
추종을 불허하여 연 3년째의 영광된 우승의 기쁨
을 안기도 했다. 이들동안의 대회를 통하여 시종
참여 협조해주신 임원, 선수 여러분에게 이 기회
를 빌어 감사드리고 바입니다.

대회 전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학교부체급별등위

등위 체급	1 위		2 위		3 위		3 위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핀	김성남	대림국교	최의림	영통국교	김성현	금육국교	신규식	신석국교
플라	서덕수	면목국교	허석	대림국교	김성호	면동국교	맹성재	광희국교
벤	신성수	대림국교	양통일	남산국교	신준재	잠원국교	박홍식	화계국교
페터	김형근	잠일국교	김주호	대림국교	권영수	면목국교	김윤형	광희국교
라이트	이경모	신석국교	박병주	영일국교	국정옥	잠원국교	이명수	개원국교
헬터	임영일	광희국교	이용훈	잠원국교	배현종	강동국교	이봉춘	신석국교
미들	박진석	면목국교	김호	화계국교	이시용	마천국교	최정복	광희국교
헤비	박세진	명일국교	신용현	화계국교	김규광	강동국교	홍종철	밤미국교

중등부체급별등위

등위 체급 성명,소속	1 위		2 위		3 위		3 위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핀	박정화	서울체중	문병태	경수중	권태성	한양중	김지영	대방여중
플라	하태경	경수중	박기찬	배영중	김지영	면목중	서대원	동성중
벤	조규식	경수중	심우현	동성중	양정석	배영중	윤치근	보인중
페터	최영우	경수중	조영남	동성중	송효석	고려중	김태완	영동포중
라이트	이종현	경수중	장혁	서울체중	최효석	배영중	이덕수	신덕중
헬터	고용재	배영중	이광노	동성중	김병갑	경수중	이용현	신덕중
미들	권경태	배영중	김해국	경수중	김호남	중동중	민태남	동성중
헤비	이명호	배영중	신정옥	난곡중	양대승	동성중	이천우	경수중

고등부체급별등위

등위 체급 성명,소속	1 위		2 위		3 위		3 위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핀	최천	동성고	최성우	송실고	강철우	서울체고	송경용	마포고
플라	오영수	서울체고	김준태	동성고	한명수	동대문고	김의규	마포고
벤	천인수	서울체고	정희석	동성고	김후근	위례상고	홍용섭	동대문상고
페터	박봉권	동성고	이용일	동대문상고	박병철	보인고	이병오	마포고
라이트	김경환	서울체고	이재호	동성고	정창기	송실고	이원호	위례상고
헬터	김용수	동성고	신상돈	동대문상고	연기호	송실고	박화용	서울체고
라이트미들	허런	동성고	윤순철	서울체고	신민수	마포고	박종일	동대문상고
미들	이주열	서울체고	김시태	동성고	한정호	중동고	박재수	동대문상고
라이트헤비	노신	동대문상고	김태용	동성고	오병선	송실고	박현	서울체고
헤비	김재영	서울체고	김광섭	동성고	윤종훈	마포고	박경호	송실고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한 규 인

우리 태권도인들에게 할 일이 너무 많이 산적해 있다.

1985년 제 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86년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시범경기 등..... 큼직 큼직한 대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우리는 대회를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닥아올 대회를 맞이할 준비를 하나씩 한가지씩 준비를 하여야 하지 않을까?

첫째, 태권도의 역사를 체계화하고 철학을 정립시켜 우리의 것으로 기반을 다져 놓아야 되지 않을까?

둘째, 태권도를 어떻게 체계화시키고 어떻게 과학화시켜야 할 것인가?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도록.....

셋째, 경기방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관객이 흥미를 느끼고 관중이 승패를 빠르게 이해토록 할 수 있을까?

넷째, 어떻게 하면 일선 사범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보다 도장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야구나 축구경기를 보자.....,

아니 최근 부쩍 인기를 모으고 있는 자칭 “國技”라고 하는 씨름경기를 보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또한 T.V나 신문들의 기사를 우리 태권도 기사와 비교를 해 보았는가?

경기인구(등록선수) 7,000여명을 보유한 우리 태권도가 인기 스포츠로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 모두 생각해 봅시다”

경기는 관중이 없이는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없다. 경기는 선수와 관중의 상호작용(interaction)에 의해 발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태권도 경기의 관중은 태권도인이나 선수의 가족·친지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태권도의 시범은 인기도 좋고 관중의 아낌없는 갈채를 받는다. 그러나 태권도의 시합은.....

태권도 경기를 보는 관중은 누구나 승패를 확연히 구분할 수 있고 평범한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 묘기에 감탄을 느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본래 태권도의 理論과 實際를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경기의 “물”이나 시합의 형태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행여나, 각 시도협회 임원이나 집행부의 사범님들! 제사 보다는 겹밥에 우선하거나, 「해계모니」를 잡아야 행세를 할 수 있다는 허세와

자신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도 남이 하면 시기하고 방해하는 악습이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 잔존해 있거나 않은지.....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 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나」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세계로 뻗어가는 태권도 Taekwondo in the World

말레이시아(Malaysia)

박 호원 사범



82년 2월 24일 새마을본부 해외협력단의 추천으로 김대연(金大淵)사범과 같이 태권도교관 요원으로 조호바르(Johorbahrru)주에 파견되었다. 말레이시아 국무성에서 운영하는 코베나(KOBENA) 기술훈련원생들에게 태권도 지도를 하였다. 훈련생은 1기에 360명으로 6개월씩 태권도 수련을 하여 청띠(6급)정도의 기량을 갖도록 지도하여 1년 6개월간 3기생을 배출하였다. 김대연사범은 1년 6개월간의 기간을 마치고 83년 8월 27일 귀국하였고, 박사범은 조호(Johor)주 경찰국의 태권도지도사범의 위촉장을 받아 왕실의 경호대원 120명과 각 경찰서의 경찰에게 태권도 수련을 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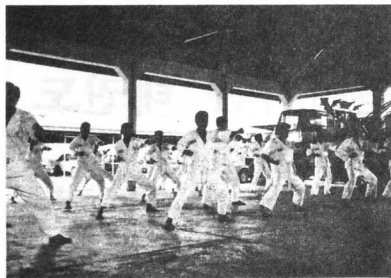
왕실 경호대는 오전 8시~10시까지 주 4회, 각 경찰서 수련생이 오후에 경찰국에 모여 오후 4시 30~6시 30분까지 수련을 하고 있다. 태권도 수련생들은 거의가 경찰간부들로써, 태권도 수련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 시간에서 제외시키는 등 태권도 교육에 특별배려를 하여 적극지원하고 있다.

경찰국장이 수련장에 나와 태권도교육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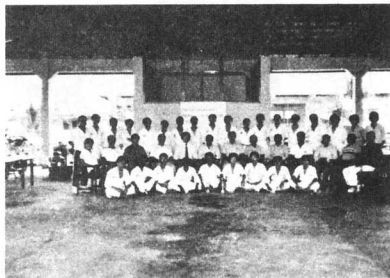
성을 역설하는등, 관심이 지대하여 계속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박사범은 얘기 하고 있다.



조호바르 경찰서장의 격려사



승급심사를 받는 경찰요원



승급심사를 마치고 기념촬영

영광의 순간들

미국 후로리아
이기정



우리는 모두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의 쟁취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있다. 십여년의 긴 세월을 외국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으나 영예롭다 할만큼 이렇다할 기쁨의 순간이 없었다. 수 많은 시범과 순회교육 각종 국내외의 크고 작은 대회에 참여하였지만 영예라는 글자와는 내 놓을만 한것이 없었다.

더구나 태권도와 함께 영광의 순간을 같이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83년에 들어서서는 해외 사범 생활의 깊은 침묵과 침체의 고된시련으로 시작되었으나 83년 2월 26일 발

명왕 “에디슨”의 고향인 포트마일 (Fort Myers) 시에서 거행하는 발명왕 “에디슨”의 탄생기념일 식전에서 태권도 시범을 하여 태권도의 보급은 물론 “KOREA”를 널리 알렸으며 시장으로 부터 영예의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았다. 훈장이나 표창에 비교할까만, 태권도와 더불어 받은 것이기에 본인에게는 그 어느것 보다 값지고 영예스러운 것이었다. 또한 당일 여러신문들에 태권도와 함께 대서특필로 보도됨은 태권도 저변확대에 좋은 계기였다.

83년 10월 미국 남부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도시 Daytona 시에서 태권도 시범이 있었다. 이곳에서도 본인은 행운의 열쇠와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동양인에게는 몇줄의 기사를 내 주기도 꺼려하는 이곳의 메스컴에서 몇번씩이나 전면폐지로 태권도를 기사화할 수 있었음은 내 개인의 영광이전에 태권도 전체에 주어지는 격려라 생각되어 더욱 더 수련하고 태권도에 정진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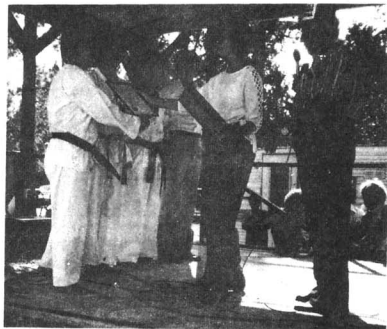
계속되는 시범요청을 줄기거문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기술개발과 또 기술이전의 맥맥히 흐르는 우리민족의 정신적 바탕을 표현토록 최선을 경주하고 있다.

지난 10월 9일 후로리아다주에서 매년 거행되

어은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의 태권도시범 요청에는 30 여명의 본체육관 유단자와 멀리 브라질에서 활약하는 정재규사범을 초청하여 후로리다주 야외구장에서 시범을 보였다. 시범이 끝날때마다 열광하는 박수와 호기심어린 눈동자, 물려드는 싸인공세는 태권도인들에게는 두고두고 기억되는 순간들이었다.

3만 5천의 관중들에게 KOREA 태권도를 생생하게 심어주었고, 이자리에 참석 한 주지사 시장등을 비롯한 요원들도 열렬히 찬사를 보냈으며 이자리에서 다시한번 미국정부가 수여하는 행운의 열쇠를 브라질 정재규사범과 함께 받았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외국의 사범생활에 세번씩이나 영예의 순간을 접하고 보니 그 동안 태권도에 집념하여 정진한 시간들에 위안과 희열을 맛보았다.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에게 영광의 순간이 도래하느니-!

지면을 빌어 태권도 보급발전에 노력하시는 세계속의 태권도사범님들과 멀리 브라질에서



우정의 실증을 보여준 정재규사범님께 감사드린다.

이기정 사범주소 : K. J. Lee

P. O. Box 618

Holly Hill FL 32017

U. S. A.

사우디 아라비아(Saudi Arabia)

이재동 사범

열사의 나라 사우디 /

우리나라의 태권도인이 아니라도 잘 알려져 있듯, 81년 2월 더위가 옷속으로 스며들어 점차 기운을 뺏어가는 열사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며 각고의 3년여- 81년 2월에 도착하여 8월에는 팜맘(Pam mam)의 해운항만청 경비대를 지도하게 되었고 이어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맥도날드 더글라스회사의 미국인 비행조정사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사범은 땀흘려 지도한 효과가 있어 AL-NAHDA 스포츠 클럽과 계약하여 태권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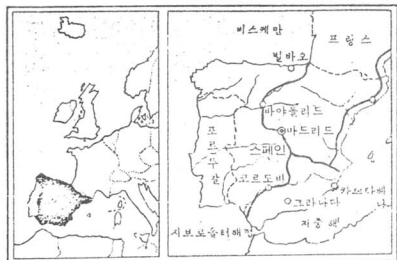
10월 잠시 귀국한 이사범은 커다란 사건들의 연속인 KAL기 격추사건. 버마 아웅산 국립묘지 폭파사건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해서라도 전세계인이 더욱 더 우리 태권도에 호응을 보이도록 열심히 지도하는 것이 해외사범이 할일이

아니겠냐고 - 말하며 더욱 열심히 태권도 보급을 하겠다고.



해운항만청 경비대 태권도 부원들과

스페인 이영우 협회장



면적 : 50만4,750km²

인구 : 3,214만1천

인구밀도 : 63.6인/km²

수도 : 마드리드 (286만6,700)

인종 : 스페인인, 바스크인.

언어 : 스페인어, 바스크어

종교 : 로마 카톨릭

화폐 : 페세타 (1미달라=70페세타)

입헌공화국으로 면적 50만 4천 750km²(바레알 제도와 카나리제도를 포함), 인구 3,241만 1천 (1968년 추계)이며, 수도는 마드리드(Madrid)로 인구 286만6,700이다.

1973년 5월 스페인 전영태사범의 초청으로 출국한 이사범이 스페인에 첫발을 내 디었을 때는 김재원, 전영채, 최원철, 조홍식사범등이 "가라메" 협회 산하에 태권도가 한 파트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스페인의 전사범이 단결하여 태권도의 우수성을 입증하여 무도로서는 유일하게 체육회에 가입한 유도협회의

산하로 자리를 옮겨 무도로서의 한 위치를 확보하여 협회를 조직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스페인에 한국인으로 협회장은 1대, 김재원 2, 3대최원철, 4대에 이영우사범이 협회장의 중책을 맡아 2년여 협회살림을 하고 있다. 이회장은 협회일을 맡으면서 World Taa Kwon Do 지를 발간(격월간)하여 현재 7호를 발간하였다. 태권도지는 스페인내의 사범들의 결속과 정보제공은 물론 스페인 국민과 태권도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아니라 태권도의 품세및 베크닉등을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회장은 바르셀로나 (Barcelona)에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회장의 체육관에서 배출된 유단자 16명중 14명이 태권도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매년 2회씩 친선대회를 개최하여 태권도 저변확대에 심혈을 쏟고 있다. 스페인거주하는 180여명의 사람중 60여명이 바르셀로나에 거주하는 태권도의 도시이다.

이회장이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일은 누구나 부딘히는 언어 장벽이었다고 솔회하며, 보람있는 일은 후배양성의 결실, 각종대회와 시범등으로 태권한국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보람되었다고 말한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스페인 태권도사범의 결속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세계에서 가장 모범된 스페인태권도를 육성하겠다고.....

금번 제 6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단체 2위를 한 스페인은 제 7회 세계대회를 겨냥하여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고 ----.

태국(Thailand)

송기영 사범



태국에서 태권도를 보급하던 김진성사범(현재 미국 라스베이거스 주재)의 후임으로 로알 스포츠 크럼 초청으로 1972년 12월 출국 하였다.

73년 1월 3일부터 크럼씨의 태권도부를 주 3일 지도하며 크럼에서 255 km에 위치한 미(美)공군 비행대에 주 3일 출장지도하는 등, 열심히 뛰었다.

73년 3월에는 영주권을 받았다.

로알 스포츠 크럼은 태국에서 제일가는 스포츠센터로 태국에서는 크럼에 가입하려면 가문(家門), 재력(財力) 등이 우수하여야 가입할 수 있으며 5,000여명이 가입을 하려고 예매권을 받고 대기중이라고 한다. 송사범은 75년 미공군의 철수로 그해부터 태권도전문학교 설립을 준비하여 76년에는 문교부로 부터 설립허가를 득하였으나 현지 여건이 맞지 않아 시작을 못하고 81년도에 5명을 입학시켜서 도장형식이 나마 시작을 하였다.

학생 5명에게는 숙식제공에 도복등 전부를 장학금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 82년 5명을 교육시켜서 교육을 마친 제자들은 보린대차 고등학교, 주라트툼 왕립대학, 람캄펜 사립대학, 카비체육대학, 쟁바이 대학, 본교인 태권도학교 등에서 태권도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송사범은 77년도에 태국태권도협회를 발족 문교부에 사단법인체로 등록을 하였고, 78년부터는 군인과 경찰을 무료로 지도하며 전 태국내에 태권도를 보급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육·해·공군하사관 학교는 새벽 5시 30분~

7시 30분까지 새벽에 군부대에 출장을 나가 지도를 한다. 700여명의 각군 하사관 후보생들은 도복도 구입을 못해 땀스와 런닝셔츠 바람으로 운동장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을 외면할수 없다고 송사범은 말한다.

100여명의 현대식 도장을 갖춘 송사범 그렇게 교묘게 동분서주를 하지 않아도 될만큼 생활 안정이 되었으면서도 군경을 무료로 지도하는 열성은 오직, 태권도인이 아니면 하지 못하리라 이것이 곧 태권도인, 아니 한국인의 긍지와 인내심이라라고 보노이는 칭송이 자자하다.

kick 복싱의 나라 태국—

도전하여오는 수많은 타이복싱인들을 슬기롭게 대처하며 피땀으로 다져진 태국내의 송사범의 인고(忍苦)는 12개소에서 태권도의 우렁찬 기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태국 전체에 태권도가 정착하기 위하여 태권도 학교의 운영을 잘하여 전국 36개 대학에 태권도 교육을 실시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한다. 각 학교 당국에 태권도 교육 실시의 합의를 다 봐 놓고도 실리를 못해 안타까운다고—

태국은 빈부의 차가 심하여 돈 많은 부호나, 사회 등에서 경비, 경호등에의 필요에 인하여 “보디가드” 용역회사가 많아 앞으로 태권도 보급이 잘 되면 태권도를 배운 제자들이 태권도로 취직하는 호경기를 누릴때가 반듯이 오리라는 신념으로 땀흘리고 있는 송사범의 내일에 성원을 우리모두 보내주자.

태국 태권도 협회장 訪韓

Vist to Korea of President of Taekwondo Association Thailand



협회를 방문, 기념촬영

1983년 12월 7일 태국의 태권도협회장 쿠손 이스랑쿨나유다 (Kuson Israngkul Na Ayudhya)가 세계연맹의 김운용총재의 초청으로 방한하였다. 12월 8일 국기원 김총재를 예방하고 9일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한국올림픽조직위, 태권도 협회등을 방문하고 김총재가 베푸는 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를 위한 만찬에 참석하고 13일까지 머무르며 한국을 두루 구경하고 출국을 하였다. 협회방문시, 본기자 인터뷰에서 한국에는 처음왔고, 첫인상의 느낌을 묻는 말에 「친절하고 따뜻한감을 느꼈으며 한국의 겨울이 무척 추운다고 들었는데 춥지않아서 좋다」고 말하며 「김총재의 초청에 감사하며 중주국의 태권도를 배울기회가 있기를 바라며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가 있어서 더욱 의의가 있다」고 말한다. 동석한 엄윤규 부회장이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환율이 내려 태국에서 볼수있는 아름다운 설경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본인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수하였다.

「「킥복싱」의 나라에서 어떻게 태권도협회장을 맡게 되었나?」의 질문에 「한국의 김홍식(태국에 무관으로 파견)씨를 통하여 태권도를 소개 받았고, 태권도의 위력과 동양무도의 신비에 매력을 느꼈던차, 송기원사범을 만나 열심히 태권도수련을 하다 보니 협회장까지 하게 되었다」고 겸허하게 답했다.

그는 태국 국제군인체육회 책임자로서도 태국 사에에 역할이 크다.

태국에는 3,000여명의 태권도 인구가 있으며 군인, 경찰 각대학등에서 서서히 태권도 붐이 조성되고있다.

아직 태권도가 NOC가입이 안되었으나 곧 가입될 것이라한다.

「국가의 예산관계로 한국의 우수한 사범을 초청못함이 안타까웁다」고 말하며, 송기원 사범의 제자중 유단자 30여명을 재교육하여 전국적으로 보급하겠다고 포부를 밝힌다.

그는 75년과 78년에 탁구선수들을 인솔하고 북한을 두차례 방문했었다고 한다. 「북한과 대한민국의 차이점」을 묻자, 그는 「사람들이 웃음이 없고 딱딱한 분위기에속해 늘 감시감독을 하여 행동이 부자연스러웠다」 말하며 「주민들과 사진을 찍자고 하였다가 카메라를 뺏길뿐했고, 사람들이 피하거나, 화를 내는등 친절하지가 않다」고 폐쇄된 분위기를 표현하느냐고 애를 쓰는듯했다.

「「쇼핑」을 하는데도 안내원이 따라와서 상품을 지적해 주었고, 전화 사용도 마음대로 못했기 때문에 아는사람이 있었는데 「메모」만 해서 전했다」고 말하며 「한국은 친절하고 자유로워서 부럽다」고 즐거운 표정이다. 「동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두루관광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는 기자의 말에 「고맙다」는 인사를 연발하였다.

남일체육관

서울서대문구남가좌동154-2

김영작사범



김영작사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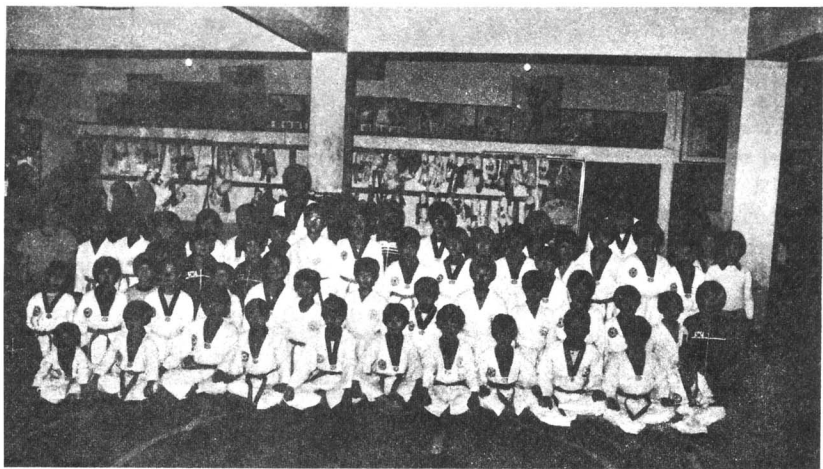
「성실하게 모든 것을 참으면서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는 김영작사범.

그는 1956년에 전북 이리에서 태권도에 입문을 하였고 태권도 덕분에 군생활은 미 7사단에서 태권도 교관으로 운동을 하며 군생활을 마친후 1965년 단신으로 도복 한벌 어깨에 걸머메고 상경하여 10여년의 각고끝에 1974년 말짓가 1억원이 훗가하는 3층 자가건물에 번듯한 체육관을 개설하여 1층은 세 (賃) 를 놓고 2층은 태권도장, 3층은 로라스케이팅장으로 건물을 짜임새 있게 활용하고 있다.

체육관은 6부로 나뉘어 운동을 하고 있다. 유치부 2개부 80명, 국민교부 60명, 성인부 20명 등 160여명이 수련을 한다. 특히 유치부, 국교부 어린이들의 정서교육을 위하여 보육학과, 미술을 전공한 여선생 두분을 채용하여 어린이들의 전인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태권도부원들에게 주 1회씩 롤러스케이팅 강습을 하는 등 체육관 운영에 정성을 쏟고 있다.

김사범은 쿠웨이트에 진출해 1년6개월간 태권도를 지도한 외유 경험도 있으며, 태권도 지도자교육 1기생, 국제심판 1기생으로 세계대회 1,2회 심판원, 전국대회 배심원 등으로 각종대회에 참여하며 특히 국기원 시범분과 위원장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김사범의 일과는 새벽 6시에 일어나 4Km 달리기를 마친 후 냉수마찰, 손날단련, 정권단련





보디빌딩 등으로 아침일과를 시작하여 특별한 일 외에는 외출을 금하고 늘 체육관에서 추레닝과 도복을 일상복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형들은 판장을 늘 보므로 자녀들을 믿고 내보내 체육관에는 늘 130~140명의 관원들로 불황을 모르는 체육관이 되고 있다.

지극히 평범한 법인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인으로 지금도 택시를 타지 않으며, 술은 잘 하지 않으며, 기분이니, 뽀니 등으로 2차는 절대 하지 않는단다. 주위에서 구두쇠이니 노랭이니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타인에게 도움을 주면 주었지 피해는 주지않아, 본인 스스로는 하나도 꺼리낌이 없단다. 지금은 좀 다르지만 9,000원이 생기면 1,000원을 보태어 10,000원을 은행에 저금하였다며 소액으로 은행창구를 찾을때 미안하기도 했으며 회상한다.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법들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허영과 사치를 즐기며 푼돈으로 입금되는 회비라 주머니 넣고 있으면 쓰게 되어 절약하는

습관이 부족한 것 같다며 무도인의 긍지를 살려 운동을 배울때처럼 도복을 입고 땀흘리기를 김사범은 갈망하고 있다.

태권도가 신앙이자 생활인 김사범은 어려운 일, 율화통 치미는 일이 있어도 도장에 나가 땀을 두들기며 태권도 수련으로 극기하며 견디어 왔으며, 모든 일선도장 사범의 생활이 안정되기를 바란다며 안타까워 한다. 또한 태권도 성인인구가 경기선수밖에 없는 실정은 무도 태권도로서는 매우 걱정스러운 조짐으로 우리 일선지도자만이라도 도복을 입고 땀흘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일찍 도복을 벗는 태권도 지도자들을 나무라는 듯 말한다.

지금도 김영작사범은 붉은 벽돌 2매 정도는 거뜬히 손날격파를 할 수 있다.

성인시범단의 부활과 연무시범 등으로 성인 태권도 인구 저변확대에 전력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김사범의 자세에 동감하며 체육관을 나서는 기자는 마음 든든하였다.

등촌종합체육관

서울 강서구 등촌동 502-16
전 창식 사범



전 창식 사범

65년 10월 체육관을 개설 18년동안 태권도와 생활해 온 전 창식 사범은 근검·절약의 생활을 바탕으로 열심히 저축하고 땀흘려 수련한 결실을 1983년 10월 5일 결실을 건우었다. 그 결실은 시설가 3억원을 웃도는 170여명의 종합 예체능 학원으로 체육관 55명, 유치원 55명, 미술학원 30명, 주산학원 20명의 태권도 사범이 아닌 종합예체능원 원장으로 발돋움하였다.

13명의 직원들의 생계를 보장하여야 하는 원장으로써의 생활신조는 근검, 절약의 생활철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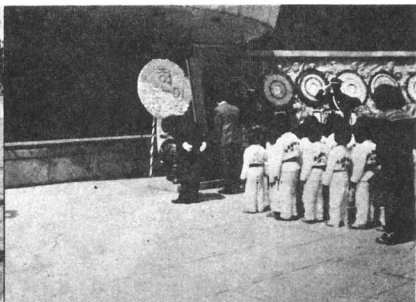
표시라도 하듯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착실함 뒤에는 부인 김정선여사의 내조가 컸다는 후문이 있다.

전창식 사범은 늘 어린 관원들에게

1. 거짓말을 절대 하지 말자
2. 친구가 자기를 찾아오도록 늘 마음의 문을 열어놓자
3.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어린이가 되자
4. 지각이나 조퇴는 하더라도 체육관 결석은 하지말자"의 비가지를 철저히 지도하며 전사범의 뜻을 따라 김귀현·고춘석 태권도교사가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다.

현재 등촌체육관에는 태권도 수련생 130명, 유치원아 50명, 주산 20명 미술 40명 등 240





여명의 관원이 12명의 지도교사하에 열심히 배우고 있다.

전창식 사범은 국기원 심사분과 부위원장, 서울시협회 강서구 대의원, 태권도 강서지구 회장 등의 태권도 관계의 활동도 크며 지역사회에서는 민정당 8지구당 체육분과 부위원장, 강서경찰서 청소년 선도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전사범은 등촌종합체육관 외에도 68년도에는 화곡체육관을 운영하였고, 71년도에는 강서태권도장 운영 등으로 20여년간 배출된 관원 9,000여명에 유단, 유품자수가 3,500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1965년부터 1972년까지는 성인 태권도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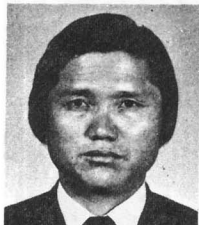
150~260여명까지 수련을 하였다고 10여년전을 회고하면서 태권도 수련생의 연령저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그리고 태권도복이 개조되어 공인된 도복의 불편스러움을 지적하며 “예의로 시작해서 예의로 끝맺는 무도 도복을 뒤집어 쓰는듯 입고 벗는 자체부터 좀 이상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다시 고려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또 체육관 난립의 문제도 규제책이나 보장책이 확실하였으면 좋겠다고……

년 2회의 야외수련회를 가지며 현충일에는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하는 등 전인교육에도 게으름이 없는 등촌종합체육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해 본다.

신라체육관

서울 강동구 거여동 185-1

김 정 기 사범



김 정 기사범

「약한 자를 도움
고 정의로운 일에 앞
장서는 태권도인이
되자」를 관훈으로
태권도 입문한지 25
년 되는 김사범은 특
전사 근무시 태권도
교관요원으로 대민
봉사의 일환으로 철

거민촌인 거여동에 서 체육관을 개설하였다. 이 지역은 영세민촌으로 태권도를 하고싶어도 도장이 없어 못하던 차에 김사범의 체육관 개설은 거여동 어련이에게 좋은 여건이 되었다. 이름도 신라체육관으로 명명하여 삼국통일의 위업을 실행시켜 판장지도방침도 기술보다는 정신을 앞세운 전인교육을 목적으로 수련을 시키며 청소년 선도 및 사회정화운동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약자를 도움고 정의롭게 살자를 관훈을 수련시마다



강조하고 있다.

특기할 사항으로는 자모회의 활동이 활발하다. 회장 이정립 여사 부회장 문진희 여사, 지도위원 구정순 여사를 중심으로 한마음 친목회를 결속하여 부형간의 유대는 물론 태권도 저변확대와 어린이 각종대회 (전국대회, 서울시대회, 지역 대회 등) 때는 선수들의 중식을 단체로 준비하는 등 체육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신라체육관 출신의 유단자 모임인 청무회에서는 김형두 (3단, 다일산업주식회사 대표) 씨를 중심으로 매년 관원중 중학생 3명을 선발하여 수업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어 후진 육성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본관에 5년이상 수련하며 모범이 되고 있는

관원은 최의립 (3품, 영동국교 5년) 김도연 (3품, 거여국교 5년) 이호영 (2품, 마천국교 6년) 김창배 (2품, 강동중 2년) 유길영 (2품, 영동국교 4년) 등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모범생들이라고 김사범은 말하고 있다.

박영석 (2품, 강동중학 1년) 군은 82년도 서울시 태권도협회에서 우수선수로 체육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며 체육관의 모범생은 물론 교내의 학업성적도 우등생이라고 자모회장은 칭찬하고 있다.

김사범은 서울시 태권도협회 경기분과 위원장이며 지역에서는 새마을지도자, 염풍국민학교 육성회 이사, 마을금고 이사 등으로 지역 사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영등포 본관체육관

서울 영등포구 신길 3동233-1

심 재익 사범



심 재익 사범

체육관 개관 28주년.
28년간 본관을 거쳐간 관
원이 36,300여명, 성인유
단자 약 2,900명 배출, 배
출된 사범 90여명 등, 역
사에 버금가게, 수련생도 많
다. 본 체육관을 거쳐간 사
범으로 외국에 진출한 사
범중 미국: 강명규, 이종환

유병용, 안영원, 설영환, 신승의, 정성, 유육자
유병홍, 방찬우, 노운영, 이풍영, 김주훈, 강운
구, 방찬모, 최단규 사범등 (16명). 일본: 오
충고, 사우디아라비아: 서현, 이범걸, 대만: 민
순기, 에콰도르: 서광진, 김인규, 아르헨틴: 구
영채, 캐나다: 장동선, 김지주 등 해외에 25 명
이 진출해 세계속에 태권도를 보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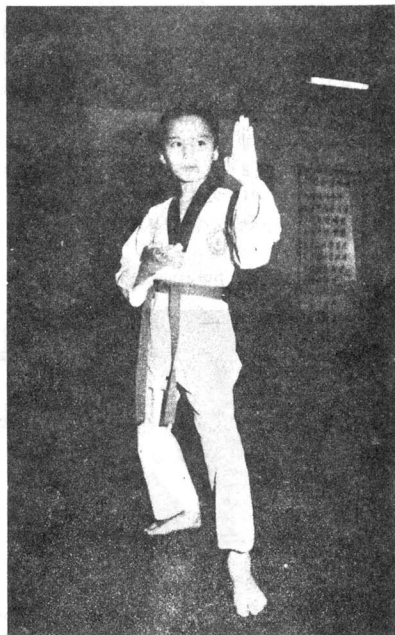
1971년 본관에 제 8대 사범으로 체육관을 인
수한 심재익 사범은 체육관을 맡은 후 7년간은
주위의 친구, 친척 등을 아예 단교하다시피 하며
오직 체육관에서 태권도를 종교로, 생활로 일관
하였다. 7여년의 각고로 땀을 돈을 번듯한 내
소유의 체육관을 마련할 부지를 마련해놓고 다시
5년간 영등포 본관 도장과 현무체육관 등을 운
영하며 착실하게 저축하여 81년에는 영등포구
신길 5동 400-2번지에 140여평의 3층 건물을
지어 1층에는 상가로 세를 놓고 2층에는 45평
의 체육관, 3층은 사택으로 여유있는 빌딩주인
이 되었다. 심사범은 지금도 영등포본관도장 (지
도사범 전태조), 현무체육관 (지도사범 박종수)
새 건물의 익산체육관 (지도사범 박종수) 등 3
개소의 체육관을 운영하며 수련생 300 여명에게
일일이 관심을 두며 열심히 뛰고 있다.

심재익 사범은 1971년도에 유치부 태권도부를
처음 시작하여 성공을 하였다고 회고하며 지금은

각 체육관에 유치부가 성황이라며 유치부 창시자
같은 기분이란다.

익산체육관에는 어린이 스타가 태권도를 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K.B.S.TV의 보통사람들
보배역 (아역) 에 출연중인 김시연양 (도립국민
학교 5학년 7반) 김지연양에게 태권도를 하게된
이유를 묻자

1. 남자애들이 짓고 귀찮게 (못살게) 굴면
혼내줄려구 시작을 했으나 운동을 해보니 건강해





저서 밥도 잘먹고 다리운동이 잘 되어서 뛰거나 오래 섰으면 다리가 아팠는데 이제 조금밖에 아프지가 않아졌고

2. T.V나 영화에 운동에 관한 역이 주어져도 이제 거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신이 생겼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태권도를 하겠다고 하니까 보내주셨지만 여학생이라서 좀은 부끄러웠

으나 체육관의 오빠들이 잘 대해 주어서 이제는 재미있고 이제 4개월 되었지만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어른스럽게 말한다. 김지현양은 5학년 1학기에는 반장을 하였고 성적도 반에서 1~2등을 하고 있다고 심재익 사범은 말한다. T.V 보통사람들 프로에서 보배의 태권도썸씨를 볼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천재(天才)는 99퍼센트의 땀과 1%의 영감(靈感)으로 구성된다.

〈에 디슨〉

발명왕 에디슨의 말이다. 그는 인류의 은인(恩人)이요, 현대문명의 어머니다. 현대문명에서 에디슨의 발명을 모두 제거해 보라. 암흑(暗黒)으로 돌아갈 것이다.

전기가 없다면, 축음기가 없다면, 영화가 없다면, 전신기가 없다면 현대의 문명과 사회는 어두워질 것이다. 그는 일생동안에 一, 三〇〇종의 특허를 얻었다. 세계의 각국 교과서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에디슨이다. 그는 미국의 많은 부(富)를 축적했고 인류에 한없는 문명의 혜택을 주었다.

우리는 에디슨을 발명의 천재라고 일컫는다. 그의 천재는 어디서 생겼는가. 99퍼센트의 땀과 1퍼센트의 영감(靈感)에서 나왔다고 스스로 말하였다. 땀을 영어로 퍼스피레이션(perspiration)이라고 하고, 영감을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한다. 두 단어의 말미(末尾)인 spiration은 같다. 영감은 땀의 산물이요 노력의 결정이다. 나티에서 영감의 빛은 쫓지 않는다. 땀의 발에서 영감의 샘이 솟는다. 천재는 땀의 산물이다.

“언제나 일하여라” 이것이 에디슨의 생활신조(生活信條)였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나의 인생철학은 일하는 것이다. 우주(宇宙)의 신비(神秘)를 탐구하여 그것을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응용하는 것이다.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그 이상의 봉사의 방법을 나는 모른다.」

그는 젊은 이들에게 시계를 보지 말라는 제명(誡命)을 남겼다. 퇴근시간만 기다리면서 시계만 들여다 보는 젊은이가 되지 말라는 것이다. 인생은 먹고 마시고 노는 향락(享樂)의 놀이터가 아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고 생산하는 창조(創造)의 일터다.

땀이 천재를 낳는다. 천재는 노력(努力)의 아들이다. 나는 에디슨의 말을 모든 한국인에게 보내고 싶다.

에디슨(Edison, Thomas, Alva)

미국의 발명가 오하이오(Ohio)주 출생. 학교교육은 3개월 만했을 뿐이다. 12세 때 신문팔이가 되고, 낡은 인쇄기를 사서 세계 최초의 차내(車內) 신문을 발행했으며, 미시간(Michigan) 주의 한 역장에서서 전신(電信) 기술을 배워 전신기술(技手)로서 미국·캐나다 각지에 근무(1861-68)하는 중에 자동중계기를 발명하였다. 보스턴의 웨스턴 유니온(Western Union) 전신국에 근무하며 1871년 투표기록기·인쇄전신기를 발명, 1872년 2중전신기, 4중·6중 전신기를 완성하고, 연구소를 뉴저지(New Jersey)주에 세웠다. 이어벨(A.G. Bell)의 전화기에서 암시탄소 송화기·확성기·축음기를 발명하였다. 1878년 대(竹)로 백열 전구를 완성, 1880년에는 전기동력의 사용에 성공하고 전자를 실험하였다. 그후 1885년에는 장거리 무선전신의 특허를 얻었고, 달리는 열차와의 무선전신을 실험하였다. 1889년에는 유럽에 여행하여, 한때 광산·시멘트 공장에도 관계하였었다. 1893년에는 활동사진기를 발명, 1900년에는 에디슨 축전지라는 알칼리(alkali) 축전기와 토키의 선구인 키네토폰(Kinetophone: 發聲映畵)을 발명하였다. 민간사업에서 은퇴한 후 제1차 대전 중에는 해군성 고문이 되고, 만년에는 인조(人造) 고문연구에 몰두하였다. 일생 동안에 얻은 특허는 1,300종 이상이 되며, 실로 세계적 발명왕으로 인류에 공헌한 바 크다.

본회 김운용 회장

올림픽 승인 국제 경기연맹 연합회 회장으로 피명



IOC는 이번에 올림픽경기 종목인 하계 및 동계 올림픽 국제경기 연합회에 추가하여 IOC "승인 국제경기연맹연합회" (the Association of IOC Recognized IFS) 조직체를 IOC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이 국제경기연맹의 집합체에 한국출신의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김운용 씨를 임명하였다.

IOC 위원장 Juan Antonio Samaranch 씨는 1983년 12월 5일 국제전보를 통해서 "지난주 IOC 집행위원회가 IOC 승인 경기연맹연합회를 공식단체로 승인하였음을 귀하에게 통보하며 정식 승인서를 발송하겠음" 이라고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김운용 씨에게 전하여 왔다.

이는 올림픽 경기단체의 연합회로서 아래와 같이 조직되어 있다.

1. 하계 올림픽 국제경기연맹 연합회: 회원 - 23개 국제연맹

연합회회장: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 Primo Nebiolo (이태리)

2. 동계 올림픽 국제경기연맹 연합회: 회원 - 5개 국제연맹

연합회회장: 국제스키연맹 회장 Marc Hodler (스위스) * IOC 위원

3. 올림픽 승인 국제경기연맹 연합회: 회원 - 8개 국제연맹

연합회회장: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김운용 (한국)

이번에 김운용 총재가 회장으로서 활동하게 될 올림픽 승인 국제경기연맹 연합회는 아래와 같은 8개 국제연맹이다.

The International Badminton Federation (IBF): 베드민턴 연맹

회장: Craig C. Reedie (영국)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mateur Baseball (IAINBA): 야구 연맹

회장: Robert E. Smith

International Orienteering Federation (IOF): 오리엔티어링 연맹

회장: Benqt Saltin (덴마크)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Quilleurs (FIQ): 볼링 연맹

회장: Frank K. Baker (미국)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Roller Skating (FIRS): 로라스케이팅 연맹

회장: Van Roekel (미국)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Softball (FIS): 소프트볼 연맹

회장: W. W. Kethan (미국)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WTF): 태권도 연맹

회장: Un Yong Kim (한국)

Union Mondiale de Ski Nautique (UMSN): 수상스키 연맹

회장: J. J. Finsterwald (스위스)



CITIUS · ALTIUS · FORTIUS

COMITE INTERNATIONAL OLYMPIQUE

CHÂTEAU DE VIDY, 1007 LAUSANNE, SUISSE

LE PRÉSIDENT

Mr. Un Yong KIM
President
Association of IOC Recognised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s
San 76
Yuksam-Dong
Kangnam-Ku

SEOUL / Korea

Lausanne, 1st December 1983
Ref. No. 11713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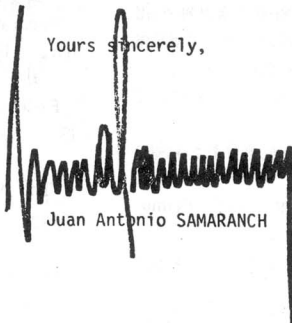
Re: IOC Recognition

Dear Mr. Kim,

Further to my cable of today, I should like to confirm that the Executive Board of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meeting in Lausanne last week has granted your organisation IOC recognition as the "Association of IOC Recognised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s".

May I take this opportunity to send you my best wishes for a successful mandate as President and to look forward to our future collaboration together.

Yours sincerely,



Juan Antonio SAMARANCH

국기원을 방문한 손님(1983년도)

(The Visitor's of Kukkiwon)

일 자	방 문 객 및 시 벌 대 회 명	인 원	비 고
83. 2. 7	Nigeria 대통령 경호실장 Francis Karieren Nigeria 대통령 경호실 훈련부장 J. Okwuonu 경호팀장 A. Mbamo	3명	미동국교 성인대표
83. 2.10	World Games 위원 일본-Sakazaki 영국-Patric Nally	2명	미동국교 한국체대
83. 3. 4	USO (United Service Organization : 미연합봉사기구) 주최 : 유엔군 사령부 미국 한국 및 여군 유공장병 ※ 체육부 李永鎬 차관 참석	151명	미동국교
83. 3.11	李源京 體育部長官 李柱養 體育振興局長, 吳志哲海外協力課長	4명	미동국교
83. 3.30.	미국 IOC 위원 Mr. Julian K. Roorevelt 부처	2	미동국교 한국체대
83. 4. 2	국제아이스하키 (IIHF) 회장 Gvnther Sabetzki (서독인)	1명	미동국교 한국체대
83. 4. 9	○ 아시아태권도연맹 임시총회 참석 11개국 대표(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요르단, 자유중국, 필리핀, 마카오, 홍콩)	20명 55명	미동국교 한국체대
83. 4.20	Canada IOC 위원 James Warrall	1	미동국교 동성국교
83. 4.13	○ 국제역도연맹(사무총장겸 GAIST 집행위원 (헝가리인) ○ 체육부차관, 대한역도연맹회장	3	신도립국교
83. 5.10	국제스포츠기자연맹 사무총장 (S.G. Alps : 이태리인) Massimo Della Pergola 부처	2	미동국교 한국체대
83. 5.18	JOC 위원 famaguchi Hisada Anzai Minoru 방문	2	
83. 5.19	국제 근대 5종 경기연맹회장 Sven Thotelt (스웨덴인) 부처	2	신도립국교 한국체대
83. 5.24	아시아 수영연맹부회장 겸 인도수영연맹 회장 D.C. Jain 에파돌 NOC 위원장 Savino Hernandez 부처	3	미동국교 한국체대
83. 6.21	○ Fiji 태권도협회장 Raman Lal Vasram Fiji 태권도협회장 D. Paskash		

	○ 인도네시아 태권도협회장 겸 경찰총장(육군준장) Antoin Sudjarwo 인도네시아 태권도 기술위원장 Makmur Leo 인도네시아 태권도 기술위원 Lin Nam Kiong ○ 파라과이 NOC 위원장 Dr. Adriano Jara Carmona 파라과이 NOC 사무총장 Dr. Carlos Alberto Mojoli Vargas ○ 이원경체육부장관 참석 (제 18회 대통령배 생탈전관전)	7 1	미동국교 한국체대 미동국교 한국체대
83. 6.30	파키스탄 체육회 사무총장 Brig. Abdul Hamid	1	미동국교 한국체대
83. 7. 6	미국 NOC 부회장 Dr. Evie G. Dennis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대 교수 William Manning 미국 태권도협회 회장 양동자교수	3	신도립국교 한국체대
83. 8.20	파키스탄 문화 체육 관광성차관 Mr. Masud Nadi Noor 부처	1	신도립국교
83. 8.29	노르웨이 IOC 위원 Jan Staubo E.	1	
83. 8.30	○ 가봉국 대외 무역센터사장 M. A. L. Teal E. 부처 가봉국 파견 상품장관 고문 Michel Ntchorera ○ 필리핀 태권도협회 부회장 N. Aventajado 필리핀 NOC 위원장 Michael M. Keon ○ 필리핀 스포츠기자협회장 Tony Abad	6	미동국교 한국체대
83. 9. 5	국제야구연맹 회장(미국인) Dr. Rebert E. Smith	1	신도립국교 한국체대
83. 9. 7	가봉 NOC 위원장겸 국립청소년 스포츠연구소장 Hon. Emmanuel Kingbo	1	신도립국교 한국체대
83. 9. 8	○ 세네갈 NOC 부위원장 겸 국회의원 Hon. Lamine Diack 세네갈 '다카르'대 문리대학장 Hon. Mohamadon Kane ○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임원 Mr. Rudolf Killias 부처 (스위스인)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임원 Mr. Josef Kompalla (서독인) ○ 대한 아이스하키연맹 박갑철이사	6	신도립국교 한국체대
83. 9.25	○ CA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H. E. Sheikh Fahid 평의회장 겸 IOC위원 (쿠웨이트인) Hon. Sharad Chandra Shaha 평의회부회장 부처(네팔인) 외 회장수행원(쿠웨이트인) 7명 최만립 KOC 부위원장, 이종하 대한태권도협회이사	11	미동국교 한국체대
83. 9.27	Finland IOC 위원이며 국제요트연맹 부회장인 Hon. Peter Tallberg		미동국교
83.11.18	노르웨이 IOC 위원 Jan Staubo 방문		
83.11.28	국제 수영연맹회장 Ante Lambasa (유고인) 방문 환영시범		한국체대
83.12.12	미국인, 세계정상의 정치만화가 Lanan R. Lune 방문 ※ 시범은 삼성종합체육관에서		미동국교 한국체대

월드 게임의 회장

본회 김운용회장 런던 기자회견



타임스紙와 가디언紙 등에서는 85년도에 개최될 월드게임(world game)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중 1983.10.18 일자의 타임스紙에 소개된 글을 게재한다.

타임즈.

“비종목 경기 활기를 띄우다”

새로운 스포츠와 새로운 종교는 배우는 사람에게는 별로 다름이 없다. 그래서 대중에게 받아들이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24개의 비종목 경기는 활기를 띄고 있다. 그들은 1985년 런던에서 열릴 최초의 월드게임에서 선보인다.

현재 이 비경기종목 올림픽은 웰블리 컴플렉스나 크리스탈 팰리스, 내쇼날 스포츠센타, 윌블던 스피드 웨이 스타디움 등, 기존시설에서 로러스케이팅, 수상스키, 보디빌딩과 소프트볼등을 개최한다.

런던은 세계 65개국에서 1800여명이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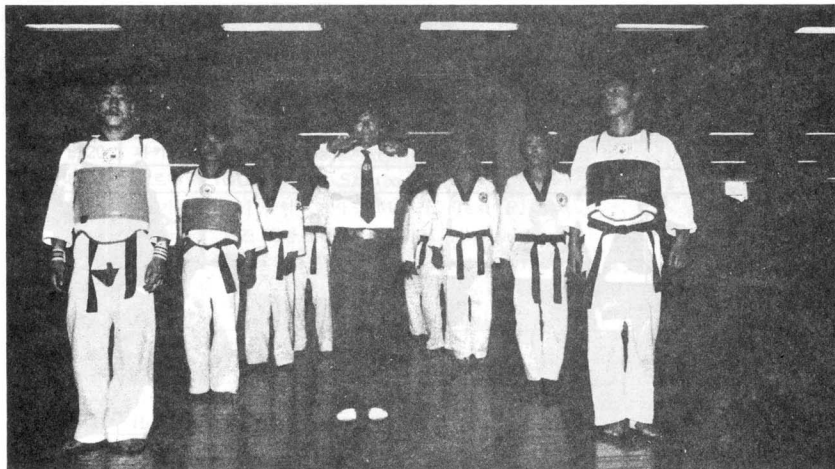
24일~8월4일 사이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림픽의 제한이 완화된 것이다.

월드게임 위원회의 김운용박사는 어제 런던의 기자회견에서 아마추어와 프로의 구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4개의 종목중에서 speed way만이 후자(프로)에 속한다). 아마추어와 프로페셔널의 구별이 없으며 한 국가당 참가선수의 숫자도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세계의 상위권이라면 그들도 참가해야 한다. 몇몇 스포츠는 영국관중들에게 낯설을지도 모른다. 독자께서는 Faustball 경기 계약에 싸인 하시겠습니까? Casting 경기의 팀은 어떻게 선발됩니까? 그러나 다른 나라에 일고있는 흥미 때문에 마켓 오거나이저 웨스트 벨리사에 따르면 경기를 치르기 위한 2백만파운드 모금액의 3/4이 걸렸으며 T.V계약이 맺어졌다고 한다.

※ 태권도를 포함한 24개 종목이다.



제38주년 전국 경찰 무도대회



10월 21일 부평에 있는 경찰종합학교 체육관에서 제 38 주년 경찰의 날 기념 전국경찰 무도대회가 열렸다.

경찰 무도대회는 전국경찰의 무도 유단화 및 사기양양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국기 태권도는 경찰내부에 널리 보급함에 있어 그 진가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전국경찰 무도대회는 전국 13개 시도 선수들이 단체전 및 개인전에 출전하여 각자 자기의 명예를 걸고 기량을 발휘하였다. 단체전에서는 서울시 경찰국이 전년도 우승에 이어 올해도 우승하여 3연패 영광을 안았다.

서울시 경찰국 태권도 대표팀은 李澤明 시경찰국 사범 지도아래 약 3개월동안 이번 대회를 앞두고 합동 및 합숙훈련을 통하여 각자의 장단점 파악과 기량을 연마함은 물론 지구력에 역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시경 대표선수들은 경찰에 투신하기 전에도 각종 대회에서 입상경력이 많은 선수들로 팀이 구성되어 전력면에서도 다른 시도 못지않게 막강한 팀으로 이루어졌다.

경기 내용으로는 단체전에서 서울과 제주도의 첫 경기였다. 이 경기에서 서울은 제주도를 3:0으로 이기고 2회전에 진출하여 약체 경북을 3:0으로 이기고 준결승에서 전북팀을 역시 3:0으로 이기고 대망의 결승전에 진출하였다. 결승전에는 경기도팀이 결승에 올라 서울과 우승을 놓고 다투게 되었다.

결승에는 강호 경기도를 맞이하여 3:1로 승리를 하여 3연패의 영광을 안았다. 3연패 영광이 있기까지는 李澤明 사범의 지도력과 선배님들의 뒷바라지에 힘입어 3연패 영광은 당연히 서울시 경찰국팀에 온 것이었다.

개인전에는 단체전과 똑같이 13개 시도에서



각팀 2명씩 출전하여
1위는 서울에 강선만(청
량리 형사제) 2위 전북
강택수, 3위는 경찰종합
학교의 서정두가 입상하
여 1개급 특특진의 영광
을 안았다.

요번 대회에 출전하였
던 서울시경찰국 선수는
아래와 같다.

감독 : 李澤明

선수 : 이성호 김종도 박
병철

선수 : 최정신 조한곤 오
유열 최연수 이철
회 강성만 김경섭
원집조 박형철

국제사범 강습회 실시

김 순 배

국기원기술심의회의장

세계연맹에서는 제 6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기해 1. 지도자양성, 2. 해외승단 심사요원 확보 3. 고단자 전문요원양성을 목적으로 83년 10월 9일~14일까지 6일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실시하였다.

참가신청 33명중 20명이 참가하였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강습회수료증을 교부하였고 공인 4

관 이상자 6명에게는 국제 사범 자격증을 수여하였다. 또한 3단으로 연한이 찬 유단자들에게는 강습회 수료식에서 4단을 수여하였다. 이들은 세계연맹소개, 심사규정, 심판규정, 품제(태극 1장-8장, 고려, 금강, 태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태권도의 기본용어인 한국어 교사를 실시하는등 알차게 교육을 마쳤다.

“영예의 체육훈장”

체육부에서는 82년 12월 9일 싱가포르에서 거행한 제 5회 아시아 태권도선수권 대회에서 5연패의 위업을 남긴 태권도 선수와 임원에게 “기린장”과 대통령 포장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였

또한 이자리에서 임원 선수천원에게 김운용협회장의 표창패도 함께 수여되었다.

포상자와 표창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체육훈장 기린장 포상자

조영수(단장:평통 자문위원,현대자동차학원 회장)

박명수(감독:기술실의회부의장) 박창덕(코치

:영등포고교교사) 남삼덕(트레이너:성동삼업

교사) 최천(선수(편급):동성고·3년) 한재구(선수(라이트급)청주대 3년) 문종국(선수(L-헤비급)한체대·2년) 장승화(선수(헤비급)한국스포즈)

대통령 포장

곽동수(선수(웰터급)경희대·3년)

대통령 표창

권기문(선수(플라이급)한체대 1년) 김종기(선수(밴터급)동아대·3년) 장병삼(선수(페터급)경희대·1년) 오일남(선수(L-미들급)대구대

4년) 이동준(선수(미들급)청주은행)



제38기 지도자교육참관

Jan Staubo IOC 위원 격려사

국제 올림픽 으로부터의 인사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이 세계에는 무수히 많은 스포츠들이 있으며 끊임없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오늘날처럼 이 지구상에 스포츠가 많이 보급되어 있고 또 인기를 끌고 있는 때도 없었습니다.

현재 올림픽 종목 스포츠는 23개 입니다. 그리고 8개 종목의 스포츠가 IOC 승인을 받았으며 그중 하나가 태권도입니다. 본인이 처음 국기원을 방문할 때 부터 태권도는 이미 훌륭하게 발전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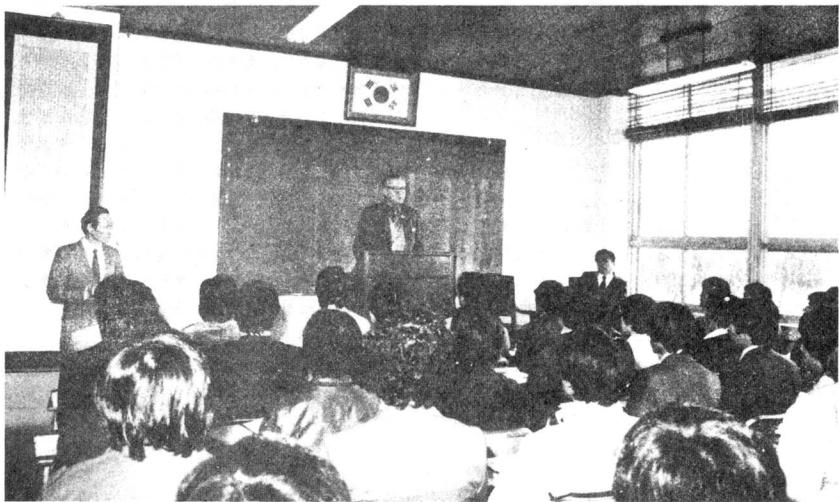
얼마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세계 태권도 대회에도 참관했습니다만 정말 훌륭한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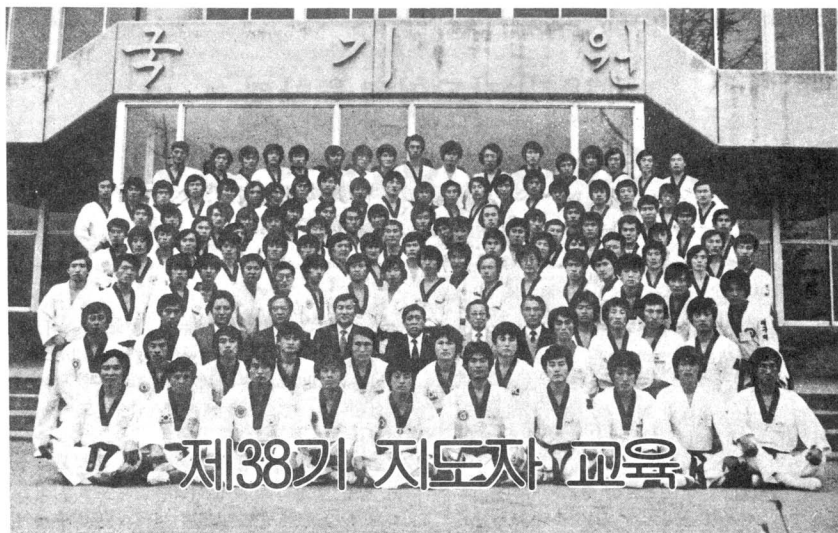
회였습니다. 코펜하겐에서는 다른 스포츠의 대회도 많이 개최된 도시입니다만 이번 태권도대회만큼 성대하고 또 인기를 끈 대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태권도 발전을 위해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전을 거듭되고 있는 태권도에 직접 종사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아울러 태권도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계신 김운용총재께도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 내용은 국기원을 방문하였을 때, 지도자 교육장에서 한 연설임)





국기원 아카데미 교육원에서는 1983.11.9 ~ 19 (11일간) 까지 제 38기 지도자교육을 실시하였다. 교과목수 : 30 과목 강의시간 : 74 시간 강사 19명(대외강사 10명, 대내 9명)으로 수강신청 134 명에 교사용시 125명이 응시 하였으며 결격자 10 명으로 124 명이 수료하였다.

특기사항으로는 38기지도자교육은 수강응시자들에게 사전에 품세 전형을 실시하여 사범들에게 실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지도자교육을 마치고 사범자격증을 취득한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면수, 강명수, 김재영, 이대동, 안정희, 김춘호, 이기복, 김진수, 용영록, 박선우, 전한태, 김용주, 김정록, 정준교, 조남수, 김창섭, 이덕배, 이선복, 박효남, 손상호, 고성호, 유석찬, 이윤재, 심철구, 이승필, 신동수, 정승철, 박동오, 박인록, 박세구,

서경석, 박세권, 최상운, 임용목, 유명호, 김홍삼, 권혁중, 설동엽, 박수견, 박세엽, 박찬덕, 고기판, 이효섭, 유인철, 정운섭, 이문형, 염상진, 윤경희, 이문우, 정창호, 이중화, 오현철, 이봉합, 신창은, 홍경표, 김경팔, 최 영, 전양주, 박충섭, 신동무, 김병숙, 고동성, 조국현, 문재일, 김대수, 권영훈, 최춘식, 박중근, 정성교, 이명복, 강형구, 김복수, 이상민, 김영근, 안기동, 심상근, 정정환, 원제용, 마상현, 송석중, 김 진, 이재설, 김 호, 권오배, 이성기, 최중철, 배성창, 이상복, 김천호, 여성진, 서재천, 박춘식, 김학진, 홍성숙, 권오근, 박인춘, 정동진, 윤기섭, 이홍수, 전종삼, 임혜성, 이현빈, 최성학, 강일수, 선석령, 박현수, 윤성수, 강천석, 임영대, 김판수, 이영대, 양동언, 최철영, 김동훈, 박병수, 이병철, 안경환, 정주형, 김덕철



제39기 태권도 지도자 교육

국기원 아카데미 교육원에서는 83년 11월23일 ~ 12월 3일 제 39기 지도자교육을 실시하였다.

금번 실시한 39기교육은 학력제안을 두지 않았던 반면에 수강자격고사와 품세실기심사를 실시하여 선발하였다.

이수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육규환, 문성삼, 박현장, 박현욱, 공영목, 강병권, 김동일, 이승호, 김영복, 한희택, 이강영, 김현수, 안상노, 이태훈, 김진식, 조인숙, 서창원, 이상기, 김덕근, 정철훈, 유영은, 조연중, 박부광, 조성호, 송병기, 권태진, 이상덕, 강용수, 윤종호, 모경권, 김준현, 안효준, 김원석, 한성기, 윤용근, 김종진, 김철민, 심재천, 안재윤, 김용호, 변중수, 김임식, 이은조, 성백근, 송병각, 유재훈, 임희용, 주광철, 김경곤, 전문국, 최원규, 정태경, 전용옥, 허갑철, 고재만,

백철성, 백희열, 엄영섭, 노장수, 국승철, 이창배, 최덕인, 안용규, 김승환, 김장운, 신종명, 이재현, 김병윤, 이민수, 정천수, 안철균, 전범석, 김준택, 박형규, 이종호, 김진환, 이상식, 강순원, 임현순, 장화돈, 이동식, 김순덕, 김태선, 김형기, 김민수, 조서현, 조천섭, 김성봉, 임용진, 김인규, 김종열, 박병준, 신연호, 김종진, 박문규, 김희삼, 김준호, 정중기, 하길중, 김 면, 강기곤, 오정주, 정대식, 문석근, 강철수, 박유서, 서상수, 우형근, 김홍근, 고웅기, 이근섭, 황인식, 설완석, 김수한, 박주태, 황현섭, 김진열, 한복동, 신길섭, 오홍록, 장국윤, 이명영, 이대홍, 백청남, 오공천, 정한수,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 인가

(International. T. K. D. Acade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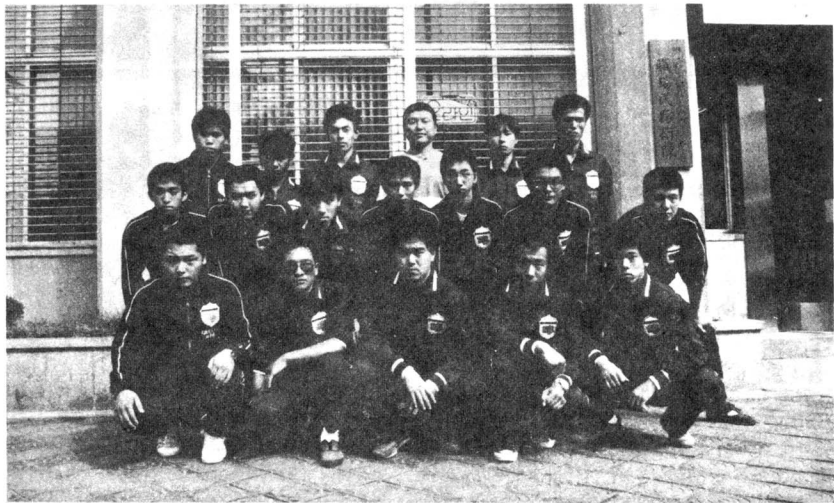
국기원의 태권도 교육원에서는 83년 4월 12일 (국기원 83-78)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 설치 신청을 체육부에 제출하였던바 83년 11월 29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 2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태권도 교육원을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으로 자정하는 공문이 하달 되었다. 이에 따라 국기원 태권도 연수원에서는 年 2회 200명 限度로 4월과 10월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연수시는 120 시간 이상으로 하게 된

다.

현재까지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3급으로 간주하고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을 체육부장관 명의의 자격증을 2급~1급으로 수여하는 제도로 추진중에 있다.

체육회 산하 33개 경기 단체 중에서 태권도만 한국체육대학에서 연수하는 코치 아카데미의分院(分院)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大阪 産業大學 體育會 跆拳道部 來韓



재일동포 2세인 康사범은 태권도가 日本에 상륙하기 전에는 拳法(일본에 200萬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운동으로 지르고, 찌고, 잡아넘기고, 넘어진 상대를 공격하는 손, 발의 사용이 7 : 3으로 상반신을 이용하는 격기운동) 수련을 한 권법인이 었으나 1962년 한국에서 협회가 자리를 굳혀 나아갈 때와 같이 태권도를 시작하여 20여년간 태권도 보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康사범은 태권도의 종주국인 한국을 소개하고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大阪大學跆拳道部 회원 17명을 인솔하고 83년 9월 26일~10월 2일(6박 7일)까지 서울 무교동 서린호텔에 유하

며, 유도대학, 한국체육대학에서 친선수련을하였고, 마침 전국체전 서울대표 선수들이 훈련중인 국가원에서의 합동수련은 그들에게 더 없는 좋은 기회였다.

主將 : 久田松 功利(FUJIMOTO KEIZO)는 大阪大學四年生으로, 현 태권도 초단으로 3년간 태권도 수련을 하였다고 한다. 고교시절에는 拳法을 하였고 대학입학후 태권도를 처음 보았으며 태권도의 각종 효기에 매력을 느껴서 시작을 하게 됐다고 말한다.

가난하고 미개하여 음식을 먹지 못할까봐 한국에 오기전에 인스탄트식품을 준비하였다고 강사범은 귀띔한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에 와 보니



국기원을 방문한 부원들을 격려하는 김총재

일본과 차이가 없고 거리는 깨끗하고 높은 빌딩이 많고 한국 사람들이 모두 친절하여 방한전의 생각과는 180도 다르게 되었다고 말한다. 일본과 아주 가까울고 비슷한 점이 많은 좋은 나라라고 수련생들은 말한다.

副主將 : 藤本 恵三 (KUDAMATSU NARUTOSH)는 大阪大學參年生으로 고등학교때 부터 대학에 진학하면 어떤 운동이든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마침 본 대학에 태권도부가 있어 시작하였고 해외진출도 가능하고, 매력적인 운동이라 시작하였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동작의 원칙에 준하여 형식을 중히 여기는데 한국의 태권도는 도복도 자유스럽게 입고 동작이 자유스럽고 스피드가 있으며, 체급별 수련은 매우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기원(중앙도장)”에 구두를 신고 출입을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고 말하며, 사제시간에의 예의는 자유스럽(?)게 보인다고 좋게(?) 표현하느냐구 애쓰는 모습에는 본지자는 송구스러움을 느꼈다. 또한 이들은 집에서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이면, 한국에 올 수 있는 가까

운 나라로, 기회를 다시 만들어 한국에 오겠다고 말한다.

한국의 하늘은 맑고 깨끗하고 높아서 매우 인상적이었고, 각종 음식은 양이 많고 맛이 있으며, 특히 “곰탕”은 구수하고 먹기 편해서 좋다고 음식평을 한다. 한국여성들과 접할 기회는 없었으나 매우 예쁘고 친절하게 느꼈다며, 매사에 칭찬이 대단했다.

일본에 가서 한국을 자세히 알려주고 특히 빠르고 맛있는 태권도의 발차기를 소개하겠다고 입을 모은다.

訪韓한 大阪大學生 名單

久田松 功利(四學年)	有山 光一(一學年)
藤本 恵三(三學年)	今西 基一(")
増田 隆(")	齊藤 敏彦(")
山野 重範(")	島名 秀徳(")
北川 弘之(二學年)	出口 貴章(")
芝本 雅昭(")	橋本 知明(")
長島 克司(")	山本 義孝(")
藤本 藤久(")	田憲 司(")
井原 幸三(")	이상 17名이다.

지도사범 康理俠은

한국의 태권도는 기술면에서는 발달하였으나 예의나 수련생의 태도는 무도로서는 지양하여야 할 곳이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에서. 拳法이나 카라테. 점도 등은 시범대회시 70~80歳の 원로들이 직접 시범을 보이는 등 품새와 겨루기를 병행하여 하고 있는데 한국의 태권도 겨루기 시합 중심으로 40歲만 되어도 도복을 입은 것을 보지 못했다며 아쉬워 했다. 康사범은 大阪에 개인도장 3개소를 운영하여 100여명의 수련생을 지도하고 있다.

康사범은 日本 大學生에게 진작의 한국을 보여주기 위해 비행기 요금만 학생들이 부담하고 한국거주의 일체의 경비를 본인이 부담하였다고 한다. 독불장군이란 소리를 들으나, 하나도 개의치 않고 태권도 보급에 심혈을 쏟고 있는 강사범의 내일에 행운을 기원한다.

성동구태권도연합회 체육대회

서울 성동구 태권도인 연합회에서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태권도 보급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82년 10월에 발족하여 회원의 애경사와 친목을 위한 야유회(년 2회), 친선체육대회 합동 시범단운영등으로 태권도인의 친목은 물론 태권가족들의 우의도 돈독히 하며 체육관운영 및 기술교류로 태권도 기술개발 및 다각적인 체육관 운영을 협의하고 있다.

성태회에서는 1983년 6월 19일 서울장안국민학교 운동장에서 김용원(의료법인 동아병원 이사장 청소년선도위원회 동부지부 회장)대회장과 이세기(국회위원)의원 정한승(한일양행(株) 대표) 사장을 고문으로 모시고 제 1회 성태회체육대회를 가졌다. 이날 24개 체육관에서 1800여명의 관원과 700여명의 학부형이 참석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체육관장, 학부형, 관원이 삼

위일체가 되어 하루를 뜻있게 보냈다.

이날 대회사에서 김용원대회장은 태권도 수련을 통하여 강인한 체력과 건전한 정신을 갖을 수 있으며 태권도로 심신을 연마하여 국가안보의 호국정신으로 평화통일의 힘을 길러야 한다며, 세계지구인의 평화의 제전인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요, 민족의 크나큰 영광으로 소규모이지만 이러한 대회를 통하여 올림픽의 싹은 성장한다고 스포츠정신을 강조하였다.

경기종목을 보면 1. 태권도시범 2. 어린이축구시합 3. 유치부 공 릴레이 4. 학부형대 체육관장의 축구시합 5. 유치부 및 학부형줄다리기 6. 학생부 릴레이 등 태권도 경기를 떠난 친목을 위주인 결속의 행사였다.

각 지역별로 친목과 태권도발전을 위한 모임들의 발전을 아울러 기원한다.



故 裴永基 館長의 명복을 빕니다



故人은 서울중농중학(5년제) 재학시에 태권도에入門하여 중앙대학 재학시에도 태권도 보급에 심혈을 쏟았던 태권도인이시다.

故 裴永基 館長은 협회 발족창립이사로 各 館統閉合전에는 지도관중앙도장(현 한국체육관) 전임사범, 지도관부관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대한태권도협회 심사, 심판, 경기분과위원장 등으로 일선 활동을 활발히 하였고 본회 기술심의회부의장, 기술심의회의장 등으로 태

권도 발전의 根幹의 역할을 하셨다. 또한 故人은 육연 광산, 수상스키 강, 만화신문발간등의 사회활동도 하셨다.

한창 만개하여 가는 태권도의 꽃봉오리를 남겨두시고 타계하신 故人의 영전에 삼가 부복하여 애도말씀을 올린다.

故 裴永基 館長은 83년 12월 17일 오전 1시 57 歲를 一期로 지병인 고혈압으로 별세하시어 남한산성에 안장하였다.

고단자 심사에 드리는 글

임 춘 길

서울시태권도협회 사무국장



국기원에서는 1983년 12월 3일 고단자 심사를 실시하였다. 7단 36명, 6단 24명, 5단 72명으로 전국에서 응심한 고단자 들은 일선 체육관 운영의 핵심이며, 또한 태권도발전의 주역 들임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태권도의 행사로서 고단 응심자에게는 예비고사 치르는 고등학생의 집처럼 경사스럽고 자랑스러운 날이다.

유도나 점도같은 유사무도 단체에서는 고단자 심사 보는 날은 경사스럽고 영예로운 날로 축하의 꽃다발을 걸어 주는등, 심사장 분위기는 경축과 흥분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 심사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태권도 고단자 심사장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기술심의회 위원님의 목과 어깨에는 턱비 선수 처럼 "기브스"를 하시고 위엄한 권위를 앞세워 응심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함은 물론, 심사장 분위기는 자못 살벌하기만 하다. 수백, 수천명을 심사하는 유품자 심사장과 같이, 국민학생이나 중·고생들을 다루듯 고단자들을 그렇게 다루며 심사를 집행하여서 최 고단자(7단)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천리길 멀다 않고 상경한 전국의 고단자들에

게 좀더 부드럽고, 경사스럽고 영광스러운 날이 되도록, 심사를 치르는 방법과 자세를 바꾸어 주실수는 없는지? 국기원과 심사위원 제현께 부탁을 드린다. 그리고, 필기고사를 「논문문 써라」고 하는데, 논문을 한시간 내에 학술적으로 쓸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 박사님」들이면 무엇 때문에 태권도 사범으로 심사장에서 구속 받으며 추운날 도복을 입고 떨고 싶겠는가?

필기고사에 논문이란 거창한 단어는 가급적이면 피하였으면 한다.

가령 "논하라"든가 "기술하라"든가로 표현을 바꿈은 어떨지 —

권위와 명령으로 일관하는 모든 태권도인들의 자세를 스스로 평가하면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 글을 기고 한다.



맑고 고요한 강물이 되어

金 九 烽 선생



- 1931年 전남순천産
- 弘益大卒
- 수필집 : 地平없는 對話, 가없는 水車 나는 어디에 있을까, 出刊
- 全南隨筆文學會會長
- 韓國文人協會會員
- 韓國隨筆家協會會員
- 韓國隨筆文學振興會會員
- 光州瑞光女中教師
- 跆拳道公認 5 段

K여고의 B모 교사가 사설 강습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경치 포도청이라는 말따마나, 교육위원회에서는 당해 학교장과 교감을 곧바로 해임 조치했고— 그후 경고 처분에 끝났다고 함— 중등교육과 K장학관이 학교장의 직무대리로 앉는 등 온 시내가 벌집쭈셔 놓은듯 술렁거리고 있다. 당해 학교의 당사자들만 호된 고초를 겪는게 아니라 당해 학생들의 학

부모까지 화가 미치고 있으니 물고기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려냈다고 입 불은 사람이면 B교사의 평소의 身言書判을 들먹거리며 비양거리곤 한다.

그러나 나는 「남을 죄인으로 판단하지 말라」(마태오 7장)에 적이 공감이 간다. 우리는 남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자신의 눈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기 십상이니까 말이다. 사실, 툭 까놓고 말하면 이렇게 세상이 무지막스럽고 망상스러운데 막상 사물의 본말이나 理路를 꼬치꼬치 따지자면 그 精髓는 숫제 가뭇없다.

막상,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훑어보면 잔인하기 이를 데 없다. 얼굴에 붙어있는 티는 거울 속에 뒤 나타남으로 곧장 씻어낼 수 있지마는 마음 속 구석구석에 엉겨 있는 티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장하고 우정 어연번듯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깊은 밤, 나는 어찌다가 잠이 깰 때가 있다. 한시간 이상이나 다시 잠들지 못하고 옆치락 뒤치락 시간을 되새기며 卒更을 치르노라면, 마음 구석구석에 엉겨 있는 티가 일시에 수수려진다. 도둑이 제 발이 저런 기분이 된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면 어슴프레한 하늘에서 저승차사라도 금방 나타나 내 덜미를 냉큼 낚아챌 것만 같다. 사실, 밤은 여기저기의 허섭스레기들을 숫제 묻어 버리지마는, 잠 못이루는 사람에게는 저승차사에게 줄곧 출경을 치르는 것과 같은 고통, 그것일런지도 모른다.

두 마리의 암수개가 맞붙어 교접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성적 충동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저승차사가 두렵지 않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병약자가 아닌 이상 그 액센 본능적 충동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神이 아닌 육신을 가졌기 때문이다. 사람이 육신을 착친 정신만으로 호흡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존재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가난한 아내의 일그러진 얼굴은 해가 거듭할수록 까칠해 가고 있다. 녹용은 커녕, 삼 든 약 한제 내로 먹이지 못했으니, 자식들 걱정으로 애를 바싹바싹 태우는 그 주제에 얼굴이 반들거릴 까닭이 없다. 불현듯 盜心이 물구나무선다.

「화산 너털제에 가서 칼 들고 선다」는 육담이 오히려 박진감 있게 느껴진다. 메말라 가는 아내의 육신을 보고 마음이 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니까 말이다. 이것은 저승차자에게 덜미를 잡힐망정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므로, B 모 교사의 행동은 결코 낭탐이라고 입을 모아 탓할 수 만은 없을 것 같다.

우리는 언뜻하면 氷山一角이란 말을 터뜨린다. 바닷물속에 산처럼 깔려있는 어름덩이는 그냥 놔 두고 바닷물 위에 뽀조록 내밀린 한 뿔다구니의 얼음만을 피하는 항해사는 얼추 없을 것이다. 이는 「나무만 보고는 숲을 말할 수 없다」는 이론과 마찬가지로. 바닷물 속에 얼음이 산더미처럼 깔려있듯, 우리는 청백리가 되지 못하는 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탐학과 도심(盜心)이 이틀거리고 있기 마련이다.

유다도 마음 속 깊은 곳의 탐학과 도심이 발동하여 기껏 은화 30 닢으로 빌라도에게 「예수」를 팔아 넘겼던 것이다. 그래서 돈을 「알라딘의 등잔」이라고 한다. 「알라딘의 등잔」이란 무슨 소원이건 이루어 주는 “마법의 등잔”이라고 한다.

법원 구치감에서 백주에 탈주극을 벌였다가 다시 붙잡힌 趙世衡이 세칭 大盜로서 世人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그도 역시 「알라딘의 등잔」의 유혹에 말려든 셈이다.

그러나 그가 절취한 금품이나 보석은 저개가 세칭 높은 양반들의 것이라는데 우리는 회가 동한다. 더구나 한개에 5천 2백만원짜리의 다이아를 비롯하여 도합 3억 4천만원을 털린 고관 집도 있었다고 하니 말이다.

「…… 이 피해 품목을 보면서 “내집 다 팔고 내 재산 다 정리해도 보석 한 개 값도 안되는구나! 하는 서민들이 많을 것이다. 더구나 이들

이 털린 재산의 상당 부분이 주식이나 채권 같은 투자성 증권도 아니요 문화재도 아니다. 단지 보석, 장신구 등 사치품들이다. 단순히 개인의 허영심을 만족시키려는 부유층의 소비 율리는 개발 도상국가에 있어서는 자칫하면 국민 계층간의 균열을 결과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둘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83.4.17> 를 다시 음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피해액을 반액으로 끊어서 신고하는 등 연측 허황한 소비 율리를 굳이 은폐하려는 그들, 이는 높은 사람들의 정곡(正鵠)을 찌는 절실한 캐치프레이다.

巷間에서는 조세형울 의도(義盜)라고 호칭하는 사람들도 여러 있다.

그것은 「어느 면에서 볼때, 우리 자신들이 도둑질을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사용하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훔친 것이다. 인도에서는 300 만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니의 밥으로 주린 배를 달래고 있다. 당신이나 나는 이 300 만명의 사람들이 옷을 입고 더 잘 먹을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마하트마 간디>에 숭예 공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헛벗고 배고픈 사람이 교접하는 암수캐를 보고 분노적 충동을 일으킨 것 이상으로 절박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창문을 깨뜨리고 음식을 도식한 행위와 「간디」의 말마따나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독점하고 그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와는 그 元亨利貞이 판이한 것이다. 암수캐의 교접을 보고 음심(淫心)을 품는 행위라면 몰라도 배고픈 사람이 도식을 했다고 해서 저승차사는 그 사람의 덜미를 무작정 그러잡지는 않을 것이다.

옛날, 우리 고향에는 「김 사친」이라는 토착 지주가 있었는데 그가 죽은 뒤 날씨만 우충충하면 그의 무덤에서 장대만한 구렁이가 기어나와 무덤 둘레를 굴뚝까지 마냥 설설 몇 바퀴 돌다가 무덤속으로 가뭇없이 사라지곤 했었다. 그때, 발발은 어른들은 「사친이가 죽어서 구렁이가 됐다」고 꾀 쓴 나비처럼 서로서로 이기죽거렸다. 땅은 김사친이 소작인들로부터 지나친 수탈(收奪)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용혜(容喙<입털임>)

가 자생(自生)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작인들이 갔다 바치는 소작료를 우정 풍력이 센 통구에다 싹싹 붙여 놓고 보면 쪽정이는 물론 난알까지 날아가는 바람에 두가마의 소작료가 한가마 반으로 줄어들고 보니, 가난한 소작인들은 솟제 복주(伏誅)를 당하는 꼴이 되고 말았으니까 말이다.

소작인들로 소작료를 가혹하게 받아내는 행위나, 300 만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고작 한 끼의 밥으로 주린 배를 달래고 있는데 당장 필요로 하지도 않는 물건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그것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는 정말 수탈이나 진배없다. 그리고 이전 과람(過瀾)한 행위는 도독질이나 다름없다.

이러고 보면, 사실 강소소에 관한 법률위반을 한 B 모 교사의 행위나 암수캐의 교접을 목격하고 음식을 품는 행위나, 아내의 까칠한 정형(情形)을 보다 못해 「화순 너털재」에 가서 칼 들고 서고 싶다는 心相이나 험벗고 배고픈 사람이 참다 못해 남의 음식을 도식한 행위는 결코 수탈이 아니다.

이것은, 어쩌면 無明이 빚어 낸 번뇌가 우리의 본심을 흐리게 한 것이라고 치부(置簿)할 수만은 없다. 「알라단의 등잔」에 유혹된 상황이라고는 더더구나 매도(罵倒)할 수도 없을 것이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虬一匹)이라 할까, 그물을 쳐 봐야 송사리만 걸려 들고 깍해야 빙산일각(氷山一角)을 징치(懲治)하는 것이 능사고 균등과 조도(調度)가 통용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우리는 본심이 그렇게 흐려지기 마련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포기”가 노상에 말없이 묵묵하듯, 우리도 항상 “참고 고요한 강

물”이 되어 끝없이 의초하게 흐르고 싶은 것이다. “참고 고요한 강물”에는 공해도 없고 수탈도 없어서 물고기들이 마음 놓고 사랑도 하고 새끼도 칠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참고 고요한 강물”이 바야흐로 멍들어 가고 있으니까 탈이 나는 것이다. 플포기가 마음놓고 그의 속성대로 성장하기에는 너무 벅찬 세상이다. 저승 차사에게 줄경을 당할마정 우선 먹기는 꽃잡이 단 것이다.

남의 돈을 들어먹은 은행원이 쇠고랑을 차는 것을 뵈면 알면서도 또 다른 행원은 그보다 몇 배의 돈을 훔쳐 출행량을 키니 이제는 은행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인가 보다.

광주사태 때의 일인데, 학생들이 총을 메고 마구 설치고 있을 무렵, 그때 나와 안면이 있는 전직 ○○○○씨의 문패가 없어진 것을 목격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광주사태가 수습된 뒤에 그 문패는 제자리에 말짱히 나붙어진 것이다. 나는 그 까닭을 感知하고 難笑를 터뜨렸지마는 지금도 그집 앞을 지나칠 적마다 얹은 첩오를 느낀다. 그가 운전수의 꺾듯한 인사를 받고 육중한 체구를 비비적거리며 자가용 차속으로 드는 광경을 목격할 때면 더욱 그렇다.

그가 타고간 차 꼬리에서 쏘아지는 매연속에 이제 곧 새들이 꼬여가고 있는 “플포기”의 고통이 줄곧 환각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플포기”는 이런 류(類)의 고통을 던지고 “참고 고요한 강물”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뛰어야만 할 것이다. 출부(猝富)가 되어 치사스럽게 사는 것보다 참고 고요하게 흐르는 강물의 속성을 닮아 가는 것이 꿈배가 낫겠다고 생각하니까 말이다.

〈 名 言 〉

쇠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죽이는 것은 손이다.

그손은 마음에 따른다. 〈루데치아〉

松栢(솔)



정 재 원

상무사 대표

한국국민학교태권도연맹 이사

四時長春 變하지않는 節介와 함께 늙을수록 그것을 더 해가는 老松의 모습은 곧으면 곧을수록 굽으면 굽을수록,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雲雨를 몰아치는 바늘돋친 옹의 樹幹과 鶴의 날개인양 四方으로 길게 뻗는 소나무 가지는 果히 樹之長이요 樹王의 威風을 갖추었다.

法住寺의 正二品松의 傳說들은 우리民族이 솔에 對한 神仙觀을 말해주듯 日本사람들은 솔을 좋아하면서 人工美를 나타냈든 이야기들이 있는데 古賢宗父님의 말씀과도 같이 “白雪이 滿乾坤할때 獨도靑靑” 하는 낙락장송의 “깊은 뜻”과 큰 “멋”을 어찌 日本人인 그들이 알리요.

松林에 바람이 불면 波濤 소리가 들린다.

누구나 그소리를 松濤라 불렀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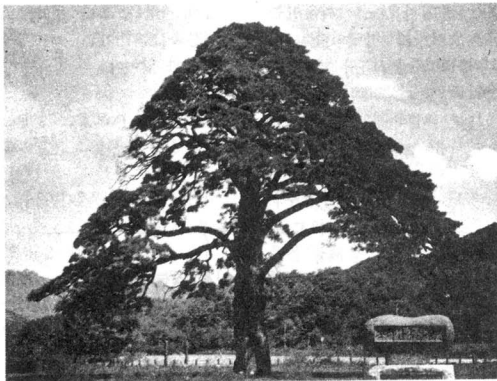
松栢之姿는 經露獨茂라고 해서 서리와 눈

을 맞은 솔은 더욱더 茂盛하고 푸르러 一年中에 正月을 松月이라고 부름은 그 靑靑함과 茂盛한 모습으로 苦難을 겪고 또 한해를 힘차게 始作하며 곳곳이 살고싶은 온 겨레의 오랜 念願이라 하겠다.

子の 말을 빌리자면 艱難이 人間을 玉으로 만들고 試鍊이 人材를 낳는다고 하였으니 侵攻만을 받고 아픈마음 달래이며 癸亥年을 보내면서 여명이 동트는 새해를 맞는 우리들의 決意로는 松栢之姿의 經霜猶茂 그뿐 아니라 솔은 살아서 못다한 그 節介와 푸르름을 죽어서도 몸을 짝아 대들보와 기둥으로 바치니 生死를 넘어선 그 높은 뜻은 오늘에 處한 우리겨레가 지녀야 할 永遠한 敎訓으로 받아들여야 하겠다.

一九八三年 十二月 八日

癸亥年을 보내면서



제6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참가기



박 현 섭

1983년 10월 21일 ~ 23일까지 3일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거행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위한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고 15일 서울 김포공항을 떠나 예정대로 목적지인 덴마크에 도착하였다. 덴마크에 도착한 필자의 마음속에 와 닿는 느낌은 처음 와본 나라이나 고요하고 아름답고(아름다운 경치와 잘 정돈된 도시의 미가 극치를 이루어 놓은) 도시민들의 여유있는 평화스러운 모습은 풍요로운 삶을 대변하는듯 하였다.

분단의 공포와 불안속에 늘 대치된 우리나라도 속히 통일이 되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세계인들에게 내어놓고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수가 없었다.

경기는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필자는 심판원으로 경기를 진행하면서 느낀 몇가지를 기술코자한다.

경기는 경기를 편전하는 판중과 선수, 경기를 진행하는 심판과 코치등이 경기의 필수 요건이라 보겠다.

덴마크의 세계대회에서는 경기를 편전하는 판중들의 모습은 놀랄만큼 적극적이었다. 판중과 선수가 혼연일체가 되어 승자가 탄생될때마다 아낌없이 보내는 찬사와 박수갈채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수도 없을만큼 열광적이었다. 그러나 심판을 담당했던 필자의 아쉬움은 판중들이 얼마나 태권도 경기의 규칙을 이해하고 열광을 하는 것일까? 하는 물음에는 자신있게 대답을 하지 못함이 솔직한 심정임을 어쩔라.....

세계속에 스포츠로서 더 더욱 발전을 하려면은 판중들이 경기의 “룰”을 쉽게 이해하여서 경기의 승패를 판중스스로가 확연히 가름할 수 있도록 경기규칙 개선이 시급하다. 경기 경험이

부족한 심판원들까지도 판정을 내리기에도 애매 모호한 지금의 경기 “룰” 때문에 경기장에서 불미스럽게도, 판정에 불복하는 사례가 국내에서는 비밀비재하지 않은가?

우리 태권도가 세계속에서 더욱 발전하려면 대중(판중)과 호흡을 같이할 수 있도록 태권도의 전반에 관한 연구와 검토가 계속되어 대중스�포츠로서 발전하도록 최선의 경주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여야 하겠다. 또한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는 85년 세계대회, 86아시아게임, 88서울올림픽등 많은 국제행사를 치루어야 할 나라로써 더욱 선수들의 기량을 닦아야 하겠다. 태권도 세계대회가 6회를 거듭함에 우리선수들의 기량을 습득하고 따라온, 타국의 선수들의 기량을 우린 감지하고 보다 월등한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신장과 체력의 열세인 우리선수들의 내일은 밝다고만 할 수 없겠다. 이제 태권도는 과감한 개혁의 “메스”를 가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몇가지 지적을 하여 권하고 싶은 것은 첫째, 심판원의 자질향상(유경험자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차원높은 경기운영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둘째, ‘누구나’ 편전하면서 승패를 구분할 수 있도록 경기 “룰”의 개선작업을 속히 하여야 하겠고, 셋째, 중앙도장(국기원)에서 기술개발 전담요원을 양성하여 급성장하여 추격해오는 타국의 선수들의 기량을 제압할 준비를 서둘러 하여야 하겠으며 이와 같이 상비군제도도 도입되어 대표선수의 태만성을 자극하며 우수선수발굴도 겸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끝으로 본대회를 준비하신 세계연맹과 태권도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영광의 6연패를 한 우리선수들의 권투를 빈다.

나의 수련기

강영화 (이화여대 작곡과 3년)



내가 태권도 아니 무술이라는 것이 더 정확할것 같다.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2년전 그러니까 국민학교 2학년때인것 같다.

내가 살던 동네 근처에 일명 창고 극장이라는 영

화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을 자주 애용한 편이었다. 그 영화관은 주로 중국 무술 영화를 상영했다.

그 당시 난 무술에 매우 심취해 있었는데 모든 중국 무술 영화가 그렇듯이 오락적인 내용이어서 인간의 육체적 능력을 초월하여 약간은 황당무개한 면이 있어 어린 마음에도 쉽게 빨려든것 같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우스운 일이지만 그때 진지하게 영화속에서 본 멋진 장면을 생각하며 곧잘 그 포움을 흉내 내곤 했었다. 한때는 아버지께 유도를 배울거라고 설쳐댔던 일도 있었다. 하지만 운동에 대한 이러한 나의 적극적인 관심도 한때뿐, 이내 운동도 싫어하고 말도 잘하지 않는 새침때기 소년으로 변해갔다. 어렸을 때 이러 저러한 연유로 무술과 나와는 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태권도 그전에도 인연을 맺지 않은건 아니지만 정식으로 배우기 시작한 것은 대학 들어와서이니 최근의 일이다. 태권도를 배우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도장에 가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고, 음악과 사색을 좋아하는 문학 소녀로서 몸을 격하게 움직이는 태권도를 배운다는건 태권도를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것의 의미를 확실히 구분해 주었으며 그때만 하더라도 여자가 태권도를 한다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어서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등 많은 제약이따라 결국은 배우지 못하고 세월은 흘러 흘러 방년하고도 1년이 더 흘렀다. 새로운 환경 변화에 처음 몇 일간은 어리둥절한 속에서 보냈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모든 세상이 내 것 같이 느껴졌고 그 기분은 대학 입학 후에도 연장

되어 무계획적인 날들이 흐른 것이다.

그러다가 내가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 태권도 씨름에 가입하면서 부터였다. 태권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운 것이다. 동작의 맺고 끊음의 확실함, 격한 운동량을 참고 견디는 인내심, 선후배 간의 예절, 겨루기에서의 참 스포츠 정신 등은 그 당시의 호리명령해 있던 나 자신을 깨우쳐 주었다.

태권도는 나의 인격도야, 심신수련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태권도란 것이 묘한 마력을 지니고 있어서 처음 배울땐 무척 힘들고 마음과 같이 동작이 잘 되지 않아서 수련도 몇번씩 빼 먹고 했었는데, 하던 할수록 재미가 나는게 더 하고 싶은 충동을 불러 일으켰다.

방학때면 태권도 도장에 가서 수련을 하는 열성도 보였다. 수련 시간엔 일체의 약속도 하지 않았고 친구를 만났더라도 그 시간만 되면 부리나케 도장으로 달려와서 수련을 하곤 했었는데 무엇을 바라고 그렇게 정해진 시간을 날마다 하라고 했다면 아마 몇일도 못가서 그만 두었을 것이다. 단지 태권도가 좋아서였다.

10월 27일은 우리 학교 축제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일체가 되어 그동안 갈고 닦던 솜씨를 자랑했다. 기와 5장을 격파할때의 그 상쾌함이란, 기왓장을 격파하는 순간 많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다.

태권도를 배우기 전에 활발하게 한번 뛰어 놀지도 못하고 늘 방안에서만 책도 읽고 피아노도 치고, 그림도 그리며 주로 혼자서 시간을 보내곤 했었는데 모든 것이 바뀌어져 가고 있었다. 몸도 튼튼(?) 해지고 나의 활동 범위도 방안에서 운동장으로 바뀌었다. 친구를 만나더라도 우린 주로 운동으로 시간을 보냈다. 운동은 항상 정직했다.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허위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다. 한 친구와는 만나면 주로 이야기 보다는 운동을 했다. 무언 중에도 우린 많은 진실을 나눴다. 태권도를 배우면서 얻은 것중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진 것이었다.

오늘도 나는 이 말을 한번 더 되뇌이며 집대문을 나선다. "나는 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다."

跆拳道의 價値性(精神的 社會的)에 関한 調査 研究 (國民學校 學生들을 中心으로)

양희중, 이규형
 (대한 유도 대학)

目 次

I. 序 論	2. 研究의 對象
1. 研究의 必要性	3. 研究의 道具
2. 研究의 目的	4. 研究의 方法
3. 研究의 範圍와 限界	IV. 調査 結果 및 考察
II. 理論의 背景	V. 結論 및 提言
1. 태권도의 歷史	1. 結論
2. 태권도의 特徵	2. 提言
III. 研究의 方法	參考文獻
1. 研究의 期間	

I. 序 論

1. 研究의 必要性

人類의 生存과 더불어 존재하였던 體育은 예로부터 그 時代와 社會의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해 왔으며¹⁾ 文明의 발달로 신체활동이 적어지고 體力 減退現象이 일어나게 됨에 따라 人間은 人爲的 環境이나 自然環境속에서 自體活動을 영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人間은 운동을 적당히 하므로써 心身의 健康을 유지하고 發育을 促進시키며 나아가서는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²⁾

특히 오늘날과 같이急變하는 科學의 발달로 파생되는 여러 분야에서 人間은 身體的인 문제 에 대하여 가장 큰 위험을 느끼게 되므로 體力 향상을 위하여 鍊鍛이 요구되고 의지의 涵養을 위한 訓練이 강해되고 있다.³⁾

따라서 최근에 이르러 각국에서는 체력이 國 력이 國力으로 변모해 가고 있으며 國民體位 향

- 1) 尹仁鎬, 李圭東, 體育原理, 서울:教學研究社
- 2) 文教部, 스포츠의학, 서울신문사 출판국, 1973, p. 65.
- 3) 崔仁範, 體育概論, 서울:受實界社, 1973.p. 102.

상에 역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스포츠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스포츠 생활화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볼때 어느 운동보다 身體的, 情緒的, 道德的으로 완전한 人間形成의 捷徑이 되는 태권도 보급이야 말로 절대적으로 必要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은 각 종목에 걸쳐 運動의 중요성이나 價値性에 관하여 연구 보고를 하였으나 跆拳道 種目に 관하여는 아직 미비된 상태이므로 跆拳道 보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본 연구에 착수하였다.

2. 研究의 目的

東洋文化를 배경으로 발달한 跆拳道는 이제 武術이 아니라 오늘날 世界的인 하나의 스포츠 종목으로 채택되어 다른 어떤 競技種目보다도 많은 人口가 國內는 물론 國外까지 수련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스포츠로서 생활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높은 次元의 理論을 확립시켜야 하겠다.

따라서 본 研究는 현재 跆拳道의 많은 人口가 兒童인것을 감안하여 跆拳道 修練이 兒童들한테 身體的, 精神的, 社會的으로 성장과 성격 형성 발달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며 또한 學父母와 指導者의 意見을 조사 분석 파악하여 학문적이고 가치적인 理論의 根據를 提示하고 정리하는데 그 目的을 둔다.

3. 研究의 範圍와 限界

本 研究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跆拳道 修練生 전체의 비율에서 가장 높은 國民學校 學生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수련 3년 이상으로 국한시켰다.

2) 學父母들의 대상은 3년 이상의 태권도 경력을 가진 子女들의 學父母로 제한하였다.

3) 指導者들은 서울 시내에 산포되어 있는 體育館의 指導者로 국한시켰다.

II. 理論的 背景

1. 태권도의 歷史

어느 民族이든 그 原時社會에 있어서는 鬪技가 유일한 體育 활동이었으며 또한 人間은 본능

적으로 생존을 위하여 外적을 防禦하고 植物을 獲得하기 위하여 鬪爭行爲의 활동이 있었다.

이러한 活動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組織化되고 체계화되어 여러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는데⁴⁾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武藝와 鬪技가 행하여졌음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그 중 오늘날의 태권도는 三國時代의 고구려 유리왕 22年 이후(A.D. 3年)부터 장수왕 13年 이전(A.D. 427年) 사이에 태권도(手搏)가 발생되었음을 證明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고구려 10代 山上王 13年(A.D. 209)부터 首都였던 丸都山城(現 中國 만주 통화성 집안현 通溝)에 있는 舞踊塚玄室壁畫에서 오늘날의 태권도같은 방식의 겨루기 장면을 발견할 수가 있고⁵⁾ 新羅時代의 花郎徒 武藝는 태권도와 같은 徒手武術을 행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는데 이것은 경주 石窟庵 金剛力士에 浮彫된 菩薩像이 태권도의 맞겨루기형(對練型)의 막기(十手)와 겨누기(拔寒) 자세를 취하고 있는 유적을 보아 알 수가 있다.

또한 어원도 우리의 史籍 및 文獻을 보면 수박(手搏), 수박희(手搏戲), 수벽(手壁), 각희(脚戲), 권법(拳法), 탁견(托肩), 태권등으로 불리워 왔으며⁶⁾ 이렇게 발전한 태권도가 1960年代에 들어서면서 더욱 더 박차를 가해 1962年 大韓體育會 산하경기 단체 태권도協會로 가입되었으며 1963年度에는 全國體育大會에 正式競技種目으로 採擇, 1973年 世界 태권도聯盟 발족하여 第一回 世界 태권도大會를 서울에서 開催하는 등 1975년에는 國際競技聯盟에 가입되었고⁷⁾ 83년 8월에는 팬암(Pan am game)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앞으로 다가올 '88 Olympic Game에서도 示範種目으로 採擇 Sports 式道로써 각광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4) 羅繼成 外 2人共著, 體育史(螢雪出版社, 1980), p.p. 216~225

5) 羅繼成, 韓國體育史 研究(서울: 文泉社, 1974), p. 142.

6) 體育百科大事典 편찬실, 體育百科大事典(서울: 教育出版公社, 1981) p.c. 409.

7) 大韓태권도協會 刊, "태권도란", 태권도 수첩, 1976.6 p. 12.

2. 태권도의 特徵

1) 男女老少를 불문하고 실시할 수 있다. 즉 태권도는 身體條件에 구애됨이 없이 자기의 체력과 身體的 조건에 적합하도록 융통성있게 실시할 수 있으나 大部分의 運動은 壯年期를 지나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과격한 운동이 되어 지속할 수 없게 되고 부적합한 경우가 많으나 태권도는 누구나 自己의 身體條件에 알맞게 실시할 수 있다.

2)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태권도는 時間이나 場所에 구애됨이 없이 아무 時間이나 아무 곳에서든 연습을 할 수 있으며 相對나 道具 등이 불필요하여 손쉽게 연습할 수 있다.

3) 經濟的인 운동이다. 태권도는 특별한 시설이나 用具가 불필요하며 文字 그대로 손과 발을 무기로 하는 武道로서 언제 어디서든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평상복 그대로 연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하고 경제적이다.

4) 身體의 위험을 느끼지 않고 연습할 수 있다. 즉 태권도는 競技目的이나 護身目的을 제외하고 순수한 人格形成과 體力鍛鍊의 목적으로 수련할 경우에는 品勢의 연습만으로도 충분하여 반드시 相對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身體的 危險을 제거하고 安全하게 실시할 수 있다.⁸⁾

III. 研究의 方法

1. 研究 期間

- 1) 研究計劃: 1983. 5. 1 5. 20
- 2) 研究對象者 設定: 1983. 5. 21 ... 6. 29
- 3) 說 之案 作成: 1983. 5. 30 6. 8
- 4) 說問調査 및 結果 蒐集: 1983. 6. 9 7. 20
- 5) 結果 處理: 1983. 7. 21 8. 20
- 6) 論文 作成: 1983. 8. 21 9. 4

2. 調査 對象

本 研究의 對象者는 〈表-I〉와 같이 國民學校 學生 태권도 경력 3년 이상의 수련자 150名, 3년 이상의 태권도 수련 경력을 가진 자녀의 學父母 150名 그리고 서울市內에 산포되어 있는 태권도 體育館中에서 100個의 태권도 體育館을 無作為로 抽出하여 그 태권도 體育館指導者 100名을 대상으로, 총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表-I〉 調査 對象 및 人 員 (단위: 名)

區 分	對 象	人 員 數	計
國民學校	미동 국민학교 태권도 수련생	50	150
	광희 국민학교 태권도 수련생	50	
	남산 국민학교 태권도 수련생	50	
學 父 母	미동 국민학교 태권도 수련생의 학부모	50	150
	광희 국민학교 태권도 수련생의 학부모	50	
	남산 국민학교 태권도 수련생의 학부모	50	
指 導 者	강 동 구 14	도 봉 구 6	
	강 남 구 13	영 동 포 구 8	
	서 대 문 구 4	성 동 구 7	
	동 대 문 구 5	판 악 구 6	
	마 포 구 10	강 서 구 1	
	구 로 구 2	도 봉 구 8	
	용 산 구 2	종 로 구 2	
	동 작 구 8	성 북 구 4	

道 具 分 類

〈表Ⅱ〉

(해당부분 ○ 표)

區 分 對 象	健康生活	身體的	知的	情緒的	家庭的	交友關係	社會的	關心度	學習的
學 生	○	○	○	○	○	○	○	○	○
學 父 母	○	○	○	○	○	○	○	○	○
指 導 者		○	○	○		○	○		

3. 研究의 道具

本 研究의 道具는 〈表-Ⅱ〉와 같이 분류하여 조사연구 하였다.

4. 研究 方法

本 調査 직접面接과 質問紙 法을 사용하여 國民學校 學生, 學父母, 指導者들에게 태권도의 價値性을 身體的, 情緒的, 社會的, 學習的 으로 구분하여 조사 연구하였다.

Ⅳ. 調査 結果 및 考察

1. 修練生 分布

서울 市內 體育館中 100 個의 體育館을 無作爲 抽出하여 修練生 分布를 알아본 결과 〈表-Ⅲ〉와 같이 男子는 國民學生이 37名(54%), 유치부 20名(29%), 中學生 5名(7%)순으로 나타났고 女子는 유치부 4名(4.7%), 國民學生 3名(3.5%), 高等學生 0.9名(11%) 순으로 나타났다.

全體平均은 男子 69名 女子 8.5名으로 각각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表-Ⅲ〉

修 練 生 分 布

區 分 對 象	구 分 (%)		對 象	구 分 (%)	
고 등 학 생	男	20 29 (%)	고 등 학 생	男	4 6
	女	4 4.7		女	0.9 11
국 민 학 생	男	37 54	대 학 생	男	0.7 1
	女	3 35		女	
중 학 생	男	5 7	일 반	男	2 3
	女	0.2 2		女	0.4 5
계	男	69 100			
	女	8.5 100			

2. 動機

태권도를 修練하는 動機를 각 대상별로 보면 學生은 〈表Ⅳ-1〉에서 보는바와 같이 體力을 鍛鍊하기 위해 86名(57.3%), 자기를 防禦하기 위하여 22名(14.7%), 호기심으로 17名(11%) 順으로 나타났고 學父母는 〈表Ⅳ-2〉와 같이 體力을 鍛鍊시키타 위해 73名(48.7%), 친구들과 건강하게 어울려 성장에 도움을 주기위해 33名(22%), 素質을 개발하기 위해 23名(15.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指導者는

〈表Ⅳ-3〉와 같이 修練生들이 入館하는 動機가 體力을 鍛鍊시키기 위해 72名(72%), 친구들과 건강하게 어울려 성장에 도움을 주기위해 13名(13%), 素質을 개발하기 위해 5名(5%)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위와 같이 태권도를 하게되는 동기는 體力을 鍛鍊하기 위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表Ⅳ-1〉

순 위	구 분	인 원	%
1	체력을 단련하기 위하여	86	57.3
2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22	14.7
3	호기심으로	17	11
4	주위의 권위로	13	9
5	소질을 개발하기 위하여	9	6
6	기 타	3	2
	계	150	100

태권도를 修練시키게 된 動機(學父母)

〈表Ⅳ-2〉

순 위	구 분	인 원	%
1	체력을 단련시키기 위해	73	48.7
2	친구들과 건전하게 어울려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33	22
3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	23	15.3
4	마음이 약해서	10	6.7
5	주위의 권유	6	4
6	기 타	5	(3.3)
	계	150	(100)

修練生들이 入館하는 動機(指導者)

〈表Ⅳ-3〉

순 위	구 분	인 원	%
1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	72	72
2	친구들과 건전하게 어울려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13	13
3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	5	5
4	주위의 권유	4	4
5	마음이 약해서	3	3
6	기 타	3	3
	계	100	100

있었다.

3. 目的

태권도를 修練하는 목적을 각 대상별로 비교해 보면 學生은 〈表Ⅴ-1〉와 같이 모든 일에 精神 集中이 되기 때문 56名(37.3%), 훌륭한 體力을 만들어 주기 때문 42名(28%), 자기를 防禦하는 데 알맞기 때문 27名(18%) 순으로 나타났고 學父母는 〈表Ⅴ-2〉와 같이 建康增進

59名(39.3%), 人格形成 32名(21.3%), 身體保護 32名(21.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指導者는 〈表Ⅴ-3〉와 같이 建康增進 41名(41%), 身體保護 28名(28%), 人格形成 16名(16%) 순으로 각각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4. 關心度

태권도에 대한 關心度を 대상별로 조사한 것을 보면 학생은 〈表Ⅵ-1〉와 같이 아주 장려를

〈表 V-1〉 태권도를 修練하는 目的은

순 위	구 분	인 원	%
1	모든 일에 정신집중이 되기 때문	56	37.3
2	훌륭한 체력을 만들어 주기 때문	42	28
3	자기를 방어하는데 알맞기 때문	27	18
4	흥미가 있기 때문	15	10
5	소질이 있기 때문	5	3.3
6	무조건	1	0.6
7	배우기 쉽기 때문		
8	기 타	4	2.6
	계	100	100

〈表 V-2〉 태권도를 修練시키시는 目的(學父母)

순 위	구 분	인 원	%
1	전 강 증 진	41	41
2	신 체 보 호	28	28
3	인 격 형 성	16	16
4	태권도 선수로 키우기 위해	9	9
5	여 가 선 용	4	4
6	기 타	2	2
	계	100	100

〈表 V-3〉 태권도를 修練시키시는 目的(指導者)

순 위	구 분	인 원	%
1	전 강 증 진	41	41
2	신 체 보 호	28	28
3	인 격 형 성	16	16
4	태권도 선수로 키우기 위해	9	9
5	여 가 선 용	4	4
6	기 타	2	2
	계	100	100

한다. 67名(44.7%) 보통이다. 40名(26.7%) 조금 장려를 한다. 39名(26%) 순으로 나타났다. 學父母들은 〈表Ⅵ-2〉와 같이 스스로 하루도 빠짐없이 나간다. 121名(80.7%) 부모의 권유로 겨우 나간다. 17名(11.3%) 모르

겠다. 6名(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님들은 〈表Ⅵ-3〉와 같이 참관 횟수가 1년에 16회 이상이 44名(29.3%), 1~3회 39名(26%) 11~15회 24名(16%) 순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태권도에 關한 家族들의 關心은 (學生)

〈表VI-1〉

순 위	구 분	인 원	%
1	아주 장려를 한다	67	44.7
2	보 통 이 다	40	26.7
3	조금 장려를 하는 편이다	39	26
4	반대하는 편이다	2	1.3
5	아주 반대를 한다	2	1.3
	계	150	100

〈表VI-2〉 現存 어린이가 태권도 體育館에 나가 修練하는 關心은 (學父母)

순 위	구 분	인 원	%
1	스스로 하루도 빠짐없이 나간다	121	80.7
2	부모님의 권유로 겨우 나간다	17	11.3
3	모르겠다	6	4
4	기 타	4	2.7
5	간혹 체육관에 나간다	2	1.3
	계	150	100

〈表VI-3〉 태권도 體育館이나 試合에는 1년에 몇번이나 참가하였습니까(學父母)

순 위	구 분	인 원	%
1	16 회 이상	44	29.3
2	1 ~ 3 회	39	26
3	11 ~ 15 회	24	16
4	7 ~ 10 회	14	9.3
5	4 ~ 6 회	13	8.7
6	한번도 없다	9	6
7	모 르 겠 다	7	4.7
	계	150	100

5. 學習의인 面

태권도를 修練 후 학습적인 면에서 修練生들의 변화는 〈表Ⅶ-1〉와 같이 學校成績은 그대로 92名(61.3%), 아주 좋아졌다. 27名(18%), 조금 좋아졌다. 22名(14.7%) 순이며 學校 體育 時間에 어떠한 영향이 미쳤는가는 〈表Ⅶ-2〉와 같이 아주 재미 있어졌다. 87名(58%), 조금 재미가 있어진 것 같다. 48名(32%) 변화가 없는 것 같다. 7名(4.7%) 順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學父母는 〈表Ⅶ-3〉와 같이 그대로다. 58名(38.7%) 조금 좋아졌다. 51名(34%)나 빠졌다. 17名(11.3%) 순으로 나타났다.

6. 身體의인 面

태권도를 修練 후 身體의으로의 변화는 〈表Ⅶ-1〉와 같이 修練生은 上體의 변화가 팔의 힘이 강해지고 팔로 움직이는 어떠한 동작도 빨리 움직일 수 있다. 92名(61.3%) 成長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44名(29.3%) 모르겠다.

태권도를 하므로써 自信의 學交成績은 어떻게 변하였다고 생각하는가

〈表Ⅶ-1〉

순 위	구 분	인 원	%
1	그 대 로 다	92	61.3
2	아주 좋아졌다	27	18
3	조금 좋아졌다	22	14.7
4	모 르 겠 다	8	5.3
5	나 빠 졌 다	1	0.7
6	아주 나빠졌다		
	계	150	100

태권도를 修練 後 學校 體育時間에 어떠한 영향이 미쳤는가

〈表Ⅶ-2〉

순 위	구 분	인 원	%
1	아주 재미있어졌다	87	58
2	태권도를 수련하기 전보다 조금 재미있는 것 같다	48	32
3	변화가 없는 것 같다	7	4.7
4	기 타	4	2.7
5	싫 어 졌 다	2	1.3
6	모 르 겠 다	2	1.3
7	두 려 워 졌 다		
	계	150	100

태권도를 修練시키신 後 學校成績은 어떻게 변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學父母)

〈表Ⅶ-3〉

순 위	구 분	인 원	%
1	그 대 로 다	58	38.7
2	조금 좋아졌다	51	34
3	나 빠 졌 다	17	11.3
4	아주 좋아졌다	16	10.7
5	모 르 겠 다	5	3.3
6	아주 나빠졌다	3	2
	계	150	100

다. 10名(6.7%) 순으로 나타났고 下體의 변화는 〈表Ⅶ-2〉와 같이 다리에 힘이 세어지고 달리기나 걷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가 138名(9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學父母들은 〈表Ⅶ-3〉와 같이 식욕이 좋아지고 건강이 증진된 것 같다. 62名(41.4%) 신체에 균형이 생긴 것 같다. 50名(33.3%), 그 대로다 19名(12.7%) 순으로 각각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고 指導者들은 〈表Ⅶ-4〉와 같이

신체에 균형이 잡힌다가 52名(52%) 지구력이 좋아진다. 37名(37%), 호흡기능이 좋아진다. 7名(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食事關係에서 修練生 自信들은 〈表Ⅶ-5〉와 같이 전보다 훨씬 식욕이 좋아졌으며 음식을 많이 먹게 되었다. 91名(60.7%), 전에는 몇가지 반찬만 골라 먹었는데 지금은 어느 음식이나 좋아하게 되었다. 38名(25.3%), 그 대로다. 17名(11.3%) 순으로 나타났음을 알

〈表Ⅵ-1〉

태권도를 修練後 上體(팔, 가슴)가 어떻게 변하였는가

순 위	구 분	인 원	%
1	팔의 힘이 강해지고 팔로 움직이는 어떠한 동작도 빨리 움직일수있다.	92	61.3
2	자라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신체 발달)	44	29.3
3	모 르 겠 다	10	6.7
4	너무 무리가 되는 것 같다	4	2.7
5	아주 나쁜 것 같다	.	.
	계	150	100

〈表Ⅵ-2〉

태권도를 修練後 下體(다리, 발)가 어떻게 변하였는가

순 위	구 분	인 원	%
1	다리에 힘이 세어지고 달리기나 걷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것 같다	138	92
2	모 르 겠 다	6	4
3	무조건 좋은 것 같다	3	2
4	부상이 잦으므로 어린이들이 자라는데 무리인것 같다	3	2
	계	150	100

〈表Ⅵ-3〉

태권도를 修練시키신 後 어린이가 身體的인 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學父母)

순 위	구 분	인 원	%
1	식욕이 좋아지고 건강이 증진된 것 같다	62	41.4
2	신체에 균형이 생긴 것 같다	50	33.3
3	그 대 로 다	19	12.7
4	모 르 겠 다	8	5.3
5	기 타	6	4
6	어린이한테 너무 무리인것 같아 나쁜것 같다	5	3.3
	계		

〈表Ⅵ-4〉

태권도를 修練시키면 身體的으로 어떠한 變化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指導者)

순 위	구 분	인 원	%
1	신체에 균형이 잡힌다	52	52
2	지구력이 좋아진다	37	37
3	호흡기능이 좋아진다	7	7
4	근력이 좋아진다	3	3
5	기 타	1	1
6	많은 부상이 발생하므로 도움이 없다	.	.
7	모 르 겠 다	.	.
	계	100	100

태권도를 修練 後 自信의 食事關係는 어떻게 변하였는가

〈表Ⅷ-5〉

순 위	구 분	인 원	%
1	전보다 훨씬 식욕이 좋아졌으며 많이 먹게 되었다	91	60.7
2	찬에는 몇 가지 반찬만 골라 먹었는데 지금은 어느 음식이나 좋아하게 되었다	38	25.3
3	그 대 로 다	17	11.3
4	모 르 겠 다	3	2
5	힘들게 운동을 하여서 그런지 밥맛이 떨어졌으며 조금 먹게 되었다	1	0.7
	계	150	100

수 있다.

7. 情 緒의 인 면

태권도를 修練 후 情緒의 면으로 변화는 〈表Ⅸ-1〉와 같이 修練生은 강한 精神力을 갖게 하였다. 46名(30.7%),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겼다. 33名(22%), 忍耐力을 기르게 되었다. 28名(18.7%)의 順으로 나타났고 學父母는 〈表

Ⅸ-2〉와 같이 自信感이 생겼다. 67名(44.7%),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긴 것 같다. 52名(34.7%), 그대 로 다 16名(16.7%)의 順으로 各各 나타났다.

또한 指導者는 〈表Ⅸ-3〉와 같이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참여한다. 68名(68%) 모든 일에 불안감이 점점 줄어든다. 28名(28%), 기타 3名(3%)의 順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태권도를 修練 後 가장 많이 자기에게 끼친 점은

〈表Ⅹ-1〉

순 위	구 분	인 원	%
1	강한 정신력을 갖게 하였다	46	30.7
2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겼다	33	22
3	인내력을 기르게 하였다	28	18.7
4	예의를 갖게 하였다	22	14.7
5	협동심을 기르게 하였다	12	8
6	애국심을 갖게 하였다	5	3.3
7	잘 모르겠다	4	2.6
	계	150	100

태권도를 修練시킨 後 情 緒의 인 면에서 어린이가 어떻게 변하였는가(學父母)

〈表Ⅹ-2〉

순 위	구 분	인 원	%
1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67	44.7
2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긴 것 같다	52	34.7
3	그 대 로 다	16	10.7
4	모 르 겠 다	8	5.3
5	기 타	6	4
6	두려움이 많아졌다	1	0.6
	계	150	100

태권도를 修練시키면 情練의으로 어떠한 變化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指導者)

〈表Ⅸ-3〉

순 위	구 분	인 원	%
1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참여한다	68	68
2	모든 일에 불안감이 점점 줄어든다	28	28
3	기 타	3	3
4	잘 모르겠다	1	1
5	불안감은 줄어드나 소극적이다	.	.
6	소극적이고 불안감이 많다	.	.
	계	100	100

8. 交友關係

태권도를 修練 後 交友關係에 있어서 修練生은 〈表Ⅹ-1〉와 같이 친구들을 사귀는 기회가 많아졌고 또한 친구들도 많아졌다. 115名(76.7%), 그대로인것 같다 24名(16%)순으로 나타났다 指導者들은 〈表Ⅹ-2〉와 같이 서로 완만하게 잘 어울린다가 94名(94%)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學父母들은 〈表Ⅹ-3〉와 같이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원만하게 잘 어울린다. 80名(53.3%), 변함이 없다. 36名(24%), 운동판계로 학교시간 후 친구들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20名(13.3%)로 각각 나타났다.

〈表Ⅹ-1〉 태권도를 修練 後 친구들과 사이가 어떻게 변하였는가

순 위	구 분	인 원	%
1	친구들을 사귀는 기회가 많아졌고 또한 친구들도 많아졌다	115	76.7
2	그대로인 것 같다	24	16
3	주위 친구들이 멀어졌다	10	6.7
4	모르겠다	1	0.6
5	기 타	.	.
	계	150	100

〈表Ⅹ-2〉 修練生들끼리 사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 위	구 분	인 원	%
1	서로 원만하게 잘 어울린다	94	94
2	운동만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다	2	2
3	말다툼이 자주 있는 것 같다	2	2
4	기 타	2	2
	계	100	100

태권도를 修練시키신 後 어린이의 交友關係는 어떻게 변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學父母)

<表 X - 3>

순 위	구 분	인 원	%
1	친구들이 많아지고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	80	53.3
2	변함이 없는 것 같다	36	24
3	운동판제로 학교시간 후 친구들과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20	13.3
4	기 타	7	4.7
5	모 르 겠 다	4	2.7
6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소홀해지것 같다	3	2
	계	150	100

9. 家庭의인 면

태권도를 修練 후 家庭의인 면에서 볼때 修練生 自信들은 <表 XI - 1>와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스스로 하게 되었다(청소, 심부름, 공부 등) 100名(66.7%), 변함이 없는 것 같다. 19名(12.6%), 잘 모르겠다. 15名(10%)

順으로 나타났고 學父母들은 <表 XI - 2>와 같이 자신이 할 일은 스스로 하는 것 같다. 61名(40.7%), 어른들에 대한 예의가 좋아졌다. 52名(34.7%), 변함이 없는 것 같다. 23名(15.3%)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태권도를 修練 後 집에서 自信이 어떻게 변하였는가(學生)

<表 XI - 1>

순 위	구 분	인 원	%
1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내가 스스로 하게 되었다 (청소 공부 등)	100	66.7
2	변함이 없는 것 같다	19	12.6
3	잘 모르겠다	15	10
4	피곤하여서 하였던 일도 하기가 싫어졌다	10	6.7
5	기 타	6	4
	계	150	100

어린이가 태권도를 修練한 後 집안에서 어떠한 점이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表 XI - 2>

순 위	구 분	인 원	%
1	자기가 할일은 스스로 하게 되었다	61	40.7
2	어른들에 대한 예의가 좋아졌다	52	34.7
3	변함이 없는 것 같다	23	15.3
4	피곤하다고 하여 할 일도 하지 않는다	6	4
5	기 타	5	3.3
6	잘 모르겠다	3	2
	계	150	100

10. 社會의인 면

태권도를 修練 후 社會의인 면에서 變化는 <表

XI - 1>와 같이 修練生 自信은 선배님이나 조금이라도 아는 웃어른이면 무조건 인사를 하게 되

었다. 70名(46.7%), 잘 아는 선배님이나 어른
에게만 인사를 한다. 45名(30%), 변함이 없
다. 19名(12.7%) 순으로 나타났다 指導者들
은 <表Ⅷ-2>와 같이 건전하고 원만한 생활을
한다. 49名(49%), 책임감을 느낀다. 24名(24
)%, 소속감을 느낀다. 16名(16%) 順이었다.

또한 修練生들이 태권도를 修練 後 남앞에 서
서 발표하는 것이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되는

가를 <表Ⅷ-3>와 같이 전보다 훨씬 자신감이
생겼다. 108名(72%) 그대로다 32名(21.3%)
순으로 나타났으며 친구들과 놀이에서 自信은 어
떠한 행동을 하는가는 <表Ⅷ-4>와 같이 어떠
한 놀이든지 친구들을 指導하면서 어울리게 되
었다. 59名(39.3%), 어떤 친구나 지도를 하
면 잘 따라 준다. 52名(34.7%), 마찬가지로
다. 35名(23.3%)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태권도를 修練 後 부모님이나 웃어른들에게 대하는 자신의 태도 변화는
<表Ⅷ-1>

순 위	구 분	인 원	%
1	선배님이나 조금이라도 아는 웃어른이면 무조건 인사를 하게 되었다	70	46.7
2	잘 아는 선배님이나 어른에게만 인사를 한다	45	30
3	수련하기 전과 변함이 없는 것 같다	19	12.7
4	누구든지 나를 모른체 하면 인사를 안한다	8	5.3
5	모르겠다	7	4.7
6	귀찮아서 인사를 하기 싫다	1	0.6
	계	150	100

태권도를 修練시키면 社會적으로 가장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指導者)
<表Ⅷ-2>

순 위	구 분	인 원	%
1	건전하고 원만한 생활을 한다	49	49
2	책임감을 갖는다	24	24
3	소속감을 갖는다	16	16
4	서로 협동한다	8	8
5	기 타	2	2
6	별다른바 없다	1	1
	계	100	100

태권도를 修練 後 남앞에 서서 발표하는 것이 어떻게 변화였는가
<表Ⅷ-3>

순 위	구 분	인 원	%
1	전보다 훨씬 자신감이 생겼다	108	72
2	그 대 로 다	32	21.3
3	모 르 겠 다	6	4
4	자신감이 없어졌다	4	2.7
	계	150	100

〈表Ⅱ-4〉

순 위	구 분	인 원	%
1	어떠한 놀이든지 친구들을 지도하면서 어울리게 되었다	59	39.3
2	어떤 친구나 지도를 하면 잘 따라 준다	52	34.7
3	마한가지이다	35	23.3
4	모든것에 용기가 없어졌다	4	2.7
	계	100	100

V. 結論 및 提言

1. 結 論

태권도 價値性에 관한 調査를 위하여 國民學校 學生 150名, 學父母 150名, 指導者 100名 計 400名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身體的, 情緒的, 社會的, 學習的으로 구분 調査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修練生들의 분포는 平均 男子 69명, 女子 8.5명 計 77.5名이 1個의 體育館에서 修練하고 있었으며 그 중 國民學校 學生이 男 37名 (54%) 女 3名 (35%)으로 가장 많음을 나타내어 대부분 태권도 修練生은 年少者임을 알 수 있었다.

2) 태권도 修練의 動機는 學生 學父母 指導者 모두 體力를 단련하기 위하여가 가장 많았고 친구들과 健全하게 어울려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自己를 防禦하기 위해 순으로 나타내어 태권도를 통해 健康生活과 健全한 성장을 영위하기 위함을 알 수 있었다.

3) 태권도 수련 目的에 있어서 學生은 모든 일에 精神集中이 되기 때문, 훌륭한 체력을 만들어 주기때문 學父母와 指導者는 健康增進, 身體保護, 人格形成 순으로 나타나 動機와 비슷하게 보아나온 心身의 健康을 目的으로 나타냈다.

4) 태권도에 관한 關心度는 가족이 아주 장려를 한다. 보통이다, 조금 장려를 하는 편이다. 순으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과 권장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學父母가 學育館이나 試合에 參觀하는 關心은 1년에 16回 以上 1~3回 순으로 상당히 열성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修練生 自信도 體育館에 나가는 관심이 하루도 빠

짐없이 나간다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태권도 修練이 흥미있고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學習의인 面에서는 태권도 修練 후 學校成績이 그대로다. 아주 좋아졌다. 순으로 비교적 學習意欲과 成績이 向上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學校體育時間에도 아주 재미있어졌다. 조금 재미 있는 것 같다. 순으로 學校受業時間에도 많은 도움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6) 身體的인 면에서 태권도 修練 後 上體의 변화는 팔의 힘이 강해지고 팔로 움직이는 어떠한 동작도 팔로 움직일 수 있다. 자라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순이고 下體는 다리에 힘이 세어지고 달리기나 걷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身體發達에 영향이 많이 끼침을 알 수 있었고 또한 學父母는 식욕이 좋아지고 健康이 增進된 것 같다. 身體에 균형이 생긴 것 같다. 指導者는 身體에 균형이 잡힌다. 지구력이 좋아진다. 순으로 나타내어 偏食이 없어지고 이상적인 身體發達에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7) 精神의인 面에서는 學生은 태권도 修練 後 強한 精神力을 갖게 하였다. 모든 일에 自信感이 생겼다. 忍耐力을 기르게 하였다. 學父母는 自信感이 생긴 것 같다.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긴 것 같다. 指導者는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참여한다. 모든 일에 不安感이 점점 줄어든다. 순으로 나타내어 情緒的으로 성장하는 學生들에게 지대한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8) 家庭의인 面에서는 태권도 修練 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스스로 하게 되었다(공부, 심부름, 청소 등)가 대부분으로 자립심을 스스로 갖게 되었음을 나타내었다.

9) 社會的인 面에서는 태권도 修練 후 예절

이 선배님이나 조금이라도 아는 웃어른이면 무조건 인사를 한다. 잘 아는 선배님이나 웃어른에게만 인사를 한다. 변함이 없다 순으로 倫理的 영향이 크게 미쳤으며 指導者는 건전하고 원만한 生活를 한다. 責任感을 느낀다. 소속감을 느낀다. 순으로 나타내어서 個人生活 隔和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提言

이상에서 추출된 결론을 토대로 태권도의 次元은 價値性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태권도가 Sports 生活化되기 위해서는 年少者에게만 보급의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男女老少 누구나 즐길 수 있게 프로그램을 작성 널리 보급하는 것이 要請된다.

2) 태권도가 지니는 價値性을 多角度로 체계 있게 연구되어 理論化됨을 물론 선행되어야 하겠다.

3) 國技로서 태권도가 競技化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民族의 武藝인 태권도 교육의 精神이 올바르게 계승되어 全人的인 教育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할 뿐 아니라 世界人의 武道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高興煥, 體育測定評價, 서울: 延世大學 出版部, 1982.
2. 金健洙, 體育醫學, 서울: 普信文化社, 1979.

3. 金鳳守, 韓國兒童生活 價値觀의 一般의 傾向에 關한 研究, 서울敎大論文集 8號, 1975.
4. 金洪根, 社會, 經濟의 地位에 따른 靑少年의 價値觀에 關한 研究, 慶南大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2.
5. 羅鉤成 外 2人, 體育史, 聲雪出版社, 1980.
6. 羅鉤成, 韓國體育史 研究, 서울: 文泉社, 1974.
7. 大韓태권도協會, 태권도, 大韓태권도協會 出版部 1977.6.
8. 朴興植, 體育에 對한 올바른 概念과 그 價値觀 들단 10, 1975.
9. 朴喆斌, 申吉洙, 體育育成의 科學的 基礎, 서울: 敎學社, 1977.
10. 宣炳基, 體育測定 및 評價方法論, 서울: 高麗大 出版部, 1981.
11. 文敎部, 스포츠 의학; 서울신문사 出版部, 1973.
12. 宣相圭, 태권도 修練(敎育)이 幼兒의 成長 및 性格에 미치는 影響, 世宗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1.
13. 尹仁籍, 李主東, 體育原理, 서울: 敎學研究社, 1983.
14. 李維佑, 태권도 普及實態에 關한 調查研究, 慶熙大 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9.
15. 梁興模, 태권도 修練生과 非修練生의 體力 및 體格變化에 對한 比較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1.
16. 鄭福模, 價値觀과 敎育, 倍英社, 1973.
17. 鄭元植, 知力과 情意의 敎育, 倍英社, 1977.
18. 崔永宣, 정통 태권도 敎本, 서울: 불이출판사, 1972.
19. 崔泓熙, 태권도 지침, 서울: 정연사, 1971.
20. 崔仁範, 體育概論, 서울: 受實界社, 1973.
21. 體育百科大事典 편찬실, 體育百科大事典, 서울: 敎育出版公社, 1981.



跆拳道選手の 體重減量과 그 實情과 問題點



李圭錫

大韓柔道大 跆拳道科

I. 序 論

1. 研究의 必要性

스포츠의 발전과 함께 體級경기에 대한 世界人의 熱이 高潮되고 있어, 國內경기는 물론, 國際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優勝을 하기 위하여 體重조절을 하고 競技에 입하는 風潮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體重과 身體의 生理 및 有機的 연관을 고려하여, 體重을 조절함으로써 競技力을 향상시키고, 身體의 여러 機能을 極大化하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여, 참가한 競技에서 優勝을 하고자 함이 그 목적일 것이다.

이와같은 體級競技者의 體重조절에 대하여는, 이미 스포츠科學의 한 分野로서 연구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태권도는 우리 固有의 武術로서, 古來로 우리 民族이 익히고 단련하여 온 것으로, 그 정신적 인 깊이와 力學的 優秀性은 다른 武術에 比하여 월등한 것이다. 그러나, 武道로서의 태권도가 널리 보급되어 스포츠로서 더욱 脚光을 받게 됨에 따라, 다른 格技와 마찬가지로 體級別로 競技를 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많은 選手들이 體重조절을 하고 競技에 참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태권도선수들의 體重조절에 관한 科學的 研究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體力이란, 환경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行動力과, 환경의 변화에 자신의 건강을 지

방하고자 하는 防衛力¹⁾인 것이며, 體力の 低下는 運動능력의 低下는 물론, 健康유지技能의 弱화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運動선수에게 있어서 無理한 體重의 減量에서 오는 體力の 低下는 運動능력뿐만 아니라 正常的인 진장이나 발육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이의 올바른 방법에 대한 연구가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이다.

2. 研究의 目的

이 論考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태권도선수가 실시하고 있는 體重減量은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 문제點은 무엇이고, 改善해 나가야 할 方向은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①體重減量의 정도, ②體重減量에 소요되는 기간, ③減量方法, ④體重減量에서 오는 自覺症狀, ⑤減量의 效果 및 影響, ⑥平常時로의 回復에 대하여 重點의 研究를 하고, 그 올바른 방법을 모색하려 하였다.

II. 研究方法

1. 研究對象

현재, 全國규모大會에 참가하여 활약하고 있는 태권도선수 중에서 體重을 減量하고 출전하는 53명을 抽出하여 研究의 對象者로 삼았으며, 이들의 素속·연령·체급 등은 다음 표 I - I

I-8과 같다.

[표 I-1] 所屬팀別 分類

△明知大: 3명 △韓國體大: 12
△成均館大: 2 △海軍代表: 13
△柔道大: 14 合 計: 53
△陸軍代表: 9

[표 I-2] 年齡에 따른 分類

△18세: 1 △19세: 4 △20: 14
△21세: 8 △22세: 7 △23: 7
△24세: 9 △25세: 1 △無응답: 3

[표 I-3] 體級에 따른 分類

△핀급級: 2명 △플라이級: 6
△밴텀級: 10 △페터級: 7
△라이트級: 10 △웰터級: 4
△라이트미들級: 7 △미들級: 2
△라이트헤비級: 0 △헤비級: 0
△無응답: 5 合 計: 53명

[표 I-4] 現在の段에 따른 分類

△1段: 4명 △2段: 17 △3段: 27
△4段: 5 計: 53名

[표 I-5] 運動經歷에 따른 分類(平均: 8.9)

△3~4年: 5명 △5~6年: 8 △7~8年: 13
△9~10年: 9 △11~12年: 8 △13~14年: 10

[표 I-6] 選手經歷에 따른 分類

△3~4年: 12명 △9~10: 11
△5~6: 12
△7~8: 18

[표 I-7] 全國규모大會 參加回數

△4回以下: 1명 △5~8: 6
△9~12: 8 △13~16: 5
△16~20: 5 △21~25: 12
△26~30: 16 合 計: 53명

[표 I-8]

調査對象者가 受賞한 메달數

종류	메달數	0	1~2	3~4	5~6	7~8	9~10	合計	平均
金		10	18	10	7	3	5	53	3.2 개
銀		15	14	9	10	5	-	53	2.7
銅		6	15	13	8	8	3	53	3.8

이들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對象者는 平均 8.9 年의 運動경력과 平均 6.6 年의 選手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平均연령 21.6 세로 태권도 선수로서 많은 활동을 하여 왔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 따라서 體重조절에 관하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對象者에 헤비급이나 라이트헤비級の 重量級 선수가 없는 것은, 태권도에 있어서 이들 重量級 선수들은 體重을 오히려 加量하고 출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 研究方法

1) 設問紙 作成

體重減量 實態조사는 設問紙에 대한 調査對象者의 應答를 集計·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設問은 총 51 項이었고, 이 중 49개項은 客觀式으로, 2개項은 主觀式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客觀式 응답에 있어서도 각 응답者의 의견을 적을 수 있는 空間을 두어 조사에 참고가 되게 하였다.

2) 調査資料의 分析

설문紙에서 얻은 客觀式 응답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통계에 의하여 圖表를 작성하였고, 필요한 項目은 이해를 돕고 比較하기 쉽도록 百分率을 내었다. 百分率은 資料자체가 高度의 正確度를 요구하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小數點 2 째 자리에서 半올림하여 小數點 첫째 자리까지를 有效숫자로 하였다.

主觀式 응답은 비슷한 類型으로 분류하여, 각 응답의 대체적인 경향을 파악하였고, 개개의 특수한 경우에도 유의하였다.

3) Approach에 있어서의 限界性和 主觀性

많은 선수 가운데서 少數의 調査대상者를 抽出하였기 때문에, 여기서의 事例가 모든 선수에게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특히 對象者가 大學 및 一般팀인 선수에 국한되어 있어, 成長期에 있는 선수들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였고, 調査자료를 調査者가 長期間 관찰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限定된 調査對象者의 경험에 의한 主觀的 견해이므로, 어느 정도 主觀的 경향을 排除

할 수는 없다.

Ⅲ. 結 果

1. 體重減量의 程度

표 Ⅲ-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많은 선수들이 3~4kg 정도 減量하고 있으며, 平均 3.95kg씩 減量하고 있다. 平均身長이 171.2cm이므로, 平均의 體重平均 63.4kg은 身長 171.2cm에 대한 標準體重 64.08kg보다 0.52kg 더 가벼운 것을 알 수 있다. 또, 平素 體重

平均 63.4kg에 대하여 平均 3.95kg씩 減量하므로, 이것은 平素體重의 6.2%(약 1/16)씩 減量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Ⅲ-1] 調査對象者의 身長(平均: 171.2cm)

△ 160~165cm : 6명 △ 165~170:12
△ 170~175 : 21 △ 175~180:11
△ 180~ : 0 △ 無應答 : 3

[표Ⅲ-2] 調査對象者의 平素體重(平均: 63.4kg)

△ 50~55kg : 2명 △ 55~60 : 13
△ 60~65 : 15 △ 65~70 : 12
△ 70~75 : 4 △ 75~80 : 2
△ 80~ : 0 △ 無應答 : 5

體 重 減 量 의 程 度

[표Ⅲ-3]

減 量 kg	1~2	3~4	5~6	6以上	合 計	平 均
人 員 數	11	23	11	8	53	3.95
%	20.8	43.4	20.8	15.1	100	

2. 體重減量에 所要되는 期間

體重減量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체로 1주일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나, 少數지만 1개월 가까이 걸리는 사람도 있으며, 平均8.9일이다.

季節과 體重減量에 소요되는 기간과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선수가 50석이고, 이 중 관계가 있다고 응답한 이유는 대부분 여름에는 땀이 나므로 調節期間이 짧아진다는 것이다.

體 重 減 量 에 소 요 되 는 期 間

[표Ⅲ-4]

所要 期間	3일以下	6~7일	10일	15일	20일	25일	合 計	平 均
人 員 數	7	26	11	4	3	2	53	8.9일
%	13.2	49.0	20.8	7.5	5.7	3.8	100	

季 節 과 體 重 減 量

[표Ⅲ-5]

調節 期間	관계없다	관계있다	無 應 答	合 計
人 員 數	25	25	3	53
%	47.2	47.2	5.7	100

3. 減量方法

대체로 運動에 의하여 體重을 減少시키며, 그 밖에 음식의 質과 量의 調節, 沐浴, 投藥으로 體重을 조절하고 있다.

體重減量에 있어서의 음식에 대해서는 도Ⅲ-1에서와 같이, 밥이나 빵 등 穀類와 고기·생선 등의 肉類, 飲料, 과일 등 모든 食品의 攝取

가 減少하고 있으며, 채소류만은 전부 먹고 있으나 김치는 밥을 적게 먹게 됨에 따라 攝取量이 대폭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體重減量은 기온이 높은 여름에 하기 쉽고, 겨울에는 沐浴을 더 많이 하고 있다.

한편, 體重을 減量할 때라도 54.7%의 應答品가 평소에 하던 運動을 그대로 하고 있으며,

現在 施行하고 있는 調節方法

[표Ⅲ-6]

調節方法	沐浴	運動	飲食調節	投藥	沐+運	運+飲	沐+飲	沐+運+飲	合 計
人員數	1 20	7	2	1	13	1	8	53	
	1.9 37.7	13.2	3.8	1.9	24.5	1.9	15.1	100	

季節과 調節方法과의 關係

[표Ⅲ-7]

조 절 방 법	관 계 없 다	관 계 있 다	無 應 答	合 計
人 員 數	18	33	2	53
%	34	62.3	3.8	100

體 重 減 量 과 體 力 管 理

[표Ⅲ-8]

운동량의增減	평소와같다	평소의 2/3	평소의 1/2	평소의 1/3	其 他
人 員 數	29	10	10		4

37.8 %는 평소에 하던 運動量を 減少시키고 있는데, 평소의 運動을 전혀하지 않는 선수도 15 %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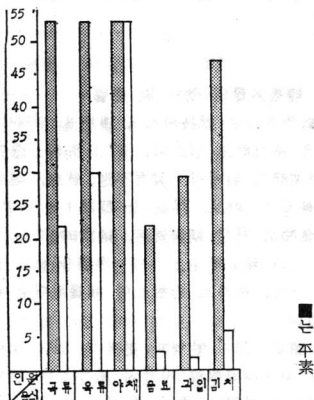
主觀式응답에 의한 理想으로 생각되는 體重調節方法은, 땀을 흘리며 運動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12명 음식으로 調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2명, 運動·음식등을 함께 조절해야 한다

는 의견이 35명으로, 대부분의 應答者가 한 가지 方法보다 複合的인 方法이 理想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2~3kg만 減量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장기간에 걸쳐, 또는 평소에 체중을 조절해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75.5 %가 되는 대부분의 應答者가 體重조절의 方法을 자신이 혼자 고안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Ⅲ-1] 體重減量과 食品



[표Ⅲ-9] 體重減量에 있어서의 運動減少 內容

- △技術운동만 한다: 15명
- △體力운동만 한다: 2
- △技術·體力운동을 아울러 한다: 27
- △運動을 하지 않는다: 8
- △無理하게 한다: 1 (計 53명)

[표Ⅲ-10] 體重減量方法의 提示者

- △코우치: 1명
- △先輩: 6
- △同僚: 2
- △自身: 40
- △先輩·同僚: 1
- △코우치·先輩: 1
- △코우치·先輩·同僚·自身: 1
- △無應答: 1 (計: 53명)

4. 自覺症狀

體重減量에 따른 反應은 대체로 否定的인 것이고, 특히 體力의 하락이 가장 심하여 81.1 %에 이르고 있으며, 표Ⅲ-16에 나타나 있는

[표Ⅲ-11]

體重減量 후 의 自覺症狀

自覺症狀	현기증	상쾌한 기분	평소와 같다	모르겠다	합 계
人 員 數	39	5	3	6	53
%	73.6	9.4	5.7	11.3	100

[표Ⅲ-12]

減量 후 競技에 참가했을때의 自覺症狀

競技할때의 自覺症狀	현기증	상쾌한 기분	조바심	모르겠다	현기증및조바심	無應答	其 他	合 計
人 員 數	19	10	15	3	3	2	1	53
%	35.8	18.9	28.3	5.7	5.7	3.8	1.9	100

[표Ⅲ-13]

減量 후 의 실 력 에 대 하 여

實 力	平素보다떨어진다	상 승 한 다	변 화 없 다	其 他	合 計
人 員 數	32	6	10	5	53
%	60.4	11.3	18.9	9.4	100

[표Ⅲ-14]

減量 후 體 力 의 變 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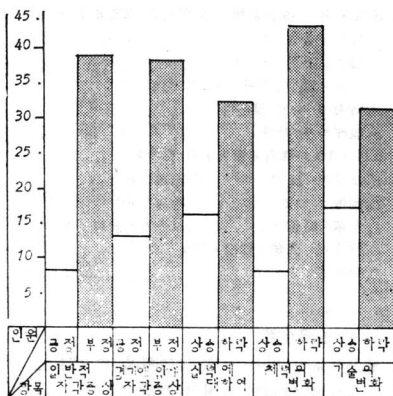
體力의變化	上 昇	下 落	無 變	其 他	合 計
人 員 數	1	43	7	2	53
%	1.9	81.1	13.2	3.8	100

바와 같이 많이 減量할수록 否定的인 反應이 더욱 심하다. 다만 例外로서 6kg以上 減量하는 應答者 중 1명의 體力이 上昇하는 것을 볼 수 있다.

5. 體重減量의 效果 및 影響

調査對象者들은 競技에서의 優勝을 위해서 體重減量을 施行하고 있으나, 67.9%의 應答者가 體重調節이 위장병, 發育不進, 貧血, 健康低下, 營養장애, 피로, 浮氣 등 健康上의 나쁜 影響과, 藥物로 인한 精神昏迷, 精神的 不安, 意慾低下 등의 精神衛生上 나쁜 影響을 받고 있다고 하였으며, 例外로 忍耐力이 涵養된다는 應答도 있었다.

또한 體重調節이 연령과 關係가 있다고 應答한 경우 中 · 高等學校 시절에 施行하는 體重減量은 成長에 影響을 주며, 轉절에 손상을 주기



減量 手 技 術 の 變 化

[丑 III - 15]

技術의變化	任意로驅使	低 下	모르겠다	其 他	合 計
人 員 數	8	29	7	9	53
%	15.1	54.7	13.2	17	100

減量 程度에 따른 自覺症狀

[丑 III - 16]

	體 重 減 量	1 ~ 2kg	3 ~ 4kg	5 ~ 6kg	6kg以上
減量後의 一般의 自覺症狀	현기증	6	17	8	8
	상쾌한 기분	2	3		
	평소와 같다	1	2		
	모르겠다	2	1	3	
競技에 參加했을 때의 自覺症狀	현기증	3	8	5	5
	상쾌한 기분	3	6	1	
	조바심	5	6	3	2
	모르겠다		3	2	1
實 力 의 變 化	떨어진다	5	13	7	7
	上昇한다	2	4		
	變化없다	4	5	1	
	其 他		1	3	1
體 力 의 變 化	上昇한다				1
	떨어진다	10	17	9	7
	變化없다	1	5	1	
	其 他		1	1	
技 術 의 驅 使 度	任意로 驅使	1	5	1	1
	低 下	6	10	7	6
	모르겠다	2	4	1	
	其 他	2	4	2	1
健康과 精神衛生에의 影響	影響을 준다	4	9	2	1
	안준다	7	14	9	7

쉽고, 精神의 影響이 크며, 成長期이며 經驗이 적고 精神力이 모자라 體重을 減量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大學生이나 一般人에게는 胃腸에 影響을 주고, 體重을 調節하기는 쉬우나 體力이 급격히 低下되고 老衰현상이 일적으며, 나이가 들수록 부담이 커진다고 하였다.

基礎體力에 대한 效果는 柔軟性에서 가장 좋았고, 반대로 持久力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技術에 있어서는 앞차기와 앞돌려차기에서 좋은 효과를 보며 후려차기에 있어서는 기

술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丑 III - 17] 體重을 減量하는 理由

- △ 平素의 體重 體級에는 強한 選手가 있기 때문에
- △ 平素의 體重 體級에는 強한 選手가 있기 때문에: 12
- △ 體重을 減量하면 優勝할 것 같아서: 23
- △ 身體의 均衡을 위하여: 6
- △ 現在의 體級을 固守하려고: 5
- △ 平素의 體重·體級에 친한 친구가 있어서: 1
- △ 남들이 體重을 減量하고 나가는 것이 좋다고 하여: 1
- △ 其他(몸이 가른해서: 習慣): 2
- △ 無應答: 3

〔표Ⅲ-18〕

體重 減量의 健康에 對한 影響

影 響	안준다	준 다	合 計
人 員 數	17	36	53
%	32.1	67.9	100

〔표Ⅲ-19〕 減量과 年齡의 關係

體重調節과 年齡	관계없다	관계있다	無應答	合 計
人 員 數	27	22	4	53
%	50.9	41.5	7.5	100

〔표Ⅲ-20〕

基礎體力 및 技術에 對한 效果

	體 力				技 術		
	上	中	下		上	中	下
瞬 發 力 명 %	12 24	26 52	72 24	앞 차 기 명 %	20 40	22 44	8 16
스 피 이 드 명 %	13 26	24 48	13 26	앞돌려차기 명 %	17 34	24 48	9 18
柔 軟 性 명 %	27 54	15 30	8 16	내 러 찌 기 명 %	14 28	20 40	16 32
持 久 力 명 %	2 4	21 42	27 54	후 러 차 기 명 %	2 4	29 58	19 38
筋 力 명 %	1 2	29 58	20 40	후 러 차 기 명 %	6 12	28 56	16 32
均 衡 명 %	2 4	33 66	15 30	뒤돌아후러차기 명 %	5 10	28 56	17 34
				정 권 명 %	7 14	30 60	13 26

6. 平素體重으로의 回復

平微의 體重으로 回復하는 데 所要되는 期間은 표Ⅲ-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體重을 減量할 때의 平均 8.9일에 비하여 平均 4일로 훨씬 짧다.

〔표Ⅲ-21〕 平素의 體重으로 회복하는데 所要되는 期間

△ 1~2일 : 13명 △ 3~4 : 22
 △ 5~6 : 5 △ 7~8 : 11
 △ 無應答 : 2 平均 : 4.0(計 : 53名)

한편, 減少되었던 體重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는 서서히 食事量을 증가시킨다. 營養食을 섭취하고 休息을 취한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는다. 水分을 섭취한다 등 대체로 食事와 關係 있는 것이 많고, 그 중에는 잘못된 줄 알면서도 食事を 調節하지 못하고 마구하여 부담을 느낀다는 대답도 있었다.

體重의 回復방법을 類型別로 分類하여 보면

食事に 關係된 方法이 34명, 목욕을 하고 休息을 취하는 方法이 6명, 平常時같이 하는 것이 6명, 운동을 통하여 回復시키는 方法이 2명 등이다.

Ⅳ. 結 論

體重減量에 對한 이 研究를 要約해 보면 調査對象者인 태권도선수 53명은 平均 3.95 kg을 8~9日間の 期間을 통하여 減量하고 있고, 減量의 方法으로는 運動과 飲食物調節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減量하는 期間 동안 대부분 減量 前의 運動量을 계속 持續하고 있고, 減量 後에 體力이 현저히 低下되어, 競技에 參加하여 좋은 成果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들이 減量 後 平素體重으로 恢復시키는 데는 平均 4일을 소비하고, 平素體重으로 恢復시키는 方法은 대다수가 食事로 調節한다고 되어

있다.

體級경기에 있어서의 體重減量의 문제는, 選手 자신은 물론, 여러 學者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경기出戰을 위한 體重調節은 2~3kg 정도나 自己體重의 5% 정도 줄일 때 握力이나 背筋力에 別差를 보이지 않았다 한다.

레슬링選手の 경우는, 5% 體重減量을 했어도 筋力이나 다른 중요한 身體機能에 害를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고¹⁾ 소련의 오조린 등이 말하는 바에 따라 生理學的 입장에서는 短期間에 3~4kg의 減量을 하는 것은 害는 없다고 하지만 경기에 임박해서 4~5kg의 減量을 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며, 人體에 本質的인 害를 가져온다고 하였다.²⁾

그밖에 스웨덴의 王立中央體育研究所에서 6名の 男子를 對象으로 한 脫水實驗의 結果를 보면, 運動 직전에 脫水시키는 것은 위험하므로 減量을 하려면 飲食物의 칼로리를 줄이고 運動에 의해 消費하는 칼로리를 조금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³⁾

또한, 스포츠 科學研究報告書에 의하면 減量에 대한 人體實驗에서 體重을 2Lb, 4Lb, 6Lb 減量한 사람을 2名씩 태하여 5km/25min으로 走行시켰더니 2Lb 減量群에서는 正常群과 別差가 없었으나, 4Lb 減量群에서는 持續 시간이 5分이었으며, 이 群들은 자기 상당한 疲勞感을 느꼈다고 말했다⁴⁾ 고 되어 있다.

以上的 研究結果에 의하면, 體重減量은 어느 정도 短期間內에 3~4kg 정도의 體重을 飲食物과 運動量의 調節(攝取 cal 보다 消費 cal 를 많게 함)으로써 施行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다.

지금까지 考察한 바와 같이, 태권도선수가 현재 施行하고 있는 體重減量은 本來의 減量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體力와 技術의 低下를 초래하고 현기증을 느끼게 하며, 특히 대부분의 選手들이 減量때문에 健康에 害를 입는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科學的인 研究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겠다.

引用 및 參考文獻

註 1) 白井伊三郎, 體力形成における營養適の應機序, 日本文部省 特定研究, 1971, 5-2

2) 文教部 刊, 트레이닝과 管理, 트레이닝法, 서울신문사 출판국, 1976, p. 337.

3) 前掲書, 서울신문사 출판국, 1976, p. 337~p. 339

4) 大韓體育會, 스포츠科學研究報告書, Vol 3, 1966, p. 49.

☆ 金振元 著: 트레이닝理論, 同和文化社, 1977.

☆ 成樂應 稿: 體育調節에 관한 研究, 스포츠科學研究報告書, 3권, 1호, 대한체육회, 1966.

Abstract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research the true state of Taekwondo player's loss in weight and to grope for the right way of reducing weight.

The research selected 53 Taekwondo player as its objects. They showed the average 3.5kgs. of loss in weight within 8 or 9 days. They employed Physical exercise and diet to reduce weight. They also exercise physically as much as before they began to reduce weight, but their strenght declined remarkably. They experience subjective symptoms when they have a match, and suffer from bad health and slow growth.

Therefore, to reduce weight ranging from 3 to 4 Kgs in a short period, it is desirable to increase consuming calorie rather than caloric intake. The current method of loss in weight is not efficient enough for the Taekwondo players, there another scientific method must be developed for the desirable loss in weight.

Chapter I deals with the necessity and aim of the research, and Chapter II described its subject and method. Chapter III, body of the research, concerns 1) amount of loss in weight 2) the period required 3) method for the reduction of weight 4) subjective symptoms 5) the effect and influence of the reduction and 6) the return to the original weight. Lastly, Chapter IV, conclusion of this thesis, concerns the summary of the foregoing chapters and suggests the right ways of reducing weight.

◇ 연재소설 ◇

세컨드 - 윈드

2nd Wind

-白鷺-

지금까지의 즐거이

태권도인이며 회원인 '현욱'은 어려서부터 독립운동가의 내력이 서린 아버지 리건호씨의 준엄한 가르침 속에서 자라났다.

현욱은 학창시절과 군생활의 소대장시절을 통해서 강건한 무도인의 면목을 발휘하여 동료들과 부하, 선배와 상관의 신망을 받았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정의감이 투철한 그는 바른 몸가짐으로 신망을 얻어가고 있던 중 뜻 밖의 회사중역의 부조리에 타협을 못하고 저항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그는 등산길에서 인연이 닿은 「아나운서」인 윤상미에게서 정착하고픈 마음을 느끼기 시작한다.

현욱, 그는 순차오르는 사회생활의 긴 「레이스」에서 이제 사점(死點)에 부딪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가 세컨드-원드로 나설 것인지?

I. 그해겨울

현욱이 판매부로 옮겨진 것은 일종의 압력이었다. 언젠가는 인사조치가 있을 것을 자오히터였지만 그렇게 빨리 좌천(?)을 당하리라고는 현욱은 생각지 못했다.

현욱은 판매부가 「오일-쇼크」로 실적이 크게 나빠 고전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표를 내지 않았다. 누구라도 그가 사정이 나쁜 판매부로 옮겨진 것을 기분나쁘게 생각해서 회사를 그만 두었다고 생각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욱은 더욱 열심히 일했다. 불과 세달 남짓한 기간에 그는 「메테랑」판매부 원들에 버금가는 실적을 올렸다. 항상 당당하게, 또 겸허하고 솔직하게 접근하는 그에게 거래선들은 호감을 가졌다. 어느 사이엔가 현욱의 실적이 판매부에서는 화제거리가 되었다.

연말도 다기울어 가는 눈오는 밤에 K전설의 자재부장과 구매 담당과장, 또 몇이서 영동의 「스탠드-바」에서 간단한 주연이 벌어졌다. 호방한 K전설 윤부장은 현욱에 겸손하지만 기재있는 상담(商談)에 뛰어나 유쾌해했다. 「어이!미스터·리, 자비말이야 맘에 든다구 —」 「예?」 현욱의 반문에 윤부장은 말했다. 「요즘 말이야 남자들이 사라져 가고 있어 사나이들이 말야야...」 비위만 살살 마추고선 제 이속이나 차리면 그만이라는 영엽부 놈들은 이제 진저리가 쳐진다

는 윤부장이었다. 「군메 자네는 무언가 있어, 무언지는 잘 모르지만 여하튼 기운이 있는 것같아./」 간단하게 맥주 몇 잔으로 끝내자면 이야기는 결국 2차로 이어졌다.

박박은 눈으로 미끄러졌다. 연말의 유흥가는 내리는 눈으로 더욱 흐드레 거렸다. 막, 주점들이 물려 있는 골목으로 접어드는 순간에 현욱의 발치로 「핸드백」이 날라와 떨어졌다. 이어서 1학년 것인듯한 장동사나들이 흩어졌다. 현욱은 반사적으로 물건들을 좇아 「백」에 담았다.

발이 날라와 현욱의 손을 걸어 왔다. 「웬 용감한 기사가 나타나셨나?」. 학생인듯한 여자가 오들오들 떨면서 「백」을 받으려 하자 예닐곱 쯤 되는 청년들이 빈정거렸다. 현욱은 아마도 눈이 내리는 미끄러운 날 장난기에서 여학생을 희롱하겠지 하고 「백」을 여학생에게 건네 주었다. 여학생은 사색이 다되어선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뜨려는 듯 막 뒤려고 했다. 그들은 장난이 아니었다. 여학생의 발을 걸어 이번에는 두 발이 하늘로 향한 채 넘어지게 했다. 현욱이 깜짝 놀라 여학생을 일으켜 세우자 이번에는 현욱의 발을 걸어 왔다.

현욱이 말했다. 「당신들 왜 행패를 부리나?」 윤부장 일행은 취기가 가신 얼굴로 그들을 말렸지만 놈들은 아마도 근처의 불량배들인 듯했다. 현욱은 여학생에게 물었다. 「저 사람들 아는 사람임?」 눈물과 수지로 뒤범벅된 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현욱은 윤부장에게 경찰을 부르시라고 했다.

그러나 현욱의 일행이 움직이려고 하자 그들은 그녀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다. 현욱은 다시 한번 나지막히 말했다. 「당신들 혼 날지도 몰라./」 그들은 한국말을 모르는 오랑게 같았다.

현욱의 얼굴이 굳어지자 그들 중 한녀석이 주먹을 날려왔다. 바닥이 미끄러운 도강바닥에 물결레질을 하고 유단자들과 다수 겨루기를 하던 현욱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 까닭이 있는가?

여섯 놈이 혹은 주먹에 옆구리를 질리고, 명치에 팔굽이 쏙히고, 발끝에 목적이 스치고, 뒷금치에 허벅지를 찍히고, 뒷목에 손날질을 당하고 그리고 깨진 병을 휘두른 놈은 태질을 당한 채로 쌓인 눈을 밟고 말았다.

그들은 불량 패거리였고 현욱은 설악산 깊은

꽃의 눈보라 속에서 단련된 무에가였다.

정작 넓이 나간 사람들은 윤부장 일행과 오늘
오늘 뿔고 있는 여학생이었다.

그녀, 수옥은 S 여대생으로 졸업 사운회를 끌
내고 교수님을 바라다 주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

그일이 있는 후 윤부장은 현옥을 친동생처럼
귀여워 했다. 그는 K전설 뿐 만 아니라 「K그룹」
의 판매사에도 현옥을 소개해 주었다. 아니 소개
정도가 아니라 현옥을 데리고 다니면서 중역들
에게 인사를 시킬 정도였다.

현옥의 판매실적은 회사에서 신화(神話)처럼
떠다녔다.

새해를 맞는 연휴에서야 겨우 상미를 만났다.
상미는 연말 특집방송으로 초채해져 있었다.

충무로의 불갈비집에서 오랜만에 둘은 그들의
있고 있었던 음악을 되찾았다.

「펄·하모니」는 언제나 「카페트」가 깔려 있
었다. 단조로운 「바로코」의 선율에 현옥은 오랜
만에 상미의 상큼한 머릿내음과 출음을 맛보았다
사표를 내줬다는 현옥의 말에 상미는 말했다.
「다음부터, 불갈비는 제가 살게요」.

그만 두겠다는 현옥의 말에 부장은 물론 담당
중역까지도 의자에서 일어났다. 김상무는 신년
의 정례 공로표창 대상자인 현옥의 돌발적인 사
의표명에 적지 아니 놀란 모양이었다.

점심식사를 같이 하면서 김상무는 말했다. 「이
사람아 자네의 뜻은 잘 아네만 이 세상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네. 자네가 유
독 강한 사람이니 더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는게
아닌가?」 사장의 비리가 그로서도 못마땅하지
만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 되면 이해할 수 있을 거
라는 김상무의 말에 현옥도 공감했다.

그러나 그는 참을 수가 없었다. 수옥에게서 새
해인사 전화를 받은 날, 현옥은 사표를 부장에
게 제출했다.

꼭 만나달라는 수옥의 전화에 이끌려 현옥은
광화문의 제과점으로 갔다.

수옥은 꼭 인회를 연상케 했다. 아마도 졸업반
여학생들의 사회를 향한 쫓겨난 발돋움 탓일게
라고 현옥은 생각했다. 불독처럼 물고 늘어진다
는 졸업반 여학생들이라니! 현옥은 빙긋 웃었
다. 수옥은 썩빠어난 미인은 아니었지만 한 눈

에도 몸매가 균형잡히고 얼굴이 회어 마치 다들
기만 하면 「비너스」라고 새겨넣을 수 있는 「크
레타」섬의 대리석 같았다.

수옥은 자그마한 선물꼬려미를 내밀었다. 「창
피해서 뽕 면목이 없지만, 너무 감사해서요……」
현옥은 말했다. 「아가씨 넘어질 때 작심미가 너
무도 아름다워서 내가 잠깐 실성했나 봅니다」 얼
굴이 빨개진 수옥은 오빠라고 불려도 되느냐고 했
다. 현옥은 상미의 맑은 눈이 떠올랐다.



Ⅱ. 수련기(修練記)

도장은 항상 긴 결베의 물자옥에서 나는 곰팡
이 내음이 배어 있었다. 현옥은 후한의 수련장
마루에 뻗혀있는 살얼음의 복판에 서있었다.

도장은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 그가 임관
하기 전에 십사장에서는 판장님의 훈시시간에, 참
다가 어쩔 수 없이 오줌을 싸서. 도복자락에 배
어나와 마루에 물이 피이는 꼬마 수련생이 있을
정도로 엄한 기강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어느 친구의 승급심사장에 초대
되어 배석할 때는 갖가지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법님 오줌누려 가도 되죠?」· 품세
를 하다말고 한 수련생이 쾅무니를 빼는 것이 아
닌가?

현옥은 실망했다. 「아무리 체육도장으로 시설 강습소설치규정에 적용을 받아 시설학원 취급이라도, 아니 무예의 정신적 가치를 배비하면 야나 축구를 시켜 협동정신이나 가르치는 것이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현옥은 도장개실을 결심했다. 현옥의 퇴직금은 작은 도장하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친구들, 특히 승호는 싼돈 한 해 파수원 수입에 맞먹는 돈을 내놓았다.

「나도 배울테니 수련이나 면제해주라」 아버지 리 전호씨는 도장이 전호도장이라고 명명되자 현옥을 할것 한번 치켜볼 뿐이었다.

어머니는 혀를 꼴꼴 찼다. 「그놈의 도장, 장가는 언제 가누……」.

전호도장은 달동네 아이들로 채워져 갔다. 토요일이면 현옥은 수련생들과 같이 관악의 등줄기로 달려 올라갔다. 호연지기를 그들에게 깊이 심어 주는 것이 현옥의 꿈이었다. 현옥의 「솔로전」은 「부름에 응할 수 있는 인재가 되자」였다.

달동네 아이들은 어딘가가 휘어진 채 자라고 있었다. 그들은 맑은 눈은 있었지만 허기진 배를 지니고 있었다. 또 그들은 꿈이 반월처럼 밝았지만 언덕바지에 청소차는 가지 않고 있었다.

현옥은 들려주곤 했다. 선원들의 저 만주에서의 피끓는 투혼을, 또 대륙에서의 곤궁한 생활속에서도 조국광복의 희망을 결코 잃지 않았음을, 약수터에서 목마름을 달래면서 이야기 하곤 했다.

가난한 것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느냐? 이런 역설적인 대화를 어린 수련생들은 재미있어 했다.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의 부모들에게 자랑했다.

현옥이 인근 국민학교의 교장선생님을 찾아갔을 때였다. 교장은 여성이었다. 정년이다. 얼마남지 않은 그녀는 말했다. 「사범님, 도장에 다니는 아이들이 모범이 되어 달동네 아이들을 잘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현옥은 아직도 우리의 교육자라는 분들이 부유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온실의 화분재배법 밖에는 아는게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전호도장은 달동네 아이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라나고 있느냐를 웅변하고 있었다. 그들은 거

짓말을 버렸고,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것을 배웠으며, 배가 고프는 것보다 더 참기 어려운 것은 무시당하는 것임을 배워 나갔다.

현옥은 밤에는 근로 청소년들을 지도하면서 한문과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들 역시 배울게 즐거워 떨어가고 있었다. 하루 종일 편물일을 하면서 종아리가 붓는 종호, 열여섯살부터 가족가방을 손으로 꿰는 일을 해서 오른쪽과 왼쪽이 어긋나게 발달한 기성이, 코아로 자라나다가 외삼촌의 「데모도」미장이를 하는 철수등 그들에게도 꿈을 나누어 주었다. 「지금 너희들이 하루종일 일터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도장에 나오는데 정신 한가치만 해도 지금 밤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수 많은 학생들보다 훌륭하다」고

그들 모두는 칭찬에 굶주리고 있었다……. 아물든 빈 배를 채울 라면은 있었으니까——.

III. 대리석 불독

현옥은 가끔씩 상미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방송국의 인기 「아나」였고 나는 예매역중위일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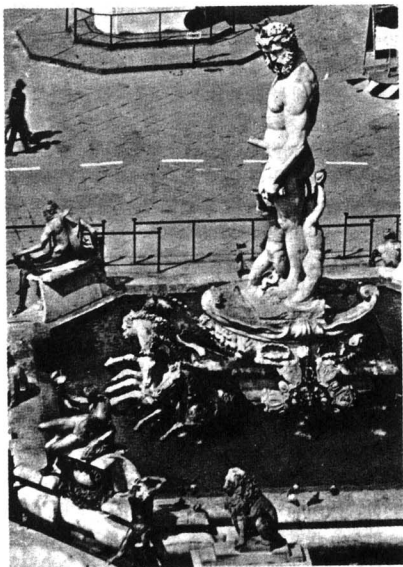
사범이라는 직업은 이 사회에서 인정받기 힘들었다. 근로기준법에도 아마 없을 거라고 현옥이 되새긴 정도였으니까 그런 현옥에게 상미는 하루에 한 번은 꼭, 그녀의 눈매가 떠오르는 전화를 주곤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허밍·코러스」같다고 전화를 받을 때면 현옥은 생각했다. 나즈막히 컷가에 와닿는 그녀의 목소리야말로 현옥에게는 「유리시즈」에게 내리는 「아메나」여신의 구원이었다.

그러나 현옥은 관악의 인력(引力)권 안에서 문학생들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땀을 흘렸다. 승호는 이따금씩 찾아와서는 안마시겠다는 생맥주를 통닭의 반주로 한잔씩 사주곤 했다. 그는 곧 애기 아빠가 된다고 했다.

2월의 마지막 주에 갑자기 수옥의 졸업식 약속이 생겼다. 현옥은 상미에게 같이 가보자고 했으나 상미는 마침 「르뽀」의 생방송이 있다고 했다.

현옥은 수옥이 선물한 「와이셔츠」와 「넥타이」로 달포만에 정장을 했다. 그리고 나는 무심히



도 빈손으로 수옥을 찾았다. 여자대학교의 졸업식은 정말 가관이었다. 하긴 그녀들의 인생에서 어쩌면 한복에 술이 치렁거리는 검은 사각모자 쓰기는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무대이니 까 볼만 할 수 밖에 —.

빈손은 현옥 뿐인것 같았다.

수옥의 부모들은 현옥의 인품에 호감을 가졌다. 그녀네의 차에 올라 「롯데」호텔의 「로비·라운지」까지 올 동안 현옥은 심문당하는 「핸드·백」 날치기범같이 졸곤 당했다. 그녀들은 현옥이 전과범이 아닌 것을 그렇게도 확인하고 싶어 했다. 현옥은 달동네에 걸려있는 연(簾)을 생각했다. 「외산물타기」의 품처럼 가로 한가닥의 전봇대 옆에 걸려있던 꼬리연이 땀방 땀도는 겨울의 달동네. 거기에선 심문이 없이 그저 아랫목으로 앉혀져 봉지 쌀밥이 파래김에 시래기국으로 맛도 있었는데 …………….

한잔 하라는 말에 현옥은 「페파·민트」를 시켰다. 「오라, 술을 잘 못하시는 구먼」 수옥의 어머니는 참, 맘에 들었다. 입은 「지방시」모직「수트」가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의 지성이 것들

어져 있는 「인텔리」였다.

박하향과 초록빛 잔이 꼭 곁에 상미가 앉아 있는 것 같이 느껴졌으나 그의 아테다여신은 창과 방패를 재수생문제를 다루는 현장 탐방에 쓰고 있었다.

수옥의 부모는 직장에서 무슨 부서의 일을 담당하느냐는 말로 현옥을 저울질하려 했으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대답을 잘못 이해한 듯했다. 무슨 직장내 연수원 소속 쯤으로 아는 것 같았다. 현옥은 망설여 졌으나 이내 다시 분명히 말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태권도도장을 세워 지금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린이들의 안색이 어두워졌다고, 생각한 순간, 수옥이 끼어들었다. 「아이 아빠 무슨 선보는 것 같아 싫어요」 「용서하게나, 딸가진. 부모 맘이란 다 이렇다네」.

현옥은 공연한 약속을 한것이 후회스러웠다. 대리석 아가씨 때문에 대리석바닥에 구두코를 비비면서 앉아있는 것이 우스워 졌다.

부모들이 먼저 자리를 뜨자 수옥은 사과했다. 현옥은 원하는 졸업선물을 딱 한가지 주겠다고 했다. 수옥은 당돌하게 말했다. 「오빠에게 프로 포즈하고 싶네요」. 현옥은 말했다. 「나는 조강지처가 있는 몸이야」. 「저것말마세요, 전 다알고 있어요. 윤「아나」하교의 일도, 리현옥이란 분의 과거 경력도 집안내역까지두요」.

현옥이 놀란 것은 그렇게 당돌한 수옥이 보다 그런 수옥이가 싫지 않게 느껴지는 자신의 마음이었다. 현옥은 그날 시집가고싶어 안달이 난 수옥에게 「헤딩·드레스」인형을 하나 선물했다. 좋은 신감감 하나 소개해 주겠다고 말과 함께.

이튿날도 현옥에게는 일상(日常)의 하루였다. 여명과 비너스의 조우가 일어날 쯤에는 이미 현옥은 관악의 능선을 달라고 있곤 했다. 그의 뇌리에 스치는 갖가지 상념은 그의 탄탄한 몸에서 솟은 땀방울에 씻겨, 관악의 계루에 떠내려가는 검물에 지나지 않았다.

정상 가까운 곳에 있는 헬기장에서 그가 발기술과 손기술을 이슬과 함께 청정한 대기의 품에 휘둘릴 쯤이면 동녘 저 과천벌 너머에서 태양이 솟아오르곤 했다.

현옥은 도장에서 꼬마들이 겨루기를 할 때마

다 지르는 기합소리를 생각했다. 「파사! / , 「파사! /」 아무 의미도 없이 멧처럼 뿜어내는 꼬마태권가들의 입술이 바로 태양의 숨토함과 같다고 현옥은 생각했다.

아마도 파사현정 (破邪顯正)의 그 「파사」가 꼬마들이 지르는 합성의 근원인지도 모르겠다고 중얼거렸다.

「그때, 파사(破邪)야 말로 나의/길인지도 모른다. 아니, 내 안에서 싹트고 숨쉬고 있는 사악한 오염을 씻어내야만 한다.」현옥의 갑작스러운 변신(變身)은 의외움을 빚어야 하는 사범인 그로서도 큰 충격이었다. 20대 1이 넘는 취지시험의 판문을 뚫고 세칭 일류기업체에 입사한후에도 패기만만하고 겸허한 자세로 상사들에게 축망받던 현옥이었다.

사직원을 제출하던 날, 어머니는「장가는 언제 가려구?」라고 머느리 보실 걱정이었다. 그러나 아버지 리진호씨는 아무 말없이 현옥의 사유를 다듣고난 후에 한마디했다. 「나는 네 판단을 믿는다. 그러나 앞길은 스스로 개척해야한다는 결심이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

그의 직장동료들은 그를 보고는 말했다. 「그렇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만한 일로 그만두느냐?」고

현옥은 몇년이나 멀리했던 도복을 직접 빨았다. 도복은 한때, 현옥의 피부처럼 친숙했었지만 승용차의 「시트」와 같은 문명의 마비성으로 늘어진 인간의 근력처럼 바래져 있었다. 현옥은 하루에 모든 기술을 한개씩 늘려가기로 했다.

「푸시·엎」을 그가 최대한 해보니 선두개였다. 그는 한달만에 90개까지 「푸시·엎」을 늘려 놓았다. 다른 기량도 모두 이런 식이었다.

그러나 이런 현옥의 정진과는 반비례해서 거의 매일, 습관처럼 만나던 상미와는 한달에 한 번이나 만날까 말까 하게 되었다.

현옥의 눈매는 빛을 더해가고 있었다. 주말에, 현옥은「하이든」에서부터 「립스키·콜사코프」, 심지어 「빈스타인」에 이르는 「클래식」에서 안식을 찾았다. 때로는 일요일 하루 온 종일은 「파이

프·오겐」과 성가를 들으며 밀린 독서를 했다.

그런 현옥을 K건설의 윤부장이 몹시도 찾았다. 윤부장은 현옥을 「스카운」하기로 맘먹고 중동의 현장에 파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현옥은 아랍도후국에 막 펼쳐놓은 K건설의 항만 공사장에 가출 수 없느냐는 윤부장 특유의 저돌적인 제의 앞에서 묵묵부답으로 앉아서 문하생들을 떠올렸다.

심사날에는 손톱, 발톱 검사에 머리냄새까지 맡아서 뽀뽀접수를 메기는 사범님이 제일 부럽다는 어린 수련생들이 그에게는 큰 위안이고 자랑이었다. 그가 전방에서 받았던 위문편지 안에서 연필로 눌러쓴 한식이의 필적과 함께 나온 긴 오징어다리가 달로 그가 어릴때 같은 친진함을 지켜볼 수 있었던 까닭이 아니었던가? 현옥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가난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써 마음이 혼 혼할 수 있던 것은 그가 가르쳐온 제자들의 영롱한 눈빛이 그를 지켜보았기 때문이었다.

그에게 있어 물결레 내음이 비릿한 도장마루야 만로 제 2의 모성(母性)이었다.

술잔을 나누며 이런 얘기들을 밤새 나누던 윤부장은 이런 말을 했다.

「중동현장의 노부자들은 자네가 사랑하는 아이들의 아버지일세. 그들에게도 자네의 무예정신이랄까, 「휴메니티」랄까, 하얏튼 가서 나누어 주게나! /」.

현옥은 이제 수련생들로 북적이게 된 도장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걱정이 앞섰다.

「혹서기 수련을 하는 기본으로 말아 주게! /」 윤부장은 현옥의 어깨를 붙잡아 혼들면서 몇 번이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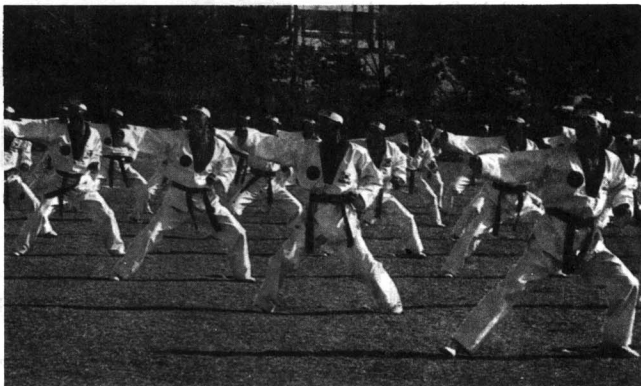
현옥은 상미를 찾았다. 그녀 밖에는 현옥은 가슴을 나눌 상대가 없었다.

그녀 곁에서 현옥은 비로서 도장마루가 아닌 원초의 모성같은 아늑함을 느낄 수 있었다. 상미는 자리에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韓國軍 1 군단 백마부대를 사열하며 태권도를 관람하는 「레이건」대통령



● ————— 미국 New York Times/83. 11. 15

군복 차림의 「레이건」대통령은 최전방 DMZ를 방문, 강인한 자유 수호국의 지도자 이미지를 세계에 과시했다. 美國에 있어서 다른 어느 지역이 아니라 韓半島 휴전선이 바로 그들의 最前線임을 확인케 됐다.

● ————— 미국 Chicago Tribune/83. 11. 15

「레이건」대통령은 美國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DMZ를 방문함으로써 韓國民에게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으며 그 스스로도 개인적, 정치적 성과를 올렸다.

김운용 총재를 예방한 국제스포츠 인사들

VISITS TO DR. KIM, WTF PRESIDENT



국제아마추어 야구연맹회장

Dr. Robert E. Smith, President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mateur Baseball (Sept. 5, 1983)



IOC위원 (쿠웨이트) 아시아 올림픽 위원회 회장

Hon. Sheikh Fahid, President of Olympic Council of Asia and IOC member from Kuwait (Sept. 24, 1983)



ICO위원 (핀란드)

Hon. Peter Tallberg, IOC member from Finland (Sept. 27, 1983)



핸드볼 국제 연맹회장

Mr. Paul Hogberg, President of International Handball Federation (Sept. 5, 1983)



IOC언론위원 (스페인)

Mr. Andres Merce Varela, IOC Press Commission member (Nov. 8, 1983)



세네갈 NOC부위원장

Hon. Lamine Diack Vice-president of Senegal NOC and Congressman (Sept. 8, 1983)

'83 우수선수 선발대회



우승자에게 김윤용총재 시상

Dr. Kim, WTF President presents winner's awards



'83 우수선수 선발대회 우승자들

Winners of 1983 Tournament for Selection of Best Players

제14회 주한외국인 및 여자부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The 14th Foreigner' & Women's T.K.D Championships



개회식(국기원) Opening Ceremony (Kukki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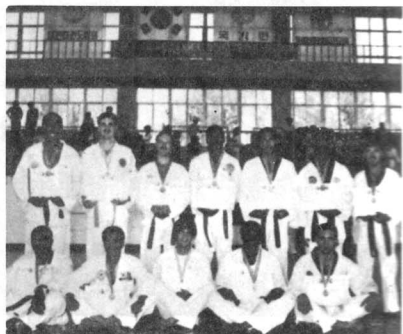


겨루기장면 A scene of compet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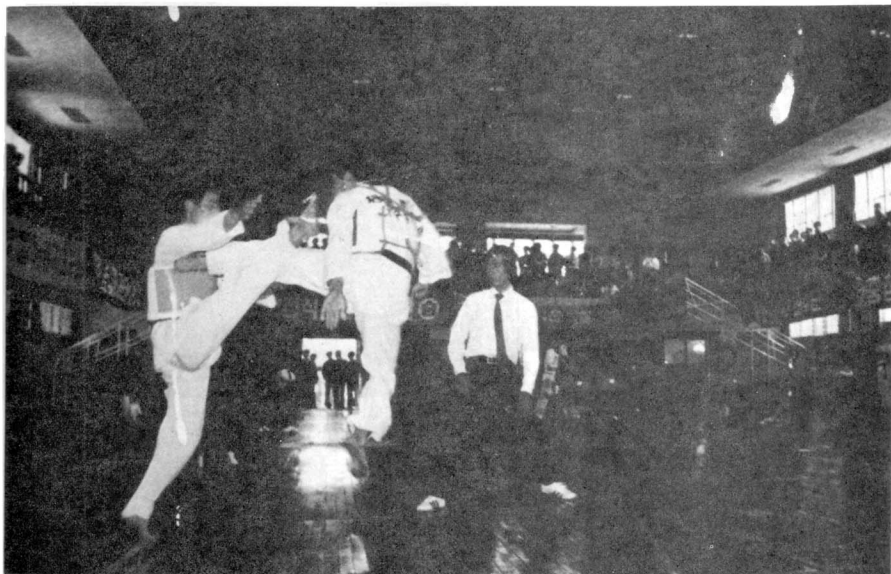
여자부 각체급별 우승자들

Winners of Women's Division (12 Weight categories)



주한외국인 각체급별 우승자들

Winners of Foreigners' Division (12 weight categories)



점프 돌려차기(이단회축) 득점 부위일까?



우승의 순간!



대학부 우승자들, 헤비급의 왕자 임재익(청주대)



단체우승! 1위 서울, 2위 전남, 3위 전북



제전을 담당했던 인천태권도협회 임원들



6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1983

**BRONDBY-HALLEN COPENHAGEN
DENMARK 20-23. OCT. 1983.**



개회식전경(브론드비-할렌체육관) A general view of Opening Ceremony (Brøndby Hallen)



결단식을 마치고, (체육부장관, 체육회 부회장등 외빈이 참석 격려)
After Ceremony of National Team formation (Minister of Sports to the right of, KASA Vice-president to the left of Dr. Kim)



이영호체육부장관이 김정주 단장에게
개선의 화환을(김포공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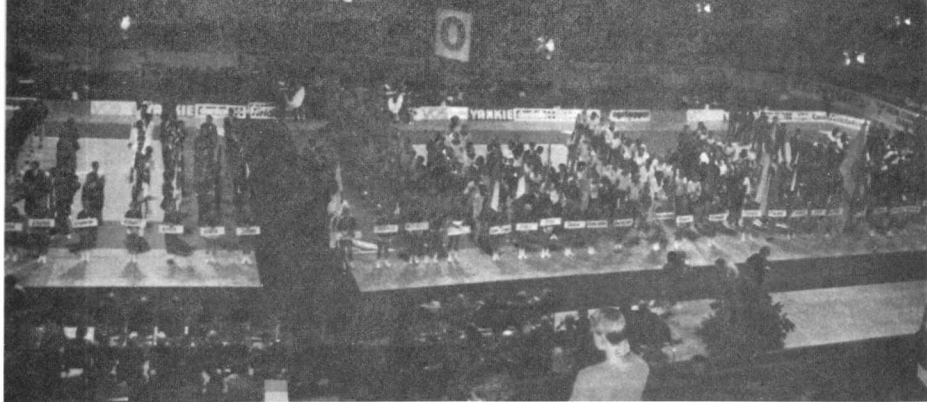
Hon. Young Ho Lee, Minister of Sports greets the Head of Team Jung Joo Kim with garlands of triumph (Kimpo Int'l Airport)



6연패의 영광! 1위 한국, 2위 스페인, 3위 터키
Glory of 6th consecutive triumphs (1st place Korea, 2nd Spain, 3rd Turkey)



깨끗하고 선명한 우리의 국기(입장식)
Korean national flag at the formation of Opening Ceremony



작전지시. (코치와 트레이너)

Coach and trainer giving instruction to the Player.



이재봉선수의 멋진 점프 들어찍기!

How nice! An overhead pounding attack by player Jae Bong Lee.



← 세계태권의 왕자 헤비급 장승화
Seung Hwa Chang, champion
of heavy weight, king of the
world Taekwondo.

→ 환희 가득한 선수들의 카-퍼
레이드
Triumphant champions in
a car parade (Seoul)



대극기를 앞세우고, 화환속에 묻힌 선수들!
Triumphant players buried in bouquets



선수들에게 오찬을 베풀고, 대견스러운듯 지켜보는 이영호
체육부장관(리버사이드 호텔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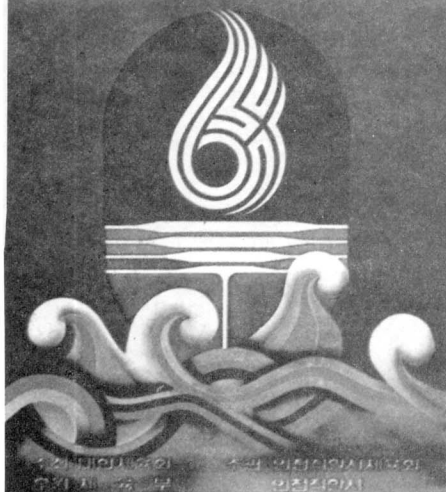


At a lunch hosted by the Minister of Sports for the
champions; the Minister smiles with satisfaction

제64회 전국체육대회

THE 64TH NATIONAL SPORTS FESTIVAL IN INCHEON

1983. 10. 6 ~ 10. 11 : 인천직할시



대표자회의



인천협회가 배풍 태권도 임원 만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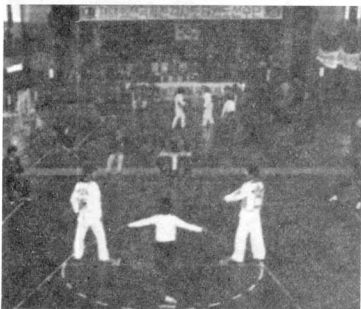


제64회 전국체육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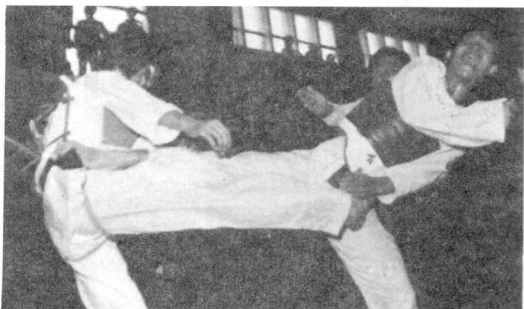
김운용협회장을 위시한 본부석 임원들



KO! 주심이 카운트를 하고 있다



인천고등학교 체육관의 경기장



“라인근처”에서의 공격. 갈려!의 선언